국립국어원 2013-03-05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사 연수 교재

국립국어원

Contents

소 개

1. 국립국어원 소개 ····· 1

2. 국어문화학교 소개 ····· 4

교과목

■ **한국어 어문 규정 Ⅰ - 한글 맞춤법의 이해**: (권미영,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 9

■ **남북한 어문 규정 비교**: (권미영,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 43

■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을 위한 연구 현황과 실제 현장 활용**
: (권순희,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59

■ **한국어 어문 규정 Ⅱ - 외래어 표기법과 남한 외래 어휘 교육**
: (강보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107

■ **국어 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이유원,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123

■ **한국어 어문 규정 Ⅲ - 표준어 규정 해설**: (권미영,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 141

■ **한국어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유하라,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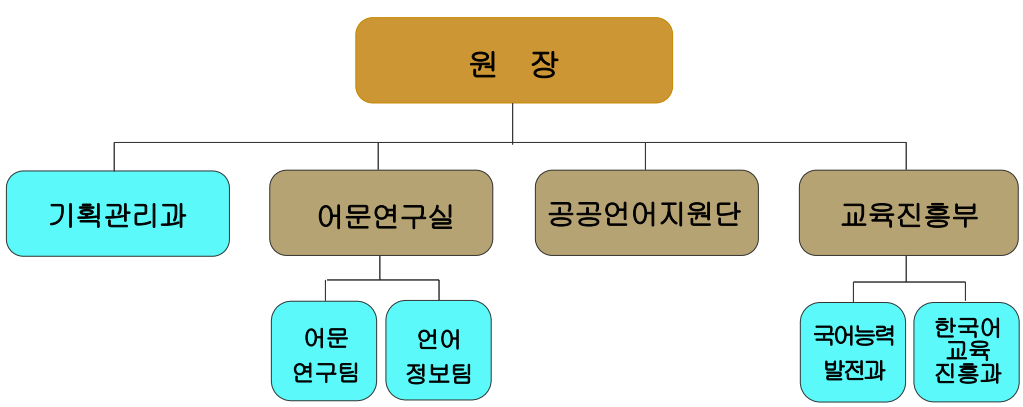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 · 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 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 ·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 · 보급 · 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원장	기 획 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 · 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 · 조정 · 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어 문 연구실	◈ **어문연구팀** ▪ 국어 · 언어 정책 관련 법 · 제도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 · 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 · 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언어정보팀** ▪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 · 실태 조사 ▪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 ·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 발간 등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 지역어 발굴 및 연구 · 조사 ▪ 국어 · 언어 · 문자 관련 문헌 · 자료 등의 수집 · 관리 · 연구 · 조사 · 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 · 보급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 지 원 단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신문 · 방송 · 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능력 · 국어 의식 ·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교 육 진흥부	◈ **국어능력발전과** ▪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육진흥과**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 · 보급 ·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하는 일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가나다 전화(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 · 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 · 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 목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현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3,800명에 이르러, 12년간 약 2만 7천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 (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1.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2.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운영 시작
2010. 6.	새터민 대상 특별 교육 과정(표준어 교육) 운영 시작
2011.	새터민 대상 표준어 교육 실시 경기도 교육청, 강서 교육청과 업무 협정으로 지역 내 학생 대상 우리말 교실 운영
2012.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과 업무 협정으로 특별 과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운영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운영 시작

국어문화학교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과 정 / 연 도	국어전문교육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19	1,292	123	15,412
2002년	19	1,452	185	16,970
2003년	16	1,486	157	17,890
2004년	17	1,458	176	16,332
2005년	17	1,765	195	15,655
2006년	18	1,921	190	12,926
2007년	22	2,354	253	19,305
2008년	24	2,443	148	10,275
2009년	27	2,733	297	19,062
2010년	35	3,174	316	27,804
2011년	29	2,701	334	28,689
2012년	36	3,841	486	34,347
합 계	279	26,620	2,860	234,667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 ·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훈민정음의 이해,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읽고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협력적 의사소통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훈민정음의 이해' 등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 신청하고 학습할 수 있음.

한국어 어문 규정 Ⅰ - 한글 맞춤법의 이해

권미영 |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한국어 어문 규정 Ⅰ – 한글 맞춤법의 이해

권미영 I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1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면 아주 어렵고 맞춤법에 맞게 적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1) ㄱ. 바블 마니 머거써요.
ㄴ. 바블 만이 먹어써요.
ㄷ. 밥을 많이 먹었어요.

(2) ㄱ. 오시 갑시 비싸요.
ㄴ. 오시 갑씨 비싸요.
ㄷ. 옷이 값시 비싸요.
ㄹ. 옷이 값이 비싸요.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사람마다 표기가 달라져,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말을 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이 약속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한글 맞춤법'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글 맞춤법의 제정 경위

'한글 맞춤법'의 역사는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을 정리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세상에 공포하였다. 이 통일안은 1937년, 1940년, 1946년 등 여러 번 개정되었으나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도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말도 변하게 되고 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문자 생활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1970년 국어 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한글 맞춤법 재심 위원회'를 두어 통일안을 수정하게 하였다. 이를 기초로 1970년 12월에 '한글 맞춤법안'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한글 맞춤법안'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문교부는 이 안을 학술원에 이관하여 다시 검토하게 하였다. 학술원은 이 안을 수정하여 1984년 12월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문교부는 맞춤법의 개정 문제가 국가적인 사업일 뿐 아니라 국민의 문자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85년 국어 연구소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의 검토를 위촉하였다.

국어 연구소에서는 맞춤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비롯하여 여러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전국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였다. 1987년 4월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완성하여 발표한 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1987년 9월 국어 연구소의 '한글 맞춤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문교부에 제출되었으며, 이 안은 다시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지금의 '한글 맞춤법'은 1989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부칙에 따라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맞춤법을 모른다'는 말의 의미다. '맞춤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3ㄱ)이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이고 (3ㄴ)은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3) ㄱ.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ㄴ. 누니 마니 내리고 이써요.

그런데 말로 할 때는 (3ㄱ)이나 (3ㄴ)의 차이가 없다. (3ㄱ)을 읽어 본 후에 (3ㄴ)을 한번 읽어 보자. 둘 다 [누니 마니 내리고 이써요][1]로 소리 난다. 이처럼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글 맞춤법"을 펼쳐 총칙의 제1항을 보자.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어[2]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원칙에 따라 [돌], [눈물], [꿈]으로 소리 나는 말을 '돌', '눈물', '꿈'으로 적는다.

그렇다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꽃이, 꽃도, 꽃만'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자.

(4) ㄱ. 꽃이, 꽃도, 꽃만
ㄴ. 꼬치, 꼳또, 꼰만

---

1) 발음을 제시할 때는 '[ ]'을 사용한다.
2)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

(4ㄱ)과 (4ㄴ)은 둘 다 소리가 같다. 받아쓰기를 할 때 '꽃만'을 '꼰만'으로 잘못 적는 일이 있는 것도 소리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 꼳또, 꼰만'이라고 적지 않고 '꽃이, 꽃도, 꽃만'이라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까닭은 (4ㄱ)과 같이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것이 글을 읽을 때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4ㄱ)과 (4ㄴ)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ㄱ)처럼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뒤에 붙는 '이, 도, 만'의 형태 또한 고정되어 어떤 말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말을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까닭에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꽃이'라고 할 때의 [꼬치], '꽃을'이라고 할 때의 [꼬츨], '꽃만'이라고 할 때의 [꼰만] 모두를 '꽃'이라는 하나의 표기로 적게 된다.

또한 소리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 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는 표기의 원리가 어법(語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원리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꼬치], [꼬츨], [꼰만]의 경우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을', '꽃만'으로 적는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ㄱ. 아름답고, 아름다운, 아름다워
ㄴ. 아름답고, *아름답은, *아름답어[3]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답다'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될 경우에는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지 않고 '아름다운', '아름다워'와 같이 적는다. '꽃이'와 '꽃만'은 [꼬치], [꼰만]으로 서로 다른 소리가 나도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서 '아름답-'의 경우에는 같은 말을 하나의 표기로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꼬치]과 [꼰만]은 '꽃이'과 '꽃만'으로 적어도 [꼬치]와 [꼰만]으로 소리가 나므로 어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아름답은', '*아름답어'는 [아름다븐]과 [아름다버]로 아예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소리 나

3) '*' 표시는 단어나 표현이 잘못임을 나타낸다.

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춘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소리가 나는 여러 표기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서로 다른 소리가 되는 '*아름답은', '*아름답어'로는 적을 수 없다. '아름답고'와 '아름다워', '아름다운'의 표기가 다른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4 한글 맞춤법의 실제

4.1. 한글 자모(한글 맞춤법 제2장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모두 24자이다.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모음자는 소리 자체가 글자의 이름이 된다. 자음자의 첫소리는 해당 자음자에 모음 'ㅣ'를 붙이고 두 번째 소리는 모음 'ㅡ' 아래 해당 자음자를 받침으로 쓴다. 그래서 자음자의 이름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등으로 규칙성을 띤다. 그러나 'ㄱ', 'ㄷ', 'ㅅ'은 '기윽, 디읃, 시읏'으로 쓰지 않고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쓰니 주의해야 한다.[4)]

---

4) 자모의 이름은 "훈몽자회 범례"(1527년)에서 비롯된 것이다. "훈몽자회 범례"에서는 자모의 음가를 한자로 제시하였는데, 'ㄴ, ㄹ, ㅁ' 등은 'ㄴ 尼隱, ㄹ 李乙, ㅁ 眉音' 등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ㄱ'은 'ㄱ 其役'으로 표시되어 있고, 'ㄷ'과 'ㅅ'은 'ㄷ 池(末), ㅅ 時(衣)'으로 표시된 후 '(末)'과 '(衣)'는 그 훈을 따른다고 설명되어 있다. 'ㄱ'을 '其役'으로 표시한 것은 '윽'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기 때문이며, '(末)'과 '(衣)' 역시 훈을 따른다고 한 것도 '읃'과 '읏'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자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는다.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참고]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4.2. 된소리(한글 맞춤법 제3장 제1절 제5항, 제6절 제13항)

1) 싹둑/*싹뚝, 몹시/*몹씨

국어에서는 받침 'ㄱ'과 'ㅂ' 뒤에 오는 자음은 예외 없이 된소리로 소리가 나므로 'ㄱ', 'ㅂ'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국쑤]로 소리 나는 단어를 '*국쑤'로 적지 '국수'로 적는 것, [갑짜기]로 소리 나는 단어를 '*갑짜기'로 적지 않고 '갑자기'로 적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싹둑'과 '몹시'도 [싹뚝]과 [몹씨]로 소리 나지만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6) ㄱ. **받침 'ㄱ' 뒤**: 국수, 깍두기, 낙지, 늑대, 딱지, 떡갈나무, 색시, 싹둑
ㄴ. **받침 'ㅂ' 뒤**: 갑자기, 납작하다, 넙죽, 몹시, 법석, 접시

다만 '딱따구리'의 '딱딱'처럼 '딱'이라는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딱딱'으로 적어 같은 형태가 반복됨을 보여 준다.

(7) 딱따구리, 씁쓸하다, 짭짤하다, 똑똑하다

2) 잔뜩/*잔득, 훨씬/*훨신

모음이나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 오는 자음은 된소리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모음이나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 오는 자음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즉 된소리로 소리가 나면 된소리로 적고 된소리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8)은 모음이나 받침 'ㄴ, ㄹ,

ㅁ, ㅇ’ 다음에서 뒤에 오는 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된소리로 표기한 예이다.

(8) ㄱ. **모음 뒤:** 거꾸로, 가끔, 기쁘다, 부썩, 어깨
ㄴ. **받침 ‘ㄴ’ 뒤:** 잔뜩, 선뜻, 안쓰럽다
ㄷ. **받침 ‘ㄹ’ 뒤:** 살짝, 훨씬
ㄹ. **받침 ‘ㅁ’ 뒤:** 섬뜩, 옴짝, 흠씬
ㅁ. **받침 ‘ㅇ’ 뒤:** 몽땅, 엉뚱하다

‘문득’과 ‘문뜩’ 어느 것이 맞을까? 대부분의 화자들은 ‘문득’을 [문뜩]이라고 소리 내어 읽지만 ‘문득’과 ‘문뜩’은 의미 차이가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득’은 [문득], ‘문뜩’은 [문뜩]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9) ㄱ. 어느 날 <u>문득</u> 고향 생각이 났다.
ㄴ. 나는 <u>문뜩</u>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보곤 했다.

발음에 따라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 깜박/깜빡, 꼼작/꼼짝, 끈덕끈덕/끈떡끈떡, 문득/문뜩, 방긋/방끗, 번득/번뜩, 번듯/번뜻, 번적/번쩍, 생긋/생끗, 싱긋/싱끗, 흘긋/흘끗, 흘깃/흘낏

4.3. ‘ㄷ’ 소리 받침: 숟가락/젓가락(한글 맞춤법 제3장 제3절 제7항, 제4절 제29항)

떠먹는 것은 ‘숟가락’, 집어 먹는 것은 ‘젓가락’으로 적는다. ‘숟가락’의 ‘숟’은 ‘술’(밥 한 술)이 변한 것이고 ‘젓가락’은 ‘저(箸)’와 ‘가락’이 결합한 것으로 사이시옷이 쓰인 것이다.

(10) ㄱ. 숟가락(←술+가락)
ㄴ. 젓가락: 저(箸)+ㅅ+가락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그러나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은 ‘ㄷ’을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사흘’과 관련된 ‘사흗날’, ‘이틀’과 관련된 ‘이튿날’, ‘설다’와 관련된 ‘섣부르다’와 같이 ‘ㄹ’이 ‘ㄷ’으로 바뀐 경우 ‘ㄷ’을 밝혀 적는다. 그리고 ‘거두다’와 관련이 있는 ‘걷잡다’, ‘곧게’와 관련이 있는 ‘곧장’ 역시 ‘ㄷ’을 밝혀 적는다.

(11) ㄱ. 반짇고리, 사흗날, 이튿날, 섣부르다
ㄴ. 걷잡다(거두어 붙잡다), 곧장(똑바로 곧게), 낟가리(낟알이 붙은 곡식을 쌓은 더미), 돋보다(←도두 보다)

이 외에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들은 ‘ㅅ’으로 적는다.

(12) 덧저고리, 웃어른, 무릇, 얼핏, 뭇, 옛, 자칫하면, 첫(첫사랑, 첫인상 등)

4.4. 두음 법칙(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10항, 11항, 12항)

1) 여성/*녀성, 남녀/*남여, 신여성/*신녀성

두음 법칙이란 한자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 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녀(女)’라는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녀자, *녀성, *녀신’으로 적지 않고 ‘여자, 여성, 여신’으로 적는데, 단어의 첫머리에서 [녀] 소리를 꺼리기 때문이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여성/남녀, 녹색/청록, 낙원/극락)와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의 구조(해외-여행, 육체-노동)에 적용된다. 그리고 ‘신-여성’, ‘연-녹색’, ‘실-낙원’과 같이 일 음절 한자어 다음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몇몇 일 음절 한자어가 국어에서 단어처럼 인식되는 현상[예: 新舊(신구), 得失(득실)]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녀, 뇨, 뉴, 니	랴, 려, 례, 료, 류, 리	라, 래, 로, 뢰, 루, 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양심/개량	낙원/극락
합성어	신-여성/남존-여비	역-이용/해외-여행	중-노동/사상-누각
고유명사	한국여자대학	신흥이발관	한국노인대학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리을', '녀석' 같은 고유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회계 연도/*회계 년도, 연도별/*년도별

두음 법칙은 의존 명사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자가 같더라도 그 단어가 자립 명사로 쓰일 때와 의존 명사로 쓰일 때 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年度'는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연도'가 되지만 의존적으로 쓰일 때는 '년도'가 된다. 다만 '신년도, 구년도'는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ㄱ. 연도별 생산 실적, 회계 연도/회계연도
ㄴ. 2000 년도/2000년도, 2000 년대/2000년대
ㄷ. 신년-도, 구년-도

의존 명사로 쓰이는 한자어로는 '년, 냥, 리' 등이 있다.

(14) ㄱ.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ㄴ. 몇 년 몇 월 며칠이지?
ㄷ. 그럴 리가 없다.
ㄹ. 몇 리냐?

3) 칼슘양/*칼슘량, 작업량/*작업양, 일양/*일량

'量'은 단독으로 쓰이면 '양'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다른 단어 뒤에 쓰이면 '양'으로 쓰기도 하고 '량'으로 쓰기도 한다. '양/량'의 표기는 앞에 오는 단어가 한자어이냐 아니냐로 구분된다. '량/양(量)'은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슘'이나 '일' 뒤에는 '양'이 오고, '작업' 뒤에는 '량'이 온다.

한자어 뒤	노동량, 작업량, 생산량, 수출량, 증가량, 감소량
고유어 뒤	구름양, 기름양
외래어 뒤	칼슘양(calcium量), 알칼리양(alkali量), 이온양(ion量)

‘란/난’도 마찬가지로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자어 뒤	투고란, 독자란, 학습란, 답란
고유어 뒤	어린이난, 어머니난
외래어 뒤	가십난(gossip欄), 펜팔난(pen pal欄)

4) 백분율/*백분률

‘율/률(率, 律, 慄)’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을 쓰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을 쓴다.

모음 뒤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감소율(減少率), 증가율(增加率)
ㄴ 받침 뒤	선율(旋律), 전율(戰慄), 백분율(百分率), 배분율(配分率), 흡연율(吸煙率)
그 외	법률(法律), 능률(能率), 출석률(出席率), 합격률(合格率), 성공률(成功率)

‘ㄴ’ 받침 뒤에서 ‘율’로 쓰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다. ‘연락, 진리, 전라도’처럼 ‘ㄴ’과 ‘ㄹ’이 만나면 ‘ㄴ’이 [ㄹ]로 소리가 바뀌어 [열락, 질리, 절라도]로 소리가 난다. ‘旋律’은 [설률]이 아니라 [선뉼]로 소리가 나므로 ‘선율’로 쓰는 것이다.

‘열/렬(列/冽/劣/烈/裂)’도 마찬가지이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열’을 쓰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을 쓴다.

모음 뒤	치열(熾烈), 우열(優劣), 계열(系列), 대열(隊列)
ㄴ 받침 뒤	선열(先烈), 균열(龜裂), 분열(分裂), 반열(班列)
그 외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결렬(決裂), 멸렬(滅裂), 졸렬(拙劣), 용렬(庸劣),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竝列)

4.5. 어간과 어미(한글 맞춤법 제4장 제2절)

1) 아니오/아니요

‘아니오’는 형용사 ‘아니다’에 하오체[5]의 어미 ‘-오’가 결합한 것으로 문장의 서술어로만 쓰일 수 있다. 반면에 ‘예’의 짝으로 쓰는 ‘아니요’는 부정의 ‘아니’에 해요체[6]의 보조사 ‘요’가 붙은 것이다. ‘아니요’는 줄어서 ‘아뇨’가 되기도 한다.

5) 상대편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 (예) 빨리 인도로 나오시오./왜 꾸물거리시오?

(15) ㄱ. 이것은 책이 아니오.
ㄴ. 아니요(아뇨), 전 안 가겠습니다.

'요/오'는 문장 끝에 붙는데 '요'는 보조사이고 '-오'는 어미이다. 이 '요/오'를 빼고 문장이 성립하면 '요'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오'를 써야 한다. 문장에서 보조사는 생략될 수 있지만 어미는 생략될 수 없기 때문이다.

(16) ㄱ. 어떻게 살지요?/어떻게 살지?
당신이 참아요./당신이 참아.
뭘 봐요?/뭘 봐?
ㄴ. 이리 오시오.
그것이 인생이오.

단, '안녕하세요/안녕하셔요'의 '-(으)세요/-(으)셔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굳어진 어미로 다룬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연결형의 '이요'이다. (17ㄱ)처럼 연결형으로 쓰일 때는 '이요'를 사용하고 (17ㄴ)처럼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오'를 쓴다.

(17) ㄱ.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ㄴ. 이것은 내 책이오.

2) 나는/*날으는

'알다, 놀다'처럼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 '-는'이나 '-ㄴ'이 연결되면 'ㄹ'이 탈락한다(예. 아는 사람, 노는 시간). '날다, 거칠다, 녹슬다'에 어미 '-는'이나 '-ㄴ'이 결합한 말은 '*날으는, *거칠은, *녹슬은'이 아니라 '나는, 거친, 녹슨'으로 적어야 한다. '*날으는, *거칠은' 등이 가능하려면 '*서로 알으는 사이', '*놀이터에서 놀으는 아이', '*칼을 갈으는 도구' 등도 가능해야 한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 '칼을 가는 도구'로 쓰는 것처럼 '거친, 나는, 녹슨'으로 쓰는 것이 맞다.

---

6) 상대편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 격식체인 '하오체'와 '합쇼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이다. (예) 다음에 또 들르겠어요.

(18) ㄱ. 하늘을 나는 비행기
ㄴ. 이것은 거친 피부에 좋습니다.
ㄷ. 녹슨 철문을 교체했다.

그렇다고 '곯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곯은'의 기본형은 '곯다'이고 이 말의 'ㄻ'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3) 삶/*살음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형태로 바꿔 주는 어미로, 명사형 어미 '-(으)ㅁ'이 있다. 명사형 어미는 '먹다'의 '먹-'처럼 받침이 있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음'이, '가다'의 '가-'처럼 받침 없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ㅁ'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날다'처럼 'ㄹ' 받침을 가진 어간에는 명사형 어미 '-ㅁ'과 결합하여 'ㄺ' 형태로 쓰인다.

(19) ㄱ. 연은 바람이 불 때 잘 낢.
ㄴ. 서울에서 삶.
ㄷ.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듦.
ㄹ. 버스에서 잠깐 졺.

4) 마/*말아

'알다'의 '알-'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알아라/알아'가 된다. 그러나 '말다'의 '말-'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그러나 '말다'의 '말-'에 간접 명령형 어미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20) ㄱ.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ㄴ.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해야겠어?

5) 불은/*부은/*분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거나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는 것은 '붇다'이다. '듣다, 싣다'가 '어제 들은 음악', '짐을 실은 마차'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붇다'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불은'으로 모양이 바뀐다. 참고로 몸의 일정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은 '붓다'이다.

(21) ㄱ. 붇다: 퉁퉁 불은 라면/국수가 퉁퉁 불었다./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다.
ㄴ. 붓다: 퉁퉁 부은 얼굴/울었더니 눈이 퉁퉁 부었다.

♣ 실은(싣다), 들은(듣다), 물은(묻다), 걸은(걷다)
부은(붓다), 지은(짓다), 이은(잇다), 나은(낫다), 그은(긋다)

6) 잠가/*잠궈

'잠그다'와 '담그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연결되면 '잠가(잠그-+-아)', '담가(담그-+-아)'로 모양이 바뀐다. '*잠궜다'와 '*담궜다'는 '잠갔다'와 '담갔다'를 잘못 쓴 것이다.

(22) ㄱ. 외출할 때는 문을 꼭 잠가라./문을 잘 잠갔다.
ㄴ. 김치를 담가 먹는다./며칠 전에 김치를 담갔다.

7) 아름다워/*아름다와

'아름답다, 가깝다, 아니꼽다' 등 'ㅂ'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ㅜ'로 바뀐다. '아름답다, 가깝다, 아니꼽다' 등은 '*아름다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아름다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곱-[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연결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곱-'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 괴로워(괴롭다), 반가워(반갑다), 슬기로워(슬기롭다)

4.6. 접미사(한글 맞춤법 제4장 제3절)

1) 반드시/반듯이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반듯'을 밝혀 '반듯이'로 적고, 관련이 없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반드시[必]'로 적는다.

(23) ㄱ. 모든 일을 내일까지 반드시 끝내라.
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듯이 앉는 것이 좋다.

'더욱이', '일찍이'는 '더욱', '일찍'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형을 밝힐 수 있으므로 '*더우기', '*일찌기'로 적지 않는다.

(24) ㄱ. 일찍이 문명을 꽃 피운 나라/오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ㄴ.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더욱이 몸도 너무 약하다.

♣ 지긋이(지긋하게), 곰곰이, 생긋이, 해죽이
지그시, 갑자기, 슬며시

2) 꿀꿀이/개구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 '쌕쌔기/쌕쌕이'의 경우, '쌕쌕'이라는 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에는 '쌕쌕이(제트기)'로 '쌕쌕'과 관련짓기 힘든 곤충명을 가리킬 때는 '쌕쌔기'로 적는다. 이때의 기준은 '쌕쌕거리다'나 '쌕쌕하다'가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쌕쌕이'이고 그렇지 않으면 '쌕쌔기'가 된다.

'꿀꿀이'는 '꿀꿀거리다, 꿀꿀하다'가 있으므로 '꿀꿀'을 밝혀 '꿀꿀이'로 적는 것이고, '개구리'는 '*개굴거리다, *개굴하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개구리'로 적는 것이다.

(25) ㄱ. 꿀꿀이(꿀꿀거리다), 삐죽이(삐죽거리다), 푸석이(푸석거리다), 홀쭉이(홀쭉하다)
ㄴ. 개구리(*개굴거리다), 뻐꾸기(*뻐꾹거리다), 매미(*맴거리다), 부스러기(*부스럭거리다)

3) 넙죽/*넓죽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넓적하다'는 '넓다'의 어간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넙죽'은 본뜻에서 멀어져 '*넓죽'으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넙죽'으로 적는다.

(26) ㄱ. 하인이 넙죽 절을 한다.
ㄴ. 무를 넓적하게 썰어서 깍두기를 담갔다.
ㄷ. 넓적하다, 넓적다리, 넙치[廣魚]

♣ 낚시, 덮개, 굵다랗다, 굵직하다, 깊숙하다, 높다랗다, 늙수그레하다
올무, 납작하다

4) 덮이다/*덮히다

'덮다'처럼 어간의 받침이 'ㅍ'인 경우 피동이나 사동의 접미사는 '-이-'가 결합한다. 따라서 동사 '덮다, 짚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짚이다'이고,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27) ㄱ. 눈으로 덮인 세상
ㄴ. 짚이는 데가 있다.
ㄷ.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와는 달리 'ㄱ', 'ㄹ', 'ㄺ', 'ㅂ' 받침을 가진 말에는 '-히-'가 결합한다.

(28) ㄱ. 먹히다, 막히다
ㄴ. 긁히다, 읽히다
ㄷ. 넓히다, 밟히다
ㄹ. 굽히다, 입히다, 잡히다

4.7. 합성어 및 접두사(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1) 며칠/*몇일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라고 할 때 ‘*몇 일’은 ‘며칠’로 적어야 한다. 이 ‘며칠’은 원형을 밝힐 수 없는 말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이다. 만일 ‘며칠’의 원형이 ‘몇 + 일(日)’과 같은 구성이라면 [며칠]로 소리 나지 않고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한다.(‘몇 월’, ‘몇 억’이 [며춸]이나 [며척]이 아니라 [며뒬], [며덕]으로 소리 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단어가 [*며딜]이 아니고 [며칠]로 소리가 난다는 점은 ‘며칠’이 ‘몇 + 일(日)’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즉 ‘며칠’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며칠]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며칠’은 또다시 ‘날’과 결합하여 ‘며칟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예. 아버님 제사가 5월 며칟날이지?).

(29) ㄱ.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ㄴ. 며칠 동안 여행 다녀올게요.
ㄷ.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2) 사이시옷

가) 시냇가/*시내가, 시냇물/*시내물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 사이에 ‘시옷(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두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려면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① 결합하는 두 명사 가운데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한다.
- 결합하는 두 명사가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이어야 한다. 즉 ‘한자어+한자어’ 구성에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②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 앞 단어에 받침이 있으면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내’와 ‘가’가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간 ‘시냇가’로 쓰지만, ‘길’과 ‘가’가 결합할 때는 ‘길’에 받침이 있어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길ㅅ가', '깊가'로 적지 않고 '길가'로 적는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는다.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ㄲ, ㄸ, ㅃ, ㅆ, ㅉ]로 변할 때(즉,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ㄱ. 콧 + 구멍, 기름, 김, 대, 등, 바람, 방울, 병, 부리, 소리, 속, 수염
ㄴ. 귓병, 기댓값, 대푯값, 등굣길, 고깃국, 만둣국, 맥줏집, 머릿돌, 바닷가, 보랏빛, 빨랫줄, 성묫길, 시냇가, 장밋빛, 전깃불, 조갯살, 찻잔, 고깃집, 횟집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ㄱ. 콧 + 날, 노래, 물, 마루
ㄴ. 곗날, 제삿날, 훗날, 아랫니, 냇물, 빗물, 뱃머리, 수돗물, 툇마루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깻잎, 나뭇잎, 베갯잇, 욧잇, 예삿일, 사삿일

나) 머리말/*머릿말

'머리말', '인사말'은 '*머릿말', '*인삿말'로 적지 않는다. 왜냐하면 '머리'와 '말', '인사'와 '말' 사이에 [ㄴ] 소리가 덧나지 않는 [머리말], [인사말]이 표준 발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단어가 결합했을 때 소리의 변화가 없으면 'ㅅ'을 표기하지 않는다.

뒤에 오는 단어가 된소리(ㄲ, ㄸ, ㅃ, ㅆ, ㅉ)나 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소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30) ㄱ. 머리말, 인사말, 머리글, 나무다리, 개구멍, 새집, 코감기
ㄴ. 코뼈, 코딱지, 뒤뜰, 위쪽, 아래쪽, 쥐뿔
ㄷ. 코피, 위층, 아래층, 낚시터, 뒤풀이

다) 초점/*촛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이시옷은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초점(焦點)', '화병(火病)', '개수(個數)'는 [초쩜], [화뼝], [초쩜]으로 소리 나지만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다만 '한자어+한자어' 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31) ㄱ. 초점(焦點), 대가(代價), 체증(滯症),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 공부방(工夫房)
ㄴ. 예외: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외래어가 포함된 구성일 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핑큿빛', '*피잣집'으로 쓰지 않고 '핑크빛, 피자집'으로 쓴다.

[참 고]

예외적으로 길 이름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경이라도 적지 않는다. '고갯길, 등굣길'과 같은 일반 명사일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길 이름은 '배호길/*배홋길'처럼 고유 명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배호 1길, 배호 2길'처럼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3) 해쑥/*햇쑥

'그해에 난'을 뜻하는 접두사는 '해-/햇-'이다. '해-'는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일 때, '햇-'은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일 때 붙는다. 따라서 '쑥' 앞에는 접두사 '해-'가 붙어 '해쑥'으로 적는다.

다만 '싸리(荊), 쌀(米), 씨(種), 때(時)' 등은 단어 첫머리에 'ㅂ'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이다.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 또는 접두사와 결합하는 경우, 두 형태소 사이에서 'ㅂ'이 발음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해에 난 쌀은 '햅쌀'로 적는다.

(32) ㄱ. 해쑥, 해콩, 해팥
ㄴ. 햇감자, 햇과일, 햇병아리
ㄷ. 햅쌀

4) 새/시/샛/싯-

색채어 앞에 붙는 '새-/시-/샛-/싯-'은 색채어 첫소리의 자음이 된소리/거센소리이냐(새/시) 울림소리이냐(샛/싯), 그리고 첫소리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새/샛) 음성 모음이냐(시/싯)에 따라 구분된다.

	양성 모음	음성 모음
된소리나 거센소리	새빨갛다, 새파랗다	시뻘겋다, 시퍼렇다
울림소리(ㄴ, ㅁ)	샛노랗다, 샛말갛다	싯누렇다, 싯멀겋다

4.8. 준말(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1) 안 하다/*않 하다

"다시는 거짓말을 {안/않} 하겠습니다."에서는 '안'이 옳다.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고,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다.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33) ㄱ. 다시는 <u>안</u> 만날 거야./다시는 만나지 <u>않을</u> 거야.
ㄴ. <u>안</u> 보이니?/보이지 <u>않니</u>?

2) 어떻게 풀지?/*어떡해 풀지?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것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다. '어떻게'는 "어떻게 풀지?"처럼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하지만, '어떡해'는 "나 어떡해."처럼 서술어가 오지 않는다.

(34) ㄱ. 이 문제를 <u>어떻게</u> 풀지?/<u>어떻게</u> 쓰지?/<u>어떻게</u> 말할까요?
ㄴ. 정말 가 버렸으면 <u>어떡해</u>./<u>어떡해</u>, 네가 책임져.

3) 금세/*금새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 요새'를 생각하여 '*금새'라고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느새, 요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다.

(35) ㄱ.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ㄴ. 그 조그맣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발새 비가 내렸나 봐.

4) 왠지/*웬지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다."에서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왠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36) ㄱ. 오늘은 왠지 멋있어 보인다.
ㄴ. 이게 웬 날벼락이냐?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
ㄷ. 웬걸 이렇게 많이 가져 오셨어요?
저렇게 부탁하는데 웬만하면 들어 줘라.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1등 할 수 없어요.
웬일이세요?

5) 가져/*갖어

'가지다'와 그 준말인 '갖다'는 복수 표준어이나 준말인 '갖다'에 어미가 연결될 때 제약이 있다. '갖고, 갖지, 갖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될 수 있지만 '*갖아/*갖어', '*갖았다/*갖었다', '*갖아서/*갖어서', '*갖으며', '*갖은'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가지다'와만 결합하여 '가지어(가져), 가지었다(가졌다), 가지며, 가진'으로 활용한다.

(37) ㄱ. 우산 {가지고/갖고} 가세요.
부담 {가지지/갖지} 마음껏 쓰세요.
ㄴ. 이거 너 {가져/*갖아/*갖어}.
꿈을 {가진/*갖은} 사람

'디디다/딛다'도 이와 마찬가지다.

기본형 \ 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갖다	갖고	갖지	갖니?	***갖어/*갖아**	***갖으니**	***갖으며**	***갖은**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디뎌)	디디니	디디며	디딘
딛다	딛고	딛지	딛니?	***딛어**	***딛으니**	***딛으며**	***딛은**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도 모두 표준어이다. 다만 준말인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의 어간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가 연결되지 못한다.

기본형 \ 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6) 사귀어/*사겨

'사귀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한 '사귀어'는 '*사겨/*사궈'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꿔'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겼니?', '짝이 또 *바꼈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38) ㄱ. 둘이 <u>사귀어</u>?
ㄴ. 언제 <u>바뀌었어요</u>?
ㄷ. 반이 두 반으로 <u>나뉘었다</u>.
ㄹ. 아프다더니 많이 <u>야위었구나</u>.

7) 돼라/되라

'되다'의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들면 '돼'가 된다. '되-+-었다'는 '됐다', '되-+-어서'는 '돼서'로 줄 수 있다. '되다'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한 '되어라' 역시 '돼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는 '-어라고'가 아니라 '-(으)라고'이다. '되다'의 어간에 '-(으)라고'가 결합하면 '되라고'가 된다.

(39) ㄱ. 시간이 {되어서/돼서} 모두 떠났다.
이제 삼학년이 {되었다/됐다}.
어떻게 해야 {되어(요)/돼(요)}?
제발 사람 좀 {되어라/돼라}.
ㄴ. 그게 말이 {되느냐/*되어느냐}?
일이 {성사되고/*성사되어고} 나서 연락해라.
ㄷ. 착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으)라고] 말씀하셨다.
♣ 괴다, 꾀다, 뇌다, 되다, 뵈다, 쇠다, 쐬다, 죄다, 쬐다

8) -잖-/-찮-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치 않다 → *시원챦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원찮다'와 같이 적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챦'이나 '*잖'과 같이 적는 일은 없고 모두 '찮'이나 '잖'으로 적는다.

-지 않-	-하지 않-
적지 않다 → 적잖다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찮다

9) 생각건대/*생각컨대

생각하건대'가 줄면 '생각건대'가 된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이 [ㄱ, ㄷ, ㅂ]으로 소리가 나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받침 [ㄱ], [ㄷ], [ㅂ] 뒤	그 외
거북하지→거북지, 넉넉하지→넉넉지 깨끗하지→깨끗지 섭섭하지→섭섭지	청하건대→청컨대 무심하지→무심치 연구하도록→연구토록

(40) ㄱ. 생각건대 누군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살림이 넉넉지 않다.
ㄴ. 이번 달에 제출토록 할 것.
문제가 간단치 않다.

10) 아무튼/*아뭏든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연결된 말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은 '아뭏-'에 어미 '-든'이 연결된 것인데, '아뭏-' 뒤에는 '-든' 이외에 어떤 어미도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튼'은 부사로만 쓰이므로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하지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어간에 어미 '-든'이 연결된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등은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튼'으로 적지 않는다.

(41) ㄱ.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이다.
ㄴ. 결과야 어떻든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론이 났다.

한편,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으로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42) ㄱ.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ㄴ.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4.9. 그 밖의 것(한글 맞춤법 제6장)

1) -이/히: 깨끗이/*깨끗히(제51항)

'-이'나 '-히'가 붙어 부사가 만들어질 때, '이'나 '히'의 표기는 소리에 따라 결정된다. 즉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나거나 [이]나 [히]로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그러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사전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

가. '-이'로 적는 경우

① 'ㅅ' 받침 뒤: 깍듯이, 깨끗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② 'ㅂ' 불규칙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③ '하다'가 붙지 않은 형용사 뒤: 같이, 굳이, 많이, 적이, 헛되이

④ 첩어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나 '-히'로 적는 경우

① '히'로만 소리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똑똑히

② '이, 히'로 소리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2) 갈게/*갈께(제53항)

"*내가 갈께."는 틀린 표기이고 "내가 갈게."가 옳은 표기이다. "집에 갈까?", "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으)ㄹ까', '-(으)ㄹ쏘냐', '-(으)ㄹ꼬' 등의 의문형 어미를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미 도착했을껄.", "*제주도로 갈꺼나." 등도 '-(으)ㄹ걸', '-(으)ㄹ거나'로 써야 한다.

(43) ㄱ. 내일 뵐게요.
이미 도착했을걸.
제주도에 갈거나.
ㄴ. 집에 갈까?
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

♣ -ㄹ세, -ㄹ수록, -ㄹ시, -ㄹ지라도, -ㄹ지언정, -ㄹ진저, -올시다
-리까?, -ㄹ쏘냐?, -ㄹ꼬?, -ㅂ니까?

3) -꾼/*-군(제54항)

'나무꾼'이 옳은 표기다. '-꾼'은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므로 '*나뭇꾼, *나뭇군'으로 적지 않는다. '낚시꾼', '사기꾼' 등도 마찬가지다. '때깔'도 '*땟갈/*땟갈'로 적지 않는다. 단 '젓갈'은 '*젓깔'이 아니라 '젓갈'이 옳다.

(44) ㄱ.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ㄴ. 때깔, 빛깔, 성깔
ㄷ. 귀때기, 볼때기, 판자때기
ㄹ. 뒤꿈치, 팔꿈치
ㅁ. 객쩍다, 겸연쩍다

4) -박이/배기/빼기(제54항)

'박이'와 '배기'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이다. '박다'의 의미가 살아 있는 경우 '-박이'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기'를 쓴다. '-배기'는 ① 그 나이를 먹은 아이를 나타내는 접미사(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② 어떤 것이 들어 있거나 꽉 차 있음을 뜻하는 접미사(알배기), ③ 어떤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공짜배기, 진짜배기) 등으로 쓰인다.

(45) ㄱ. 점박이, 덧니박이, 외눈박이, 차돌박이, 오이소박이, 붙박이, 장승박이
ㄴ. 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알배기
공짜배기, 진짜배기

이와 달리 명사 뒤에 붙어 [빼기]로 소리 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

(46) 이마빼기, 고들빼기, 곱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다만 [뚝빼기]로 소리 나는 말은 '뚝배기'로 적는데, '뚝배기'는 '뚝'과 '배기'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쑤]로 소리 나는 말을 '국수'로, [낙찌]로 소리 나는 말을 '낙지'로 적는 것과 같다.

5) -던/-든(제56항)

'-든'은 선택을, '-던'은 과거를 나타낸다.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는 선택의 상황을 나타내고, "사람이 많이 왔던가?"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다. '-더-'가 들어 있는 '-던',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던들' 등도 모두 과거를 나타낸다.

(47) ㄱ.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있든가 가든가 뜻대로 해.
ㄴ. 어릴 적 살던 곳
영이가 뭐라던?
철수가 집에 있던가 없던가?

6) 로서/로써, -므로/-음으로써(제57항)

조사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에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서'가,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다."에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써'가 쓰인다.

(48) ㄱ.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
ㄴ. 눈물로써 호소했다.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으)ㅁ으로(써)'와 '-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ㅁ으로(써)'는 '-(으)ㅁ'에 '으로(써)'가 붙은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므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으)ㅁ으로'에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므로'에는 '써'가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49) ㄱ.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부지런하기 때문에)
ㄴ. 그는 일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일하는 것을 가지고)

7) 맞히다/맞추다/마치다(제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으면 '답을 맞히다'를 쓰고, '답을 비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답을 맞추다'를 쓴다. 따라서 "정답을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가 맞고, "친구와 답을 맞춰 보았는데 많이 틀렸더라."가 맞다. '마치다'는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50) ㄱ.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맞혔어.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ㄴ.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맞춰 보았다.
ㄷ. 다행히 일을 제시간에 마쳤다.

8) 벌이다/벌리다(제57항)

'벌이다'는 '싸움을 벌이다', '일을 벌이다', '좌판을 벌이다'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펼쳐 놓을 때에 쓰고 '벌리다'는 '입을 벌리다', '자루를 벌리다'와 같이 둘 사이를 넓힐 때 쓴다.

(51) ㄱ.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벌였다.
퇴직하고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ㄴ.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마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9) 부딪히다/부딪치다(제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와 버스가 상호작용으로 충돌한 경우에는 '부딪치다'를 쓰고,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게 되는 경우에는 '부딪히다'를 쓴다. '부딪치다'는 '마주'나 '서로'라는 부사가 와도 자연스러우나, '부딪히다'는 그렇지 않다.

(52) ㄱ. 자동차와 버스가 마주 부딪쳐 사상자가 많다.
ㄴ. 자동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졸업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다.

10) 붙이다/부치다(제57항)

'붙이다'와 '부치다'는 구별되는 말이다. 대체로 '붙다'의 뜻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붙이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치다'로 적는다.

(53) ㄱ. 반창고를 붙이다./책상을 벽에 붙이다./불을 붙이다./흥정을 붙이다./감시원을 붙이다./주석을 붙이다./조건을 붙이다./별명을 붙이다./번호를 붙이다.
따귀를 올려붙이다./소매를 걷어붙이다./친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ㄴ. 편지를 부치다./안건을 회의에 부치다./극비에 부치다./인쇄에 부치다./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한글날에 부쳐/식목일에 부치는 글/기운이 부치다./논밭을 부치다./부침개를 부치다./부채를 부치다.

11) 조리다/졸이다(제57항)

'조리다'와 '졸이다'는 모두 '졸다'와 어원적으로 관련 있는 말이지만 '조리다'는 '졸다'와 그 의미가 멀어졌다고 보아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다. '조리다'는 '생선을 조리다', '장조림'과 같이 양념을 하여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끓일 때 쓰이고, '졸이다'는 '마음을 졸이다'와 같이 초조해할 때 쓰인다. 그리고 생선조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물이 줄어들게 만든다는 의미일 때에도 '졸이다'('줄이다'의 작은말)를 쓴다.

(54) ㄱ. 생선을 간장에 조려 먹었다.
생선조림, 장조림, 깻잎조림
ㄴ.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깜빡 잊고 찌개를 한 시간이나 졸였다.

[연습 문제]

※ 다음 중에서 바른 것을 고르세요.

1) {깍두기/깍뚜기} 한 접시 더 주세요.
2) {덥석/덥썩} 손을 잡았다.
3) 다친 사람을 {안스럽게/안쓰럽게} 쳐다본다.
4) {곧장/곳장} 집으로 와라.
5) 보수가 많긴 하지만 {중노동/중로동}이다.
6) {입사년도/입사 연도}가 언제지?
7) {신년도/신연도}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8)식품 속에 {나트륨양/나트륨량}이 많습니다.
9) 소금 {함유양/함유량}이 얼마나 되나요?
10) 채택된 기사는 {어린이난/어린이란}에 실립니다.
11) {답란/답난}을 채우세요.
12) {출석률/출석율}이 낮으면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13) {흡연률/흡연율}이 해마다 줄고 있다.
14) '예', '{아니오/아니요}'로 답하세요.
15) 어서 {오십시오/오십시요}.
16) 하늘을 {나는/날으는} 자동차
17) 떡을 쌀로 {만듬/만듦}.
18) 바쁘니 오지 {마라고/말라고} 하십니다.
19) {부은/불은} 라면을 먹고 잤더니 퉁퉁 {부었다/불었다}.
20) 명절에 먹으려고 김치를 {담갔다/담궜다}.
21) 공원이 {가까와서/가까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다.
22) {반드시/반듯이} 내일까지 끝내겠습니다.
23) 우리 조상들은 {일찌기/일찍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
24) 뚱뚱이와 {홀쭈기/홀쭉이}
25) 주는 대로 {넓죽/넙죽} 받아 먹는다.
26) {짚이는/짚히는} 사람이 있다.
27) {몇 일/며칠} 동안 고향에 다녀올 생각이다.
28) {등교길/등굣길}에 친구를 만났다.
29) {수도물/수돗물}의 정수 과정
30)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니 {예사일/예삿일}이 아니다.
31) {인사말/인삿말}은 간단한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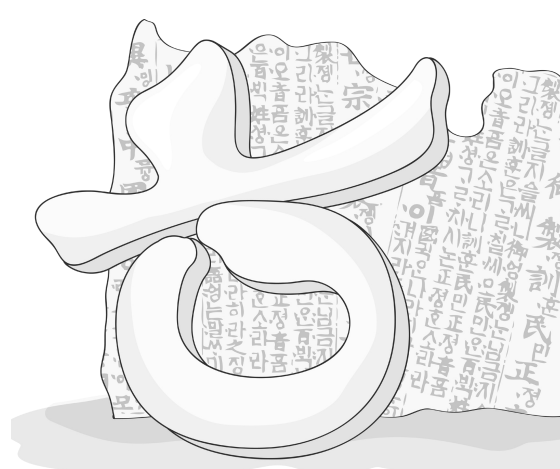
32) {아래층/아랫층}으로 내려갔다.
33) {대가/댓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34) {해콩/햇콩}을 장에 내다 팔았다.
35) {새노란/샛노란} 병아리
36) 다시는 {안/않} 늦을 거야.
37) 만나지 {안을/않을} 거예요.
38) {어떻게/어떡해} 하지? 지갑을 잃어버렸어.
38) 약을 먹었으니 {금세/금새} 괜찮아질 거예요.
40) 이렇게 늦게 {왠일/웬일}이세요?
41) 난 있으니 당신 {가져요/갖어요}.
42) 괜찮으면 {사귀어/사겨} 봐.
43) 아버지는 항상 의사가 {되라고/돼라고} 하셨다.
44) {적잖이/적쟎이} 놀랐다.
45) 준비한 것이 {변변찮지만/변변챦지만} 많이 드세요.
46) {섭섭지/섭섭치} 않게 손님을 대접했다.
47) {아뭏든/아무튼} 내일은 꼭 같이 가는 거다.
48) 방을 {깨끗이/깨끗히} 치워라.
49) {번번이/번번히} 늦어서 죄송합니다.
50) {도저이/도저히} 10시까지는 못 가겠어요.
51) 내일 {뵐게요/뵐께요}.
52) {때깔/땟갈/땟깔}이 좋은 게 맛있게 생겼다.
53) {오이소박이/오이소배기}를 담갔다.
54) {한 살박이/한 살배기}가 무엇을 알겠어요.
55) 찌개는 {뚝배기/뚝빼기}에 끓여야 맛있다.
56) {곱배기/곱빼기}는 혼자 먹기에는 많다.
57) 그 사람은 뭐하고 {살든가/살던가}?
58) 어디에 {살든/살던} 고향은 잊지 마라.
59) 학교 {대표로서/대표로써}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60) 사업을 {시행하므로서/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61) 문제를 낼 테니 {알아맞혀/알아맞춰} 보세요.
62) 내일 학교에서 잔치를 {벌일/벌릴} 예정입니다.
63) 자동차와 트럭이 마주 {부딪쳐/부딪혀} 자가용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
64) 흥정은 {부치고/붙이고} 싸움을 말리라고 했다.
65) 간장을 넣고 한 시간 정도 {조리면/졸이면} 됩니다.

[연습 문제 답]

1) 깍두기	2) 덥석	3) 안쓰럽게	4) 곧장	5) 중노동
6) 입사 연도	7) 신년도	8) 나트륨양	9) 함유량	10) 어린이난
11) 답란	12) 출석률	13) 흡연율	14) 아니요	15) 오십시오
16) 나는	17) 만듦	18) 말라고	19) 불은/부었다	20) 담갔다
21) 가까워서	22) 반드시	23) 일찍이	24) 홀쭉이	25) 넙죽
26) 짚이는	27) 며칠	28) 등굣길	29) 수돗물	30) 예삿일
31) 인사말	32) 아래층	33) 대가	34) 해콩	35) 샛노란
36) 안	37) 않을	38) 어떻게	39) 금세	40) 웬일
41) 가져요	42) 사귀어	43) 되라고	44) 적잖이	45) 변변찮지만
46) 섭섭지	47) 아무튼	48) 깨끗이	49) 번번이	50) 도저히
51) 뵐게요	52) 때깔	53) 오이소박이	54) 한 살배기	55) 뚝배기
56) 곱빼기	57) 살던가	58) 살든	59) 대표로서	
60) 시행함으로써	61) 알아맞혀	62) 벌일	63) 부딪쳐	64) 붙이고
65) 조리면				

남북한 어문 규정 비교

권미영 |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남북한 어문 규정 비교

권미영 |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남북한의 언어는 분단이라는 장애물로 인하여 오랫동안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사용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남북한의 언어는 방언적인 차이 외에도 남북한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졌다. 흔히 예로 드는 어휘적인 차이 말고도 발음, 억양, 표현, 그리고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등의 분야에서도 차이가 많아 서로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

구분	북한	남한
어휘	남새, 게사니, 마사지다, 번지다	채소, 거위, 부서지다, 거르다
	가락지빵, 단물, 설기과자	도넛, 주스, 카스테라
	(북한에만 있는 단어) 속도전떡, 밥공장, 가두녀성 등	(남한에만 있는 단어) 신세대, 동아리, 효도관광, 포인트적립
발음·억양	ㅅ, ㅡ/ㅜ, ㅓ/ㅗ	남북한의 발음이 다름
표현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면목이 있다.	안면이 있다.
	골이 아프다 / 골이 좋다	머리(골치)가 아프다 / 머리가 좋다
어문 규정	녀성, 락원, 로동, 래일, 량심, 리용	여성, 낙원, 노동, 내일, 양심, 이용
	바다가, 저가락, 내물, 나무잎, 초불	바닷가, 젓가락, 냇물, 나뭇잎, 촛불
	이발, 눈섭, 손벽, 잠간, 날자, 색갈 쪼각, 안깐힘, 원쑤	이빨, 눈썹, 손뼉, 잠깐, 날짜, 색깔 조각, 안간힘, 원수
	☞ {기다, 개다, 베다, 되다, 희다, 하다} + '-어' 혹은 '-었다'	
	⇒기여, 개여, 베였다, 되였다, 희였다, 하였다	⇒기어, 개어, 베었다, 되었다, 희었다, 하였다
	떡이였다, ……하기 마련이였다	떡이었다, ……하기 마련이었다
	땅크, 뻐스, 마라손, 웰남	탱크, 버스, 마라톤, 베트남

위 표에서 보듯이 어휘나 표현뿐만 아니라 어문 규범의 차이에서 오는 표기법의 차이도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식으로 '저가락으로 집었다'나 '내물을 건넜다'고 표기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남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맞춤법(표기법)을 중심으로 남북한 어문 규범의 차이를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표기를 제시하여 새터민들의 언어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남북한 어문 규범

○ 남한: '한글 맞춤법'(1988.1.19. 문교부 고시 제88-1호. 1989.3.1. 시행)

○ 북한: '조선말 맞춤법'(1987.5.15. 국어사정위원회 제정, 1988.2.16.사회과학출판사 발간『조선말규범집』)

1 한글 자모의 차례와 이름

구분	번호	규정 내용	예
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북	제1항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가윽) ㄴ(나은) ㄷ(다은) ㄹ(라을) ㅁ(마음) ㅂ(바읍) ㅅ(사읏) ㅇ(아응) ㅈ(자읒) ㅊ(차읓) ㅋ(카읔) ㅌ(타읕) ㅍ(파읖) ㅎ(하읗) ㄲ(된기윽) ㄸ(된디은) ㅃ(된비읍) ㅆ(된시읏) ㅉ(된지읒)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ㅚ(외) ㅟ(위) ㅢ(의) ㅘ(와) ㅝ(워) ㅙ(왜) ㅞ(웨)
		자음글자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수도 있다.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응)/(으) (즈) (츠) (크) (트) (프) (흐) (끄) (뜨) (쁘) (쓰) (쯔)

〈차이점〉

가. 한글 자모의 이름

○ 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 북: 기윽, 니은, 디읃, 리을, 미음, 비읍, 시읏, 이응, 지읒, 치읗 …… 히읗
된기윽, 된디읃, 된비읍, 된시읏, 된지읒

기본 자모의 이름은 남북이 대부분 같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ㄱ, ㄷ, ㅅ' 세 글자만 '기역, 디귿, 시옷'으로 부르는 반면, 북한에서는 모든 자모의 이름을 '기윽, 니은, 디읃, 시읏'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ㄲ, ㅃ' 등은 남한에서는 그 모양을 고려하여 '쌍기역, 쌍비읍' 등으로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그 소리를 고려하여 '된기윽, 된비읍' 등으로 부른다.

나. 자모 배열 순서

자음	남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ㅇ)
모음	남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자음과 모음의 배열 순서도 남북이 다르다. 남에서는 'ㄱ' 다음에 'ㄲ'이 오지만 북에서는 'ㅎ' 다음에 'ㄲ, ㄸ' 등 된소리 자음이 놓인다. 특히 'ㅇ'은 남한에서는 초성이든 받침(종성)이든 항상 'ㅅ' 다음에 놓이지만, 북한에서는 받침일 경우에는 'ㅅ' 다음에 놓이고, 음가 없는 초성(첫소리)일 경우는 'ㅉ' 다음에 놓인다.

모음의 배열도 남북이 서로 다르다. 남한은 훈민정음의 기본 모음자 10자와 이 모음자들에 'ㅣ, ㅏ' 등이 결합한 복모음자를 함께 배열한 반면, 북한은 기본 모음자 10자를 앞에 놓고 'ㅣ'가 결합한 복모음자를 그 뒤에 놓았으며, 마지막에 'ㅘ, ㅝ, ㅙ, ㅞ'를 배열했다.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의 배열 순서가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남한 사전에서는 '꿩, 나비, 사랑, 아버지, 자랑, 회의'의 순서로 배열되지만 북한 사전에서는 '나비, 사랑, 자랑, 회의, 꿩, 아버지'의 순서가 된다.

남	가게 – 개나리 – 교복 – 구멍 – 귀 – 기린 – 꿩 – 나무 – 땀 – 사랑 – 액자 – 어머니 – 원고 – 자랑 – 회의
북	가게 – 교복 – 구멍 – 기린 – 개나리 – 귀 – 나무 – 사랑 – 자랑 – 회의 – 꿩 – 땀 – 어머니 – 액자 – 원고

2 두음 법칙의 적용

구분	항	규정 내용	예
남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 능묘(陵墓) 능묘
북	제25항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국가, 녀자, 뇨소, 당, 락원, 로동, 례외, 천리마, 풍모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자말은 변한 소리대로 적는다.	(옳음) (그름) (옳음) (그름) 궁냥 궁량 | 류월 륙월 나사 라사 | 시월 십월 나팔 라팔 | 오뉴월 오류월, 오륙월 요기 료기 |

〈차이점〉

가. 두음법칙의 적용

○ 남: 한자음에서 'ㄴ, ㄹ'이 단어 첫소리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대부분 표기에 반영.(두음법칙을 적용함)

○ 북: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위치에서나 한자어의 본음대로 적음.

남한 표준어와 북한 문화어의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두음법칙에 따른 발음과 표기의 차이이다. 표준어에서는 '녀, 뇨, 뉴, 니'로 시작하는 한자어가 단어의 첫소리로 쓰이면 'ㄴ'소리가 탈락하여 '여, 요, 유, 이'로 발음되고, '랴, 려, 례, 료, 류, 리'로 시작하는 한자어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라, 래, 로, 뢰, 루, 르'로 시작하는 한자어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발음되는데, 이를 두음법칙이라고 한다. 표준어에서 이렇게 발음되는 한자어는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한자어는 단어의 첫소리 이외의 자리에서는 원래의 소리로 발음되므로 그 한자어의 본음을 적는다.

한편, 북한에서는 하나의 한자어는 항상 같은 소리로만 말하고 또 그렇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한 남한과 그렇지 않은 북한에서 그 발음과 표기가 달라지는 예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두음법칙 (단어의 첫소리에서)	한자 예	단어의 첫소리일 때		첫소리가 아닐 때 (남북 동일)
		남	북	
녀, 뇨, 뉴, 니 → 여, 요, 유, 이	계집 녀(女)	여성, 여인, 여자	녀성, 녀인, 녀자	남녀, 선녀, 처녀
랴, 려, 례, 료, 류, 리 → 야, 여, 예, 요, 유, 이	용 룡(龍)	용궁, 용왕, 용꿈	룡궁, 룡왕, 룡꿈	비룡, 와룡
라, 래, 로, 뢰, 루, 르 → 나, 내, 노, 뇌, 누, 느	즐길 락(樂)	낙관, 낙원, 낙천	락관, 락원, 락천	극락, 오락, 향락
	힘쓸 로(勞)	노동, 노임	로동, 로임	공로, 근로, 피로

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는 예

	녀, 뇨, 뉴, 니 → 여, 요, 유, 이	랴, 려, 례, 료, 류, 리 → 야, 여, 예, 요, 유, 이	라, 래, 로, 뢰, 루, 르 → 나, 내, 노, 뇌, 누, 느
북	녀성, 년말, 념려, 뇨산, 뉴대, 닉명, 닉사	략도, 량면, 려행, 련관, 련락, 료금, 료리, 류동, 리론, 비률	라침반, 락하, 래일, 로인, 론리, 롱락, 뢰관, 릉멸
남	여성, 연말, 염려, 요산, 유대, 익명, 익사	약도, 양면, 여행, 연관, 연락, 요금, 요리, 유동, 이론, 비율	나침반, 낙하, 내일, 노인, 논리, 농락, 뇌관, 능멸

3 사이시옷 표기

구분	항	규정 내용	예
남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맷돌 바닷가 햇볕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뒷윷 뒷일 두렛일 베갯잇 욧잇 깻잎 나뭇잎 댓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병 뱃병 샛강 자릿세 봇둑 전셋집 아랫방 콧병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댑싸리(대ㅂ싸리) 볍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접때(저ㅂ때) 멥쌀(메ㅂ쌀) 입쌀(이ㅂ쌀)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것) 수탉(수ㅎ닭) 안팎(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것) 암탉(암ㅎ닭)
북	제15항	합친말을 이룰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여나는것은 덧나고 바뀌여나는대로 적는다.	례 : 마파람 살코기 수캐 수퇘지 좁쌀 휘파람 안팎
	[붙임]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례 : 샛별 – 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 비바람(비와 바람)

〈차이점〉

가. 사잇소리 표기의 적용

○ 남: 두 말이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변하거나 'ㄴ' 소리가 덧날 경우 앞말의 받침으로 'ㅅ'을 받쳐 적음.

○ 북: 두 말이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어떤 경우라도 앞말의 받침으로 'ㅅ'을 적지 않음.

남북한의 어문규정은 사이시옷의 표기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일부(샛별, 빗바람)를 제외하고는 합성어 표기에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지만, 남한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므로 그 차이가 꽤 크다.

그런데 일부 합성어는 표기뿐만 아니라 발음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컨대, '깨 + 잎'은 북한에서는 [깨입]으로 발음하고 '깨잎'으로 적지만, 남한에서는 [깬닙]으로 발음하고 '깻잎'으로 적는다. 이렇게 표기상의 차이만이 아니라 발음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사전에서 그 단어의 표기와 발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http://korean.go.kr)

나. 사이시옷 표기를 쓰는 남한 단어

규정	해당 단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가, 냇가, 바닷가, 호숫가, 고춧가루, 미숫가루, 눈엣가시, 바닷가재, 나뭇가지, 뱃가죽, 방앗간, 사윗감, 신붓감, 담뱃갑, 죗값, 골칫거리, 문젯거리, 아랫것, 머릿결, 보릿고개, 귓구멍, 콧구멍, 고깃국, 김칫국, 순댓국, 비눗기, 고갯길, 뱃길, 콧김, 지겟다리, 깃대, 전봇대, 촛대, 횃대, 세숫대야, 아랫도리, 곗돈, 새뱃돈, 맷돌, 낚싯바늘, 마룻바닥, 치맛바람, 구둣발, 공깃밥, 눈칫밥, 빨랫방망이, 나룻배, 낚싯배, 귓병, 콧병, 햇볕, 모깃불, 장맛비, 구릿빛, 나잇살, 우스갯소리, 장삿속, 묏자리, 기왓장, 탯줄, 부잣집, 날갯짓, 볏짚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뒷날, 제삿날, 훗날, 머릿내, 뱃놀이, 아랫니, 머릿니, 팻말, 푯말, 혼잣말, 뒷맛,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바닷물, 수돗물, 콧물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나랏일, 뒷일, 뱃일, 예삿일, 허드렛일, 훗일, 아랫입술, 윗입술, 베갯잇, 욧잇, 아랫잇몸, 윗잇몸, 깻잎, 고춧잎, 나뭇잎, 댓잎

4 띄어쓰기(의존 명사, 단위 명사)

구분	항	규정 내용	예
남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제44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북	제3항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은 원칙적으로 앞단어에 붙여쓰며 일부 경우에 띄여쓰는것을 조절한다.	1) 순수한 불완전명사는 앞단어가 어떤 품사이건, 어떤 형태에 놓여있건 언제나 그것에 붙여쓴다. · 분: 그분, 어느분, 걸어가고있는분 · 탓: 아이탓, 누구탓 · 것: 좋은것, 나의것, 갈것 · 나위: 말할나위가 없다 · 녘: 해질녘, 날이 샐녘 · 지: 떠난지, 간지가 오래다 · 때문: 그때문에 , 가기 때문이다. · 리: 갈리 없다, 모를리가 없다. · 번: 이번 전람회· 양: 아는양을 한다. 2) ≪상, 중, 간, 호, 성, 급, 용, 당, 형, 식, 적...≫ 등과 같은 한자말이나 불완전명사와 ≪뒤붙이적 단어≫는 그 앞단위에 붙여쓰며 그뒤에 오는 단위는 띄여쓴다. 례: 만성 진행성 변이성 이발주위염 대사급 외교관계 학생용 책상 최신형 중거리미싸일 중앙련쇄식 계전기련동장치 전국적 전력소비실태자료
			* 명사앞에 뒤붙이 ≪-형, -식, -적, -용, -급, -성≫이 붙은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붙여쓴다.(≪문화어학습, 1990.2호)≫ 례 : 수자형전자계산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대륙성기후, 혁명적기치, 학생용책상,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 명사앞에 《-형, -식, -적, -용, -급, -성≫이 붙은 명사가 두개 이상 오는 경우에도 모두 붙여쓴다. 례 : 사회주의적자립적민족경제

〈차이점〉

가. 의존 명사와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 차이

○ 남: 단어마다 띄어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의존 명사와 단위 명사를 그 앞말과 띄어 씀.

○ 북: 의존 명사와 단위 명사를 그 앞말과 붙여 씀.

남북한의 표기법 가운데 차이가 나는 또 다른 규정이 바로 띄어쓰기이다. 그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의존 명사와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이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앞에 오는 말들과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모두 띄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표기법에서는 띄어 쓰는 단위가 대체로 남한보다 커 보인다.

남북의 띄어쓰기 차이

구분	남	북
의존 명사	아는 **것**, 좋은 **것**, 먹을 **것**	아는것, 좋은것, 먹을것
	먹을 **만큼**, 하는 **만큼**	먹을만큼, 하는만큼
	그**분**, 어느 **분**, 걸어가고 있는 **분**	그분, 어느분, 걸어가고있는분
	출발한 **지** 3시간이 흘렀다.	출발한지 3시간이 흘렀다.
	말할 **나위**가 없다	말할나위가 없다
	그 **때문**에, 하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하기때문이다.
단위 명사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소 한마리, 옷 한벌, 열살
	연필 한 **자루**, 자동차 두 **대**	연필 한자루, 자동차 두대

나. 숫자 표기의 띄어쓰기 단위

○ 남: ‘만’ 단위로 붙여 씀(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사백이십구 원)

○ 북: ‘십,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씀(십이억 삼천 사백 오십 육만 칠천 사백 이십 구 원)

5 띄어쓰기(보조 용언)

구분	항	규정 내용	예
남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 ㄴ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듯하다. 아는 척한다. /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북	제10항	동사나 형용사끼리 어울렸을 경우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가 붙은 자립적인 동사나 형용사가 다른 자립적인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린것은 원칙적으로 띄여쓴다. 례 : 들고 가다, 가면서 말하다, 들어서 올리다, 붉게 타다, 깨끗하여 좋다, 용감하고 지혜롭다. 2) 토가 있지만 띄여쓰지 않는것은 다음과 같다. (1) 〈〈고〉〉형의 동사가 다른 동사와 어울려 하나의 동사로 녹아붙은 것은 띄여쓰지 않는다. 례 : 짜고들다, 먹고떨어지다, 밀고나가다, 들고뛰다, 캐고들다, (2) 〈〈아, 어, 여〉〉형의 동사나 형용사에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가 직접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례 : 돌아가다, 돌아치다, 몰아내다, 볶아대다, 잡아쥐다 (3) 〈〈아, 어, 여〉〉형이 아닌 다른 형 뒤에서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는 붙여쓴다. 례 : 읽고있다, 쓰고있다, 맡고있다, 쉬고있다, 읽고계시다 읽고싶다, 먹고싶다, 가고싶다, 듣고싶다, 읽는가싶다 하고나서, 끝나고나서, 읽다나니, 늙다나니, 보고나니 (4) 〈〈아, 어, 여〉〉형의 동사나 형용사가 잇달아있을 경우에는 자립적인 행동의 단위마다 띄여쓴다. 례 : 기여넘어가 살펴보다, 들어가 집어올리다, 만나보아알고있다 (5) 토 〈〈나, 디, 고, 도, ㄴ...〉〉을 사이에 두고 두개의 동사나 형용사가 겹친것은 붙여쓴다. 례 : 크나큰, 기나긴, 머나먼, 높으나높은, 젊으나젊은

구분	항	규정 내용	예
			달디단, 쓰디쓴, 높디높은, 깊디깊은, 차디찬, 넓디넓은 넓고넓은, 멀고먼, 부르고부르는, 크고작은, 높고낮은 (6) 〈〈듯, 만, 번, 법, 사, 척, 체...〉〉 등이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토없이 〈〈하다〉〉와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례 : 올듯하다,들을만하다,만날번하다,갈법하다,웃을사하다, 올듯말듯하다, 웃을사웃을사하다, 아는체마는체하다 그러나 〈〈듯, 만, 번, 법, 사, 척, 체...〉〉 뒤에 토가 붙으면 〈〈하다〉〉는 띄여쓰기로 한다. 례 : 갈듯도 하다, 오를만도 하다, 그럴법도 하다 그럴만은 하다, 아는체를 한다, 웃을사는 한다 (7) 토 〈〈지〉〉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다른 단어와 어울린것은 띄여쓴다. 례 : 그렇지 않다, 이기지 못하다, 맞갖지 않다, 갈지 모른다 마지 못해, 머지 않아, 못지 않다

〈차이점〉

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남: 보조 용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띄어 쓰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 북: '-고, -아, -어, -여' 등의 뒤에서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것을 모두 붙임.

남한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아, -어'로 연결된 보조용연의 경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고, -아, -어, -여' 등의 뒤에서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나 형용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남	북
도와 **드리다**(도와드리다), 해 **버리다**(해버리다) 먹어 **보다**(먹어보다), 뛰어 **보다**(뛰어보다) 막아 **내다**(막아내다), 꺼져 **가다**(꺼져가다) 앉아 **있다**(앉아있다)	도와드리다, 해버리다 먹어보다, 뛰어보다 막아내다, 꺼져가다 앉아있다
올 **듯하다**(올듯하다), 들을 **만하다**(들을만하다) 아는 **체하다**(아는체하다), 될 **법하다**(될법하다)	비가 올듯하다, 들을만하다 아는체하다, 될법하다

6 띄어쓰기(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구분	항	규정 내용	예
남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ㄴ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ㄴ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북	제2항	명사들이 토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여쓴다.	(3) 고유한 명칭이 한덩어리로 붙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띄여쓴다. 례 : 주체사상연구 부르끼나파쏘위원회, 주체사상연구 마다가스까르 프로레타리아운동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독일민주주의공화국대사관 (4) 개념상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를 이루는 고유명칭은 붙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종합대학 타도제국주의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주체사상탑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평양제1고등중학교 김일성저작집 자유독립훈장

〈차이점〉

가.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남: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

○ 북: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는 모두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그래서 하나의 붙여 쓰기 단위에 포함되는 음절이 매우 늘어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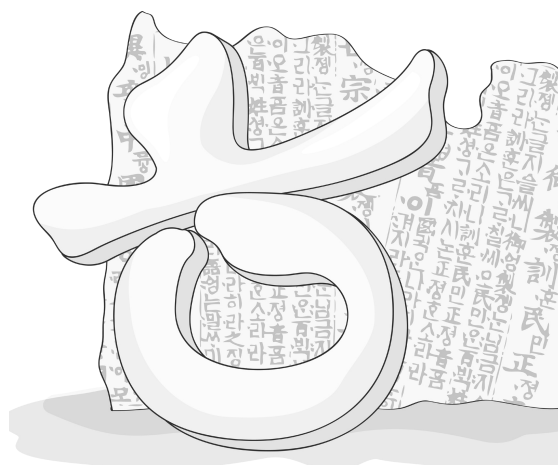
남한에서는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고유 명사와 전문 용어는 모두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즉 개념상 하나의 대상으로 묶여지는 덩이를 이루는 명칭은 붙여 쓰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어에서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가 매우 길어 보이게 되는 이유가 된다.

남북의 띄어쓰기 차이

남	북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 사회주의 노동 청년 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제1 고등중학교	평양제1고등중학교
김일성 종합 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을 위한 연구 현황과 실제 현장 활용

권순희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을 위한 연구 현황과 실제 현장 활용

권순희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후 남북한의 언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그 중 남한의 낯선 어휘로 인해 매우 힘들어한다. 특히 수많은 외래어와 외국어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많은 부담을 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일상생활, 직장 생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언어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다문화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언어의 차이로 생각되는 것이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 체제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발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을 통해 전문 어휘 및 학습 어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발음, 억양, 화용상의 차이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재는 북한이탈주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과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 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 소개, 4장에서는 탈북 학생의 학교 적응 실태 및 학생용 교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

2.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생활 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질적인 남한 문화로 인해 의식주 생활, 쇼핑, 교통수단 이용, 통신 기기 구입과 사용, 관공서 이용 등 남한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소비 생활로부터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와는 전혀 다른 경제 체제로 운영되는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경제 구조나 화폐 단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소한 구매 방식에 있어서도 정착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지역 사회의 공공 기관이나 간단한 정보화 기기, 교통 시설의 이용은 시행착오와 타인 관찰, 모방 등을 통해 쉽게 익숙해지지만, 짧은 시간이더라도 당혹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50대, 60대 주부의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나 지하철 이용 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남한 사회에서는 이제 거의 필수적인 신용 카드에 대해서 대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특별히 호소하는 소비 생활의 어려움은 물건 이름이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데다가 외래어가 많아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이기춘 외, 2001).

남한에 유입되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등의 외래어는 물건 및 상품명의 수입과 더불어 발생한 것이 많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유입되는 북한과 서유럽,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유입되는 남한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적응해 간다. 그동안 겪는 금전적 손실과 구매 후 불만족, 그리고 당혹감과 갈등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측정한 연구는 없지만 상당한 비용과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심리적 상처를 입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말한다. 현재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 교육은 주로 취업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업 교육에 앞서 기초적인 일상생활 적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 교육은 시간을 두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문제이다.

북한 사람들은 억양을 통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야 할지 숨겨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는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혔을 때 남한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견제하는 등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며,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언어와 생각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과의 교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특히 자신들이 쓰는 말씨를 남한 주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에 매우 당혹해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주민들로부터 말씨가 달라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무시로 느껴진다고 한다(조정아·정진경, 2006).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적인 태도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북한을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수용하려는 자세에 대한 교육, 다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남한인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발음과 억양을 수용하려는 태도[1]와 언어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말투를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과 같이 지역적 방언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어의 차이, 영어나 외국어투 표현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는 남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상황을 두렵게 만듦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킨다. 즉, 언어가 서로 달라 남한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최소한의 의사소통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언어의 장벽,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야 남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가 시작될 수 있고, 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생활, 교육, 취업, 직장 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입수할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Bidet, 2009).

2.2. 취업 및 직장 생활에서의 언어 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만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하고 남한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 등을 갖추지 못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학이나 직업 훈련을 통해 구직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갖추려고 하거나, 정부의 지원금과 비정규직 수입에 의존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정규직 취업을 기대하며 무직으로 지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반면, 북한

1) 북한이탈주민의 발음과 억양에 남한인이 익숙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수용하려는 태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발음과 억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탈주민 여성들은 식당 주방일이나 대형 마트의 계산원, 병원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의 취업 기회가 남성보다 많지만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어렵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 컴퓨터와 영어 등으로 인한 직무 능력의 문제, 남북한의 노동 강도와 노동 규율 차이로 인한 갈등, 무관심과 경쟁주의가 만연한 남한의 직장 문화로 인한 갈등,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다. 이로 인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자주 이직하는 문제가 나타난다(조정아·정진경, 2006).

직장 생활 초기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언어 문제와 편견 및 차별 대우인 것으로 나타났고, 3년 이상의 적응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장래성 부재, 저임금, 해당 분야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외래어를 비롯한 남북한 언어 차이, 영어, 컴퓨터 용어,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 하는 것은 특히 직장 생활의 초기 적응을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고 한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직장 적응의 어려움

1. 남북한 언어 차이로 인한 직무 수행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사오정')	
2. '영(영어)맹'과 '컴맹'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어려움	
3. 남북한 직장 문화 차이	• 북한의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 / 남한의 '죽기 살기로' (노동 강도와 노동 규율의 차이) • 공동체 문화 / 무관심과 경쟁 •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솔직하게' / '이중적인'

다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사소통, 대인 관계 방식은 직장 내 갈등 상황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북한식의 갈등 해결 기제는 타협 없이 대결로 치닫는 구조여서 남한의 직장 문화에서는 수용되기가 힘들다. 이러한 문화적인 장벽을 북한이탈주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이어서 차별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남한 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김화순·김준수, 2004).

2.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실태 조사는 정경일(2001), 문금현·이홍식·김경령(2005), 문금현(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실태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언어 차이로 인한 불편의 정도, 구체적인 어려움의 원인, 기존 언어 교육의 만족도와 개선안, 남한어 학습 노력 여부와 방법, 적응 기간 등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은 정경일(2001)이 남한 입국 5년 이내의 남녀 북한이탈주민 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표 2〉 정경일(2001)의 실태 조사 결과

설문 항목	응답	추가 응답
언어 차이 실감 정도	실감: 89.8% 실감 못함: 5.6%	
언어 차이 예상 정도	예상보다 매우 크다: 52.9% 비슷하다: 21.8%	
생활 불편 경험도	불편: 71.9%	
말하기 적응도	내 말을 남한 주민이 이해 못함: 41.6% 이해함: 16.9%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발음과 억양 34.3%, 생소한 단어 29.4%, 단어 의미 차 25.9%
듣기 적응도	나는 남한 주민의 말을 초기에 전혀 거의 이해 못함: 44.8% 충분히 제법 이해함: 24.1%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생소한 단어 33.9%, 발음과 억양 27.4%, 단어 의미 차 19.6%
영어에 대한 적응도	적응 안 됨: 75.9%	
외래어 표기 간판 및 상표	"물건 살 때 알아들을 수가 없다(특히 화장품 가게), 음식 이름이 북과 남이 달라 애로점이 많다"(여/51세/회령 출신) "간판 명칭을 영어로 쓰니 이해하기 어렵다"(남/63세/신의주 출신)	
한자에 대한 적응도	적응 안 됨: 69.6%	

북한에 거주할 당시부터 53.4%가 남북한 간에 언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남한에 도착하여 경험하게 된 언어 차이는 입국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차이가 나기도 하고(52.9%) '비슷'하기도 하다(21.8%)

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 입국 이후 실제로 접하게 된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71.9%가 언어 차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착 초기 남한 주민들의 말을 '전혀' 또는 '거의'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 응답자가 44.8%에 달했으며, 그 원인으로 '생소한 단어'를 지적한 응답자가 33.9%, '발음과 억양'이 27.4%, '의미 차이'가 19.6%이었다. 이때 '생소한 단어'로는 외래어와 한자어, 다른 사회 문화 체제에 기인한 낯선 단어 등을 꼽았으며 외래어, 특히 영어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반응하였다. 그 결과 외래어와 영어가 많은 간판과 광고 상표에 대한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북한 언어 차이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게 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56.8%가 2년 이내에 언어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한다고 보고하였다(정경일, 2001). 또 다른 조사에서는 52%가 2년 이내라고 하였으나, 3년 이상이 걸린다고 응답한 비율도 37%로 나타났다(문금현, 2006). 이는 언어 적응의 기준이 개인적인 기대치에 따라 주관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 후 취업을 예상하는 청소년층, 고학력자와 같이 직업 기대치가 높은 대상자들은 언어 적응의 기준도 높아 예상되는 언어 적응 기간을 길게 잡고 있었다.[2)]

반면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자들은 언어 적응의 기준이 높지 않아 언어 적응 기간을 짧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대상자의 학력 수준, 직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언어 적응 교육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 문장 내 어휘를 주고 그 어휘를 아는지 검사한 연구(문금현 외, 2005)에서는,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어휘력이 좋아졌는데, 19개월 이상 그룹은 남한 사람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 자료 개발

3.1. 북한이탈주민 발음 교육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부터 발음, 어휘, 어문 규범 등 세 분야를 하나의 과정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정호성, 2011). 남북한의 발음과 억양 차이, 담화 상황

2) Kim Kyung-Ryung(2007), "A Study of Language Assimilation Process for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4).

에 따른 어휘·표현 차이,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어문 규범 차이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 교육에 초점을 두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발음과 억양을 직접 실습하고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교재(2011년)가 대표적인 자료이다. 이 교재는 남북한 어문 규정 비교,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 어문 규정 비교'에서는 남북 어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에서는 이론과 실제적인 연습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에서는 남북한 어휘 대응으로 동형동의어, 이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남한 특수어를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한 어휘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개설 요청 기관의 실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전체 강좌 구성과 시간 수를 조정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개설 요청 기관(시민사회단체나 주민센터 등)에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3]하는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콘텐츠이다.

이호영 외(2009),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만든 콘텐츠이다. 만화로 된 상황극과 함께 발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발음을 듣고 따라 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3) http://www.korean.go.kr/kculture/lecture/pronounce/home.html 참고할 것.

3.2. 어휘 교재 개발

국립국어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언어 적응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 · 연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별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어휘 교육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로는 2010년에 수행한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신명선 외)'와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 수행한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개발(권순희 외)'이 있다. 이 연구 결과 2011년에는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신명선 외, 박이정)'과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어휘 1권, 2권, 3권(권순희 외, 하우)'으로 출간되었다.

탈북민이 배우기 쉽도록 구성된 다음의 생활어휘 책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책명	내용	저자 및 출판사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1	북한이탈주민이 사진과 그림으로 쉽게 남한의 일상생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 1권은 관공서, 교육, 금융 등 공공생활을 다루고 있음.	권순희 외(2012), 도서출판 하우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2	북한이탈주민이 사진과 그림으로 쉽게 남한의 일상생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 2권은 교통, 통신, 매체, 여가 등 문화생활을 다루고 있음.	권순희 외(2012), 도서출판 하우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3	북한이탈주민이 사진과 그림으로 쉽게 남한의 일상생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 3권은 음식, 의류, 주거, 화장품 등 개인생활을 다루고 있음.	권순희 외(2012), 도서출판 하우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책을 펴내며 / 2
머리말 / 4
일러두기 / 6

1 관공서 10
(1) 주민 센터, 군·구청, 시청 11
(2)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23

2 교육 34
(1)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35
(2) 대학교 및 대학원 52

3 금융 62
(1) 은행 이용하기 63
(2) 집 구하기 78

4 사회 90
(1) 정치 및 역사 이해하기 91
(2) 법률 정보 이해하기 104

5 의료 114
(1) 병원 가기 115
(2) 약국 가기 127

6 직장 136
(1) 직업 세계 이해 및 직업 구하기 137
(2) 직장 생활 적응하기 150

주요어휘

의료 기구

깁스

북 석고붕대, 키프스

링거

북 링게르
중 뗀디, 뗑디

휠체어

몸을 가누기 어려운 환자를 실어 나르는 의자. 북 삼륜차, 밀차

인큐베이터

미숙아나 출생 때 이상이 있는 아기를 정상이 될 때까지 넣어서 키우는 기계 북 보육기

임플란트

문제가 있는 치아를 대신하여 이를 뽑은 자리에 넣는 인공 치아.

교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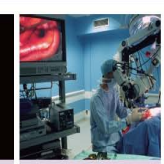
보철

틀니

의료 행위

레이저 치료

수술하지 않고 문제의 부위에 광선 따위로 치료하는 것.



내시경

작은 카메라를 몸속으로 넣어 관찰하는 것.

엑스레이 촬영 북 레트겐 촬영

보통 엑스레이(X-ray)라고 부름. 가슴 사진이나 뼈 사진을 찍을 수 있음.

초음파 검사

초음파를 보낸 다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실시간 영상화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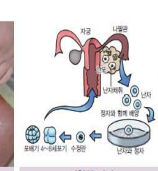
시티(CT)

몸 안을 촬영해 컴퓨터로 해석하여 종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엠아르아이(엠알아이, MRI)

시티(CT)보다 더 자세하게 몸속을 촬영.

채혈: 피검사



시험관 아기

제왕 절개

병원에서의 의사소통

물 주기

1 접수하기

- 어서오세요. OO내과 병원입니다.
-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진찰을 받으려고요.
-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주시겠어요?
- 네, 여기 있습니다.

2 진료받기

- 김철민 씨,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죠?
-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 증상이 어떤가요?
- 열은 심하지 않은데, 기침과 콧물이 심해요
- 열을 재보니 열은 심하지 않네요. 기침, 가래, 콧물에 대한 약만 처방해 드릴게요. 혹시 드시고 계신 다른 약이 있으신가요?
- 네,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디스크**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3 처방전 받기

- **처방전** 여기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
- **디스크:** 북한의 '허리증'에 해당함
- 이미 다른 병 때문에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이 있다면 꼭 의사에게 말을 해야 한다.
- **처방전:** 의사가 환자에게 줄 약의 이름과 분량 등을 적은 문서

병원에서의 의사소통 절차

남북의 의료 비교

새싹 피우기

남한과 북한 무엇이 다를까요?

1 제도

남한	북한
전 국민의 건강보험제도	무상의료제(현재는 실질적 붕괴 상태)
치료비는 본인 일부 부담 국가 부담금(공공 의료 제공 및 보험 재정 40%)	사회보장비(기본 임금의 1% 공제) 치료비(담당 구역 밖의 치료) 의약품비(인민약국에서 구입 시 본인 부담)

2 의약 분업

남한	북한
병원과 약국이 분리	의사와 약사 간의 자율적인 분업

남한은 의약 분업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다.

3 한방 의학

남한	북한
현대 의학(양방)과 한방 의학 분리	통합
한의사는 의대가 아닌 한의대를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함.	신의학과 동의학이 차이는 있으나 결합을 강조하여 각 의료 기관에 동의과가 설치

• 남한에서는 일반 병원에 가서 한의사를 만날 수 없고 침을 맞을 수 없다.

익 힘 문 제

물 피우기

1 (　　)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보기: 카피　이면지　타이핑　블라인드　프레젠테이션

(1)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오후 시간에는 (블라인드)을/를 내리는 것이 좋다.

(2) 직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업무는 복사기로 (　　)을/를 하는 것이다.

(3) 이번 신제품 (　　)에서 김 대리의 업무 성과가 주목받을 수 있었다.

(4) 빠르게 (　　)하는 능력은 문서 작성 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5)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한 문서가 아닐 경우 (　　)을/를 사용하는 사무실이 많다.

2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①~④에서 찾으세요.

(1) 업무 상 전화를 받을 때는 용건을 메모해 두어야 한다.
① 외워　② 입력해
③ 적어　④ 이야기해

(2) 공장에서는 로테이션으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야근을 하며　② 한 사람에게 몰아서
③ 주말에도 쉬지 않고　④ 간격을 두고 번갈아가며

(3) 업무로 인한 연락은 내선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
① 직접 찾아가서　② 컴퓨터 이메일로
③ 개인 휴대폰으로　④ 회사 내 연결된 전화로

정 리 하 기

열매 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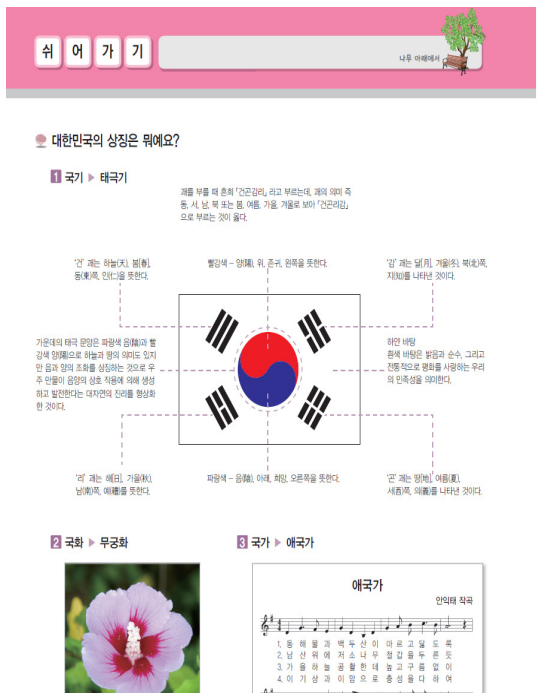
단어 형태가 달라요!

남한어	북한어	남한어	북한어
부스	자리, 칸*	타이핑	타자치기*
전산실, 컴퓨터실	콤퓨터실	데드라인	계획 날짜*
다이어리, 일지	사업일지	디데이	남은 날짜*
메모	기록*	로테이션	교대 근무*
박스	지함	스케줄	일과*
블라인드	창가림	양면 복사	앞뒤복사*
에이포(A4)용지	규격지, 16절지*	피티션	자리막이칸, 칸막이*

*표시 단어는 남한에서도 사용함

남한에만 있어요!

라커 룸	바이어	포스트잇	뒤풀이
마케팅	브리핑	엠티(MT)	워크숍
스태프	아웃사이더	피아르(PR)	프레젠테이션
조립 라인	목탄주	인센티브제	원샷



3.3. 화용 교재 개발

새터민은 남한 사회 적응 시 언어 문제, 특히 표준어 구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에게는 구체적인 일상 담화 상황을 전제로 한 표준 구어 학습용 교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하고 싶어 하는 새터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남북한 화행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새터민이 남한식 대화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표준 발음과 억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서책형 교재와 음성 녹음 자료인 CD 두 가지를 개발하였다. CD를 함께 개발한 것은 새터민이 일상에서 쉽게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교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18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위 교재에 나오는 '개념어, 기호, 색상, 크기, 숫자' 단원 대신에 화행에 필요한 '언어 예절' 단원을 신설하였으며, '화장품', '미용실' 단원을 한 단원으로 묶고, '화법 정리' 단원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둘째, 각 단원의 본문은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상황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본

대화로 구성하였다. 상황별 대화를 중심으로 요청하기, 사과하기, 거절하기, 감사하기 등과 같은 화행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본문에서 나오는 어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교재를 참고할 수 있으나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문 하단에 필수 어휘에 대한 풀이를 제공하였다.

넷째, 본문 대화의 상황 맥락과 대화 순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별 삽화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본문 대화에서 남북한 억양의 차이가 두드러진 문장을 추출하여 설명을 덧붙이고 억양을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억양 연습'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표현 연습'에서는 본문 대화에서 익혀야 할 화행 표현을 중심으로 유사하고 다양한 표현을 제시하여 실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알아둡시다!'라는 항목을 두어 새터민에게 필요한 배경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곱째, '대화 연습'에서는 여러 화행을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덟째, '이럴 때 이런 표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홉째, '연습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새터민들이 부정 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긍정 발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열째, '쉬어 가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나누기'와 '남한의 문화 나누기'로 구성하였다.

열하나째, 각 단원의 끝에는 남북한 발음과 억양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을 선정하여 새터민이 알기 쉽게 발음과 억양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또한 표준 발음과 억양을 반복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보고서명	내용	저자 및 출판사
새터민 구어 학습용 교육 자료 개발	새터민의 표준 발음, 억양 및 화행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된 서책형 교재와 시디(CD)	권순희 외(2012), 국립국어원

〈그림 2〉 새터민 구어 학습용 교육 자료 개발

4. 사회 (1) 정치에 대해 의견 나누기

들어가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정치에 관해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보면서 요청하기, 제안하기, 거절하기 표현을 연습해 봅시다.

본문

※ 투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상황입니다.

철호: 영희 씨, 투표했어요?

영희: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철호: 그런데 영희 씨는 ❶**누구 찍었어요?**

영희: 비밀이에요.

철호: 난 '김한국' 씨 찍었어요.

영희: '김한국' 씨의 정책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철호: 아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사람이잖아요.

영희: 아니, 사람을 보고 찍어야지 ❷**당을 보고 찍으면 어떡해요?**

철호: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당에 속했는가가 더 중요하지요.

영희: 그래도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철호: 국회의원이 정당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 그건 아니지만 누가 정치를……. 에이, ❸**우리 정치 이야기는 그만해요. 이러다 싸우겠어요.**

철호: 그러죠. 내가 좀 흥분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누가 당선* 될지 내기할래요?

영희: 아이, 됐어요. 뭘 그런 걸 내기해요.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요.

*정당: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당선: 선거에서 뽑힘.

두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는 그림	➡	남자와 여자가 논쟁하는 그림	➡	화제를 전환하는 그림(남자가 머리를 긁적긁적)

억양 연습

❷에서 주의할 부분은 '어떡해요'인데 '어'가 낮고 '떡'이 높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를 올렸다가 내리는 억양으로 발음하면 '당을 보고 찍으면 안 된다'는 뜻을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보고 찍어야지 ❷**당을 보고 찍으면 어떡해요?**

[당을 보고 찍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다음 '됐어요'도 '됐'이 낮고 '어'가 높습니다.

아이, 됐어요.

[아이 ∧됐어요]

말토막의 첫소리를 낮게 발음하는 데 주의해서 말해 봅시다.

연습	다음 표시에 주의해서 따라 말해 보세요. ① 아니, 사람을 보고 찍어야지 당을 보고 찍으면 ∧어떡해요∧ ② 아이 ∧됐어요.

표현 연습

요청하기

❶ 누구 찍었어요?
= 누구 뽑았어요?
= 누구한테 투표했어요?
= 누구한테 표를 줬어요?

요청하기

❷ 당을 보고 찍으면 어떡해요?
= 당을 보고 찍어서는 안 돼요.
= 당을 보고 찍지 마세요.

[풀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반대할 때에 "~하면 어떡해요?"와 같이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하기

❸ 우리 정치 이야기는 그만해요.
= 우리 정치 말고 다른 이야기해요.

[풀이]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 주제가 불편할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말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연습

[거절하기]

➥ 다른 사람의 제안을 부드럽게 거절하기

철호: 누구 찍었어요?
영희: 글쎄요.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 둡시다!

한국에서는 모든 선거가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찍었는지 묻는 것은 경우에 따라 실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친한 사이끼리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 대화 주제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거절하기

철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 뽑을 거야?
영희: 글쎄, 근데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아?

알아 둡시다!

때로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화제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대화 주제를 바꾸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런 표현

입후보자 정보를 알고 싶을 때

- 찬조 연설을 들어봐야 해요.
- 대통령 후보자의 텔레비전 토론을 봐야 후보자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어요.
- 선거 유세를 잘 들어보면 후보자를 알 수 있어요.

[풀이] 선거를 할 때 후보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찬조 연설, 텔레비전 토론회, 공약, 선거 유세 등을 보면 좋습니다. 찬조 연설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내용을 말하는 공적인 말하기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 동영상 검색으로 특정 후보의 찬조 연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공개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을 잘 들어보면, 정치적 소신, 공약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 또는 약속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선거 유세는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을 이동하면서 하는 선전도 있고, 집회에서 하는 선전도 있습니다.

연습 문제

1. 다음 상황에서 대답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A: 이번에 누구 찍었어?
B: _____

① 글쎄.
② 괜찮아.
③ 미안해.
④ 비밀인데.

[정답: ①,④]

2.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 화제를 바꿀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A: 아니, 넌 어떻게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니?
B: 너야말로 어떻게 그 정치인을 찍을 수 있어?
C: _____

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② 야, 정치 말고 다른 이야기하자!
③ 야, 너희들은 정치 이야기만 하면 싸우니?
④ 야, 정당도 정치인도 너희들보다 훌륭하잖아.

[정답: ①,②]

3. 다음 상황에서 대답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민호: 영철 씨,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거예요?
영철: _____

① 네, 당연히 해야죠.
② 물론이죠. 선거 출마*해야죠.
③ 투표 안 하면 처벌 받잖아요.
④ 네, 그런데 아직 누굴 찍을지 결정을 못했네요.

*출마: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는 것.

[정답: ①,④]

나무 아래에서

쉬어 가기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나누기

북한에서는 후보도 한 명뿐이고 투표도 사실상 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잘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탈북민에게는 선거철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남한 사람들의 모습이 처음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문화 나누기 1

남한에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어떤 일들이 주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뉴스나 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와 관련된 주제는 민감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사람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한의 문화 나누기 2

남한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대화를 할 때 병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대에 관련된 용어를 알면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투사: 주한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으로 한미합동 작전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이다. 카투사가 맞으나 흔히 카츄사라고도 함.

ROTC(아르 오 티 시): 학군사관후보생이라는 뜻. 대학교의 재학생 중 ROTC에 신청하여 합격한 자에게 소정의 군사 훈련을 실시한 후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 '알오티씨'라로도 함.

신검: '신체검사'의 준말.

입영통지서: 군인이 되어 병영에 들어갈 것을 알려 주는 문서. '군대 영장'이라고도 흔히 말함.

현역: 현역병. 군에 입대하여 실제로 복무를 하는 병역. 또는 그 군인.

공익: 현역병에 편입되지 않고 국가 기관에 소집되어 행정 업무를 보조하거나 산불 감시, 교통질서 계도와 같은 일을 하는 병역 의무 이행자.

미필: 일이나 검사 등을 아직 끝내지 못함. 군대를 마치지 못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제대: 현역 군인이 만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군대 복무가 해제됨.

육사: '육군사관학교'의 준말.

공사: '공군사관학교'의 준말.

해사: '해군사관학교'의 준말.

4. 사회
(3) '어, 여'와 '에'의 발음

며칠만 보고 돌려주세요.
(메칠만 보고 돌레주세요)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아래와 같이 뒤 음절에 '이'가 올 때 그 앞 음절의 '아'나 '어'를 '애'나 '에'로 바꿔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예요 〉 얼매예요　　색깔을 먹여서〉색깔을 멕여서.

서울말을 포함한 남한의 일부 방언에서도 '아, 어, 오, 우, 으' 뒤에 '이'가 따라 오면 아래처럼 '애, 에, 외, 위, 이'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들은 표준어가 아니므로 표기대로 발음해야 합니다.

아기〉애기　어미〉에미　먹여요〉멕여요　속여요〉쇡여요　죽여요〉쥑여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뒤 음절에 '이' 가 올 때 '여'를 '에'로 바꾸어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 음절에 '이'가 없어도 '여'를 '에'로 바꾸어 발음하는 예가 많습니다.

며칠〉메칠　경비〉겡비　결심〉겔심　견뎌요〉겐뎌요
경험〉겡험　변화〉벤화　돌려줘요〉돌레줘요

이 역시 표준어가 아니므로 표기대로 발음해야 합니다.

1. 다음을 잘 듣고 남한 표준어 발음과 다른 부분을 밑줄 치고 고쳐 말해 보세요.

(1) 이 배추는 한 포기에 얼마예요?
(2) 이 천에 검은 색깔을 먹여서 쓰세요.
(3) 이 가방 갖고 얼른 돌아가세요.

〈녹음〉 (1) 이 배추는 한 포기에 얼매예요?
(2) 이 천에 검은 색깔을 멕여서 쓰세요.
(3) 이 가방 갯고 얼른 돌아가세요.

2. 다음을 잘 듣고 남한 표준어 발음과 다른 부분을 밑줄 치고 고쳐 말해 보세요.

(1) 그 사람이 너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어.
(2)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
(3) 안내문을 써 붙여도 아무도 보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에요.

〈녹음〉 (1) 그 사람이 너를 눈에 불을 케고 찾아다니고 있어.
(2) 내가 겡험해 보니까 그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
(3) 안내문을 써 부체도 아무도 보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에요.

3.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신경 쓰면서 말해 보세요.

(1) 이 책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니 며칠만 보고 돌려주셔야 합니다.
(2) 일이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 버려서 속을 썩입니다.
(3)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던 일에 변화가 생겨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녹음〉 (1) 이 책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니 며칠만 보고 돌려주셔야 합니다.
(2) 일이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 버려서 속을 썩입니다.
(3)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던 일에 변화가 생겨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16. 쇼핑
(3) 문장 억양

부드럽게 들리는 문장 억양

남한의 표준어에서는 문장의 마지막 음절을 조금 올렸다가 내려서 발음하는 억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부드럽고 친절하게 들립니다.

\ 죄송해\요. (남한주민)

남한의 표준어에서 이 억양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끝음절을 단호하게 떨어뜨리는 북한이탈주민의 발음을 남한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고 느낍니다.

\ 죄송해요.(북한이탈주민)

\ 죄송합니다.(북한이탈주민)

1. 다음을 듣고 문장의 끝음절이 부드럽게 들리는 것에 ○ 하세요.

(1) ① 죄송합니다. ② 죄송합니다.
(2) ① 여기 물 좀 주세요. ② 여기 물 좀 주세요.
(3) 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②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4) ① 내일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② 내일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녹음〉 (1) ① 죄송합니다. ② 죄송합니다.
(2) ① 여기 물 좀 주세요. ② 여기 물 좀 주세요.
(3) 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②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4) ① 내일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② 내일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2. 다음 문장들을 부드럽게 들리도록 마지막 음절의 억양에 주의해서 말해 보세요.

(1) 그럼 등기로 보내 주세요.
(2) 그간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3) 음……. 대장 내시경은 다음에 할게요.
(4) 죄송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1) 그럼 등기로 보내 주세요.
(2) 그간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3) 음……. 대장 내시경은 다음에 할게요.
(4) 죄송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 화법 정리
(2) 간접적으로 말하기

들어가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일방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 말하기 역시 이미 여러 단원을 통해 조금씩 배운 바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간접 말하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익힘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한 실전 연습을 해 봅니다.

간접 말하기

*간접 말하기란?
대화를 할 때에 관련 있는 다른 표현으로 돌려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문 닫아.(직접 대화법) / 바람이 많이 들어오네요.(간접 대화법)

✓간접적으로 말하기는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서로의 대화뿐만 아니라 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아버지: 아들아,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지 방바닥이 영 쌀쌀하구나. 그저, 나이 먹으면 방바닥 따뜻한 것이 제일인데 말이지. 이거, 날이 추워서 영.
아들: 아버지, 그러면 이번에 내려갈 때 보일러 바꿔 드릴게요.
아버지: (속으로 만족해 하면서)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바꿔 준다면 고맙고.
➡ 이 대화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일러를 바꿔 달라는 내용을 방바닥이 차갑다는 이야기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보일러를 바꾸어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 준 것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더욱 친밀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고, 아들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헤아린 것을 기뻐하게 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김 과장: 이 대리. 이번에 프로젝트 계획하느라 정말로 수고했네.
이 대리: 아닙니다. 부장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김 과장: 그게, (잠시 뜸을 들인 후) 이 대리는 아직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군.
이 대리: 아, (잠시 쉬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이 대화에서 상사인 김 과장은 이 대리의 발표에 대한 부장님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 또한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은 이 대리의 단점을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 이 대리의 체면을 세워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간접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거절당하더라도 그 말을 쉽게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예) 김진철: 오늘 일 끝나고 아무 일 없으시죠?
이지영: 아니오. 오늘 모임이 있어서 바쁜데요.
김진철: 그러면 내일 일 끝나고는 어떠세요?
이지영: 퇴근하고 바로 영어 학원 가야해서 시간 없어요.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 이 대화에서 김진철은 이지영에게 퇴근 후에 같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시간이 있는지 물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절당했을 때 겉으로는 시간이 없다는 대답을 받은 것뿐이지 거절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이유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크게 상대방의 체면 존중과 자신의 체면 유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 요구, 거절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켜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말을 할 때에는 간접 대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적인 표현은 때로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표현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솔직함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생각하는 태도가 드러난 표현이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간접 표현을 나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와 장소,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법

간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령, 요구, 지시하는 말을 질문이나 진술하는 말의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불쾌해 할 수 있는 말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 연습

명령형의 직설적인 표현을 오른쪽과 같이 간접적인 표현으로 말해 보세요.

오늘 과제가 뭔지 알려 줘.	➡	오늘 과제가 뭔지 알려 줄 수 있니? = 오늘 과제가 뭔지 알려 주면 좋겠어.
가서 지현이를 데려와.	➡	가서 지현이를 데려와 줄 수 있겠니? = 가서 지현이를 데려와 주면 좋겠어.
이 일을 3일까지 마무리해요.	➡	이 일을 3일까지 마무리해 줄래요? = 이 일을 3일까지 마무리해 주면 좋겠어요.
물 좀 가져다주시오.	➡	물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 물 좀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해 할 수 있는 말을 오른쪽과 같이 간접적인 표현으로 말해 보세요.

할아버지, 살이 많이 찌셨네요.	➡	할아버지, 풍채가 더 당당해지셨네요.
너는 수업 시간에 계속 조는구나.	➡	어제 무슨 피곤한 일 있었니?
방이 이게 뭐야. 얼른 안 치워?	➡	우리 아들이 얼굴도 잘 생겼는데, 방까지 깨끗하면 정말 완벽해지겠다.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	여기 주인은 고급스런 물건만 갖다 놓으시나 봐요.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해요?	➡	맡은 일이 많아서, 이번 일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나 봐요.

상대방과 관계를 좋게 하는 말하기

1)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고 혜택을 많이 주는 말을 합니다.
2) 상대방에게 비난보다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3)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는 표현을 합니다.
4) 반대보다는 맞장구를 쳐 줍니다.
5) 상대방의 실수를 감싸줍니다.
6) 미안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남북한 표현 차이 사례

〈어미 차이〉

북~했디?	남~했지?
북하다 나니까	남하다보니까

〈어휘 차이〉

북입내 피지 말라.	남남의 흉내를 내지 말아라.
북쭉 내시라요.	남쭉 드세요.
북숙제를 언제까지 바쳐야 됩니까?	남숙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북숙제를 검열하겠다.	남숙제를 검사하겠다.
북마음을 눅잦히고 차분히 말해 보라.	남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해 봐요.
북주민등록증 착용하면 되지요?	남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되지요?
북배워주다.	남가르쳐주다.
북안겨와요.	남이해했어요.
북안 알립니다.	남이해가 안 됩니다.
북물감하셨네요.	남염색하셨네요.

〈부정어 위치〉

북가도 못봤다.	남가보지 못했다.
북좋아 안하다.	남좋아하지 않다. 안 좋아하다.
북듣도 못했다.	남들어보지도 못했다. 못 들어보았다.
북알아 못 들었다.	남알아듣지 못했다. 못 알아들었다.

4 탈북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실태

2012년 4월 현재 탈북 청소년은 총 2,20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은 1,992명이고 전일제 대안 교육 시설에 210명이다.

〈표 3〉 탈북 청소년 재학 현황 ('12. 4월 기준)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602명	602명	162명	189명	212명	225명	210명 (9.5%)	2,202명 (100%)
	1,204명		351명		437명			
	1,992명(90.5%)							

*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

이들 대부분은 하나원의 하나둘학교, 삼죽초등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초기 적응 교육을 받고 하늘꿈학교, 한꿈학교, 여명학교, 셋넷학교 등의 전일제 대안 학교와 성인 야학, 그룹홈, 방과 후 공부방 등의 대안 학교에서 보충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탈북 과정에서 나타난 장기간의 학습 시간 부족과 공백, 그리고 너무 다른 북한과 남한 내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부적응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탈북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 산하 하나원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정규학교의 맞춤형 교육사업 지원', '민간교육시설 재정 지원', '통일부와 연계한 디딤돌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초기 적응교육 지원'등의 지원 체계를 세우고 있다. 특히 2009년 9월 전문적인 지원 기구로 '탈북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체계를 갖추는 한편, 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 상담, 맞춤형 교육 운영 및 민간단체 지원, 대안 학교 설립 및 관련 규정 완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학교 공부이다. 하나원의 정규 학교 및 공립 학교, 대안 학교들이 탈북 청소년들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학습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적응 기간 및 일반 학교 과정에서

교과 수업에 대한 기초 학력 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과 부적응 문제는 탈북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많은 수의 탈북 학생들이 밝힌 학교 교과 수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배우는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남한과 북한의 이질적인 삶, 문화, 학문적 배경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교과 내용 차이이며, 이로 인한 학습 부진과 부적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삶, 문화, 교과와 관련된 배경지식의 이질화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북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탈북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초, 도구 교과인 국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어과의 보충 학습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며,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정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의 국어 교육 내용과 남한의 국어 교육 내용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특히, 말하기 교육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거쳐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자신의 언어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는 내용보다는 말할 내용을 교과서에 직접 제시하고 그 내용의 한 부분을 변형하여 앵무새처럼 외게 하거나 이데올로기 관련 내용을 주입하기 위해, 이른바 혁명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암송하게 하는 식의 '이야기하기' 형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언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여 사상 교양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례이다(박영목·이인제 1998: 8).

읽기 교육의 내용은 낭독하기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읽기 제재 관련 독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북한에서의 읽기 제재는 주로 김일성과 그 일가의 우상화와 관련된 제재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이른바 해석적, 비판적 수준의 읽기 능력을 계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또 이것이 말하기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 듯하면서도 특정 내용을 암기하게 하는 방편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읽기 교육의 내용으로 읽기 자료에 대한 비판적, 해석적 수준의 읽기 활동이나 그를 위한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박영목, 이인제 1998: 8).

또한 쓰기 교육에서도 문장 수준의 글쓰기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화 구성하기, 즉 글 수준의 글쓰기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글쓰기의 기초가 문장 수련에 있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 기계적 반복 훈련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글짓기 일변도의 내용 선정은 남한의 쓰기 교육관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중시하기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

한 우상화의 한 방편으로, 그것도 사상 교양과 관련되는 특정 내용을 주입하기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삼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박영목, 이인제 1998: 8).

북한의 사상 교육이 어느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지는 실제로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4] 읽기, 말하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 단원에서조차 내용은 모두 직접적으로 주체사상과 연계되어 있다(정주리, 1997: 7).

이상과 같이 남북의 국어과 교육의 차이는 북한이탈 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탈북 청소년 중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5] 중도 탈락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초등학교 2.5%, 중학교 4.4%, 고교 10.1%로 전체 탈락률이 4.7%에 이른다. 최고치였던 2007년 10.8%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은 다행스럽다. 이에 비해 남한 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0.8%, 고교 1.8%이며 전체로는 0.8%에 불과하다. 그 차이가 너무 크다(한만길, 2012).

탈북 청소년의 학력 결손 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학력 결손은 남한에서의 정규 학교 진학을 어렵게 하여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탈북 청소년 가운데 약 49.3%만이 정규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

4)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국립국어원(1992:144)를 참고할 수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비해 최근 소학교 국어 교과서의 사상 교육 모습은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상 교육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9년 개정된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 2학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띄어쓰기는 북한 교과서를 따름).

1과–한초가 한시간 되어줄수 없을가(동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시.
2과–잊을수 없는 그날(생활문) : 집에서 반일지를 쓰고있을 때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집에 찾아옴.
3과–귀중한 45분(생활문) : 수학시간 일화. 선생님의 설명에 귀담아들어야 함.
4과–위대한 원수님을 우러러(생활문) : 김정일원수님 고맙습니다.
5과–우리보다 고운 꽃 없어요(동시) : 경애하는 원수님 꽃피워주신 우리보다 고운 꽃 더는 없지요.
6과–두 친구(동화): 곰을 피해 나무에 올라간 친구와 죽은체 하고있었던 친구 이야기.
7과–백두산의 어린 장수(전기문) : 김정일원수님의 어린 시절.
8과–분이와 인민군대아저씨(대화) : 인민군대아저씨를 만난 분이와 그들의 대화.
9과–잠 못 드는 내 마음(동시) : 대원수님생각에 김정일장군님 저 잘 모셔갈래요.
10과–커가는 가방(생활문) : 문건을 많이 넣는 가방과 원수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일군 이야기.
11과–오소리와 너구리(동화) : 겨울나이굴을 매일 파는 오소리와 일을 미룬 너구리 이야기.
12과–꽃니의 인사(대화) : 인사말
13과–들국화(동시) : 김정숙어머니 오래오래 받들어 모시고 싶어 들국화는 피여난대요.
14과–그림속의 룡마(전기문) :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마를 타고 일제 토벌대를 무찌름.
15과–이름난 화가 솔거(전기문) : 황룡사 소나무를 그린 솔거 이야기.
16과–금돌이가 전한 말(생활문) : 철호네 반동무들이 꽃밭을 가꾸기 위해 동무들에게 력락함. (이하 생략)

5)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 학생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68%, 중학생의 66%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학부모 역시 62%가 자신의 자녀가 탈북 학생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탈북 학생들이 주변 학생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한만길, 2012).

학력 결손이 심하다. 북한이탈주민 중학생의 경우 수학 과목에서 최소 기초 능력 점수인 60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율이 80%를 넘는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먼저 북한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들 수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학교 선생님들조차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 둘째, 중국과 제3국에서의 장기간의 난민 생활로 학업 공백 기간이 긴 경우가 많다. 셋째, 아래와 같은 남북한의 교육 환경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이향규, 2006).

- 남북한 교육 제도의 차이(북한에서는 영어를 중시하지 않음.)
- 교수 용어의 차이(남한-북한: 곡선자-주름자, 대각-맞은각, 뺄셈-덜기 등)
- 수업 방식의 차이(듣고, 말하고, 발표하는 수업에 익숙지 않음.)
- 평가 방식의 차이(북한에서는 객관식 시험이 없음.)
- 틀린 것을 찾는 문제 이해하지 못함.
  (‘정답도 찾기 어려운데 왜 틀린 것을 찾아야 하나’라고 반문함.
- 교육 내용과 평가 항목에 있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몰이해(상인 문화, 상업주의 등)

13세에서 24세까지 11명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실태를 질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북한과는 확연히 다르거나 혹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나 사용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 활동 중 교사가 제시하는 단어가 생소하고,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도 두려운 마음에 질문하지 못하고 결국 과제를 회피하거나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가 2012년 8월말 송파구 거○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결과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덜 하나 교사의 설명이 어렵고, 김홍도, 링컨 등과 같이 북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나 문화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려워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추론을 하여 연상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교과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집단 활동이나 모둠별 활동을 강조하는 교과의 경우에 남한어에 서툰 탈북 청소년은 집단원의 진행 대화를 빨리 이해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전체 모둠활동을 지연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집단원들의 불평과 따돌림이 발생하게 되어 탈북 청소년은 심리적 상처[6]를 받게 된다. 탈북 청소년들이 매우 어

려워하는 교과목으로는 수학과 영어를 들 수 있고, 사회와 국어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수연, 2008).

탈북 청소년의 학력 결손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남북한 교과서 용어의 이질성에 대해 국립국어원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의 교과서를 바꿔 읽을 때 학생들의 용어 이해도는 50% 이하로 예상된다. 교과서에는 학술 용어만이 아닌 일반 용어도 등장하는데, 이 역시 읽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사주(使嗾)하다(남)/사촉하다(북), 왜곡(歪曲)(남)/외곡(북)' 등의 남북한 간에 다른 용어만 보더라도 남한 학교 교육 과정에서 탈북 학생이 남한의 학생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 용어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전수태 외, 2008; 김건희 외 2008).

남북한 교과서에 드러난 학술 용어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국사/조선력사 교과의 경우는 단순히 학술 용어의 차이를 뛰어넘어 역사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사회 교과를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 정치, 경제 제도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명목상 사회 과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과학 교과의 경우도 미국과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학문적 영향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학문적 영향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적 영향을 어떻게 받으면서 수용해 왔는가에 대한 역사가 교과서 학술 용어에 반영된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의 언어 적응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

> "처음에 많이 심각했죠.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애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어요."(탈북 청소년A 인터뷰, 장문강, 2008:209)
> "처음에 왔을 땐 조금 이상했는데 금방 익숙해졌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탈북 청소년B 인터뷰, 장문강, 2008:209)
> "처음에 저는 알아듣는데요,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단어도 다르고…,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어요."(탈북 청소년 인터뷰C, 장문강, 2008:210)

---

6) 북한이탈주민들은 2음절 어휘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3음절 어휘에서는 첫 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두어 발음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2음절에서는 첫 번째 음절에, 3음절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두어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언어적 습관은 탈북 학생이 학급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을 때도 드러난다. 거○초등학교 5학년 탈북 학생인 김○○학생은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서 아예 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입을 다물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국 초기에 주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데, 남한 아이들의 말을 새터민 청소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특유의 억양과 상이한 단어 사용으로 인하여 남한의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교사들은 주로 판서를 많이 해주는 데 비해서 남한의 교사들은 그냥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알아서 필기하는 경우가 많은 문화도 언어의 차이와 함께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 차이와 함께 남한 학생들의 언어 태도 문제가 탈북 청소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한다. 중학교를 중퇴한 한 학생의 경험에 의하면 그 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을 경우 “너 이거 할 줄 아니?” “그렇지. 네가 당연히 못하지!” “너 이거 먹어봤어?” 등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는 탈북 청소년에게 큰 상처를 준다.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탈북 청소년에게 상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문강(2008)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차원에서의 사회 교육을 전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교육이라는 체제를 통해 융합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장문강, 2008:198).

대학에서의 적응도 쉽지 않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대학에 적을 둔 인원은 약 700여 명이며 학업 보충, 생활비 마련 등을 이유로 한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은 500여 명에 이른다고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추산했다(2009년 7월 6일자 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국민 특별 전형 대상이지만 재외동포 자녀가 치러야 하는 한국어 시험은 보지 않고 영어나 수학 등 일부 과목의 시험을 치러 대입 자격을 얻는다. 국립대 등록금은 면제이며 사립대의 경우는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통일부).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입학을 하게 되어도 대학 교육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연구자가 만난 한 북한이탈주민은 간호학과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간호학과 관련된 교육 내용에서 영어로 된 전문어가 너무 많아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4.1. 탈북 학생의 유형과 지도 방안

탈북학생은 국제결혼 한 가정의 학생이나 재혼에 의한 중도입국 학생과는 매우 다른 교육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탈북학생도 유형이 다양하다. (1) 북한에서 신분이 좋고, 북한의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며, 중국 또는 제3국가 등에서 장기간 거주 하지 않고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 (2) 북한에서 소학교나 중학교 과정을 공부

하고, 중국, 제3국가 등을 거쳐 입국한 학생의 경우 (3)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예를 들면 소학교 1년 정도를 마쳐서 글자는 읽고 쓸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중국, 제3국가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학생의 경우 (4)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한글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제3국가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경우 (5) 탈북 여성이 한국에 와서 낳은 아이로 한국 출생 학생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위 사례 이외에도 더 세부적인 사정이 나타나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 중심으로 지도 방법과 주의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1) 학생의 경우는 북한에서 수재교육을 받은 학생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상적인 면에서 북한 체제와 달라 탈북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남한 사회에서 특혜가 없기 때문에 북한 생활을 더 동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부 탈북민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례이다. 이 경우 한국에 적응하다가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또 다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기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3), (4)의 경우에 비해 남한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그러나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응을 잘하는 편이라는 것이지 이 학생의 경우도 문화적 배경지식이 부족하고 학습 면에서 기초 배경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예를 들면, 남한 아이들은 다 읽어보았을 피노키오, 인어공주, 신데렐라 이야기 등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영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학생의 경우는 남한의 교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될 만한 책을 많이 권장하고 읽어보게 한다든지, 배경지식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래어, 한자어 중심으로 낯선 어휘에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생의 경우는 북한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긴 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이나 제3국가에서 장기 체류 하면서 학업의 공백이 있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먹어버린 학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면, 남한에 입국했을 때 나이로는 6학년 나이이지만 학업이나 지적 수준으로는 6학년으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래서 6학년 나이이지만 3학년 쯤 반이 배정되고 3학년 학생과 배우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래 집단 학생들과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어린 주변의 학생을 친구로 사귀기 어려워한다. 실제로 서울J초등학교, 광주S초등학교에서는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과 공부하게 된 탈북 학생이 주변 학생들과 대화를 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발음과 억양 등이 노출될까봐 말을 잘하지 않기도 한다. 교사와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하지만 주변의 학생들과는 일절 말을 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학생의 경우는 학업 상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덜 사용하는 학습 활동 위주로 지도한다든지, 예를 들면, 간단한 타악기 등을 연주하게 하여 자신감을 키워준다든지, 미술 등의 활동을 통해 학업에 차츰 익숙하게 한다.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활동을 하다보면, 주변 학생들과 말없이 교류하게 되고, 차츰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

(3) 학생의 경우는 북한에서 학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기초 학습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 경우는 교육개발원에 보고서로 제출된 권순희 외(2013)의 〈탈북학생용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재 개발〉, 〈탈북학생용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재 개발〉 책을 활용하면 좋다. 이 교재는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탈북 학생을 위해 개발된 교재이다.

(4) 학생의 경우는 중도입국 학생처럼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한글을 모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립국어원에 보고서로 제출된 원진숙 외(2012)의 표준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을 한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NK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한국어교육 전공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 학생의 경우는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과 유사한 경우이므로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탈북학생들은 탈북과정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트라우마가 나타나고 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아픈 과거를 캐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거나 살기 위해 중국 남자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서 탈북 학생 중에는 출생 면에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남한에서 탈북 엄마와 살고 있지만 엄마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도 있다. 또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의 경우는 생계 문제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교사가 학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P초등학교에서는 몸을 잘 씻지 않고 머리를 잘 감지 않고 학교에 오는 탈북 여학생(2학년)이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담임 여교사가 그 학생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샴푸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몸 씻는 법을 지도하기도 했다. 학부모가 지도해야 할 몫까지 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사례이다. 부

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 교사가 대신 사랑을 주고 관심으로 보살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탈북 학생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자신이 탈북민임을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다.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밝혔을 때 남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임을 감추고 생활하는 것이 남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 남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아 발생하게 된 문제이다. 탈북민임을 감출 것인지 밝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탈북민임을 공개하여 적응하기 어려운 사태를 만들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학생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탈북학생에게는 탈북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출신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민의 방법으로 미래에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는 선택할 수 있지만 출신국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신국을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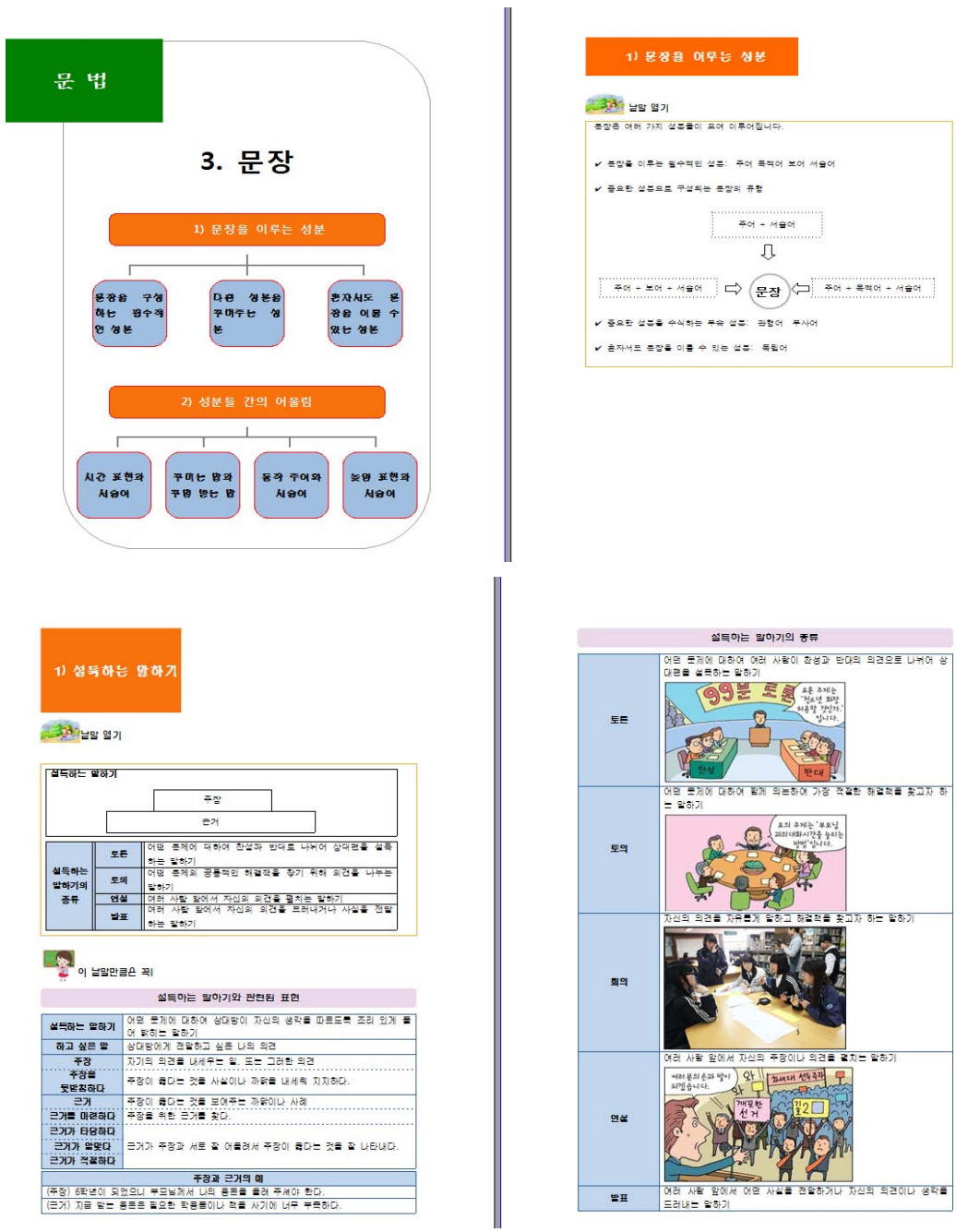
4.2. 탈북 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

탈북학생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기관의 보고서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다. 또는 각 기관에 연락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연구 과제명	연구 내용	저자 및 개발 지원 기관
새터민 언어적응 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디(CD) 및 국립국어원 온라인 강의 제공	이호영 외(2009), 국립국어원
새로운 언어생활(개정판)	새터민의 초기 정착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 교재로 남북한 언어비교, 표준발음, 외래어, 기초영어 등을 다룸	한정미 외(2011), 하나원
새터민 어휘 학습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새터민 대상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에 필요한 기본 어휘 및 남한 문화에 이해를 돕는 어휘 학습 교재 제작을 위한 기초 연구	신명선 외(2010), 국립국어원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개발	새터민 대상 일상생활 한국어 어휘 교재로 공공생활, 문화생활, 개인생활 등 3권으로 구성	권순희 외(2011), 국립국어원
새터민 구어 학습용 교육 자료 개발	새터민의 표준 발음, 억양 및 화행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된 서책형 교재와 시디(CD)	권순희 외(2012),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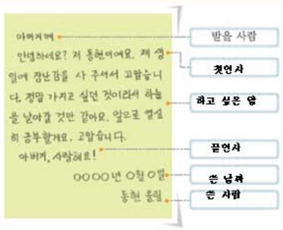
연구 과제명	연구 내용	저자 및 개발 지원 기관
북한이탈주민 남한 직장생활 용어집	새터민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어휘집. 면접, 취직, 직장 대화, 업무, 통신, 모임 등 직장생활 일반에 대한 어휘와 의류, 음식, 건축, 제조업, 자동차, 피부 미용 및 요양 등 각 전문 분야의 전문 어휘를 다룬 교재	권순희 외(2012), 중소기업중앙회
읽기로 시작하는 논술 다가가기(초등1, 2단계, 중등1, 2단계)	탈북학생의 학교 공부 적응을 돕기 위한 논술 연습 교재	최경자 외(2010), 한국교육개발원
탈북학생 통합교과서 우리는 하나 -저학년-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과 학습 적응을 위한 기초 내용으로 구성된 저학년용 교재, 남북한 언어 차이, 한국 문화, 한국의 문화재, 상징물 등 소개	김동철 외 2인(2011), 삼죽초등학교
탈북학생 통합교과서 우리는 하나 -고학년-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과 학습 적응을 돕기 위한 고학년용 교재. 저학년 교재에 비해 심화된 내용을 다룸.	이신숙 외(2011), 삼죽초등학교
하나둘학교 국어	남북한 언어 차이로 국어 교육을 받기 어려워하는 탈북 학생을 위한 교재.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어휘의 뜻을 아울러 밝힌 교재	김효현 외(2011),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과 어휘학습 교재 개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하는 탈북학생을 돕기 위한 학습 어휘를 풀이해 놓은 교재. 국어과 학습 어휘를 다룸.	김건희 외(2012), 교육개발원.
탈북학생 지도용 국어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초등	탈북학생의 초등 국어교육 및 통일 후 초등 국어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어교육의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의 계획을 밝힌 문서. 교육과정은 교재 개발의 지침서가 되며 국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함.	권순희 외(2012), 교육개발원.
탈북학생 지도용 국어과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중등	탈북학생의 중등 국어교육 및 통일 후 중등 국어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어교육의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의 계획을 밝힌 문서. 교육과정은 교재 개발의 지침서가 되며 국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함.	권순희 외(2012), 교육개발원.
탈북학생용 중학교 1학년 국어 교재 개발	중학교 1학년 탈북학생의 보충학습 교재	원진숙 외(2013), 교육개발원
탈북학생용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재 개발	초등학교 1학년 탈북학생의 보충학습 교재	권순희 외(2013), 교육개발원
탈북학생용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재 개발	초등학교 2학년 탈북학생의 보충학습 교재	권순희 외(2013), 교육개발원

〈그림 3〉 탈북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과 어휘학습 교재 개발



낱말 펼치기

<편지의 예>



<독서 감상문의 예>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를 읽고

이 책은 제제라는 5살 꼬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다.

어린 제제이지만 환경과 상관없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제제만의 나무와 이야기 한다. 너무 가난해서 남들이 경험하는 성탄절의 선물도 받지 못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제제. 5살의 나이라면 떼를 투정을 부릴 만도 한데 책 속의 제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닌, 나름대로의 자기 세상을 확고하게 가진 아이다. 제제만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제를 가리켜 철부지, 말썽쟁이, 심지어는 악마라고까지 말하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세상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린 제제는 자신이 붙여준 밍기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라임 오렌지 나무와 친구가 되어 대화를 나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만나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포르투갈 사람인 동네 아저씨 마누엘 발라다리스를 만나 우정을 키우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제제는 그를 자신의 애칭인 뽀르뚜가라 부르게 된다. 나는 제제의 많은 친구들과의 나눔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진정한 우정이란 나이를 초월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함께 하는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보아야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된다. 때론 유치할 수도 있는 아이만의 생각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위로하는 역할을 뽀르뚜까 아저씨는 해 주었던 것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이란 꽃과 같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냇가에 둥둥 떠다니는 낙엽과 같이 평화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제제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다.

낱말 익히기

※ 다음 보기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1~2).

<보기>

연설문, 신문 사설, 신문기사, 제품 설명서, 보고서, 기행문, 편지글, 축하 글, 광고, 독서 감상문, 편지, 감사 글

1. 위의 보기 중 설명문에 해당하는 글을 모두 골라 쓰시오.
( )

2. 위의 보기 중 감상문에 해당하는 글을 모두 골라 쓰시오.
( )

3. 다음 보기에서 논설문과 같은 말이 아닌 것은?
① 주장하는 글 ② 설득하는 글
③ 정보를 전달하는 글 ④ 의견을 나타내는 글

4. 아래의 빈칸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시오.

<보기>

주장, 이유, 까닭, 의견, 사례, 근거

논설문	
(① . ②)	새터민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낱말을 알려주는 책이 필요하다.
⇧	
적절한 (③), 타당한(③) (실제 ④나 ⑤를 들어)	내가 만나본 새터민 00양은 국어 시간에 시와 관련된 문들, 비유와 같은 낱말을 알아듣지 못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④) 어린 새터민들이 학교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 학습에 관련된 낱말 공부가 필요하다.(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7.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보기 >

글이나 사진, 그림 등을 인쇄하여 책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교과서에서는 ( ) 이라는 말 대신에 책 만들기와 같은 말로 풀어서 쓰기도 한다. 책이나 그림 등을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는 회사를 '( )사'라고 한다.

( )

8. 다음은 저작권과 관련된 표현이다. 바르게 연결하시오.

① 저작권 침해 ㉠ 사물이나 소문, 글 등이 생기거나 나온 곳을 뜻함.
② 출처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를 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
③ 서지 사항 ㉢ 어떤 책이나 글의 제목, 글쓴이, 출판사, 그린이 등과 같이 책이나 글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뜻함.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책의 제목이나 글쓴이 등을 써 놓은 책의 맨 앞뒤의 겉장을 표지라고 한다.
② 다른 사람의 말, 글, 그림 등을 빌려서 자신의 글에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③ 사진, 그림, 도표, 동영상 등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매체라고 한다.
④ 창작물이란 어떤 사람이 새로 만들어 낸 물건이나 작품을 뜻한다.

<정답>
1. 계획하기, 내용 떠올리기, 글쓰기 2. 글감 3. ㉠전지, ㉡아드님, ㉢맘, ㉣이러한
4. ①-㉡, ②-㉠, ③-㉢ 5. ㉠
6. 옛날 어느 마을에 주먹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주먹이는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갔습니다. 한낮이 되었을 때 주먹이는 강으로 떨어졌고, 잉어에게 잡혔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잉어를 낚아 올려 잉어 배 속에서 주먹이를 꺼냈습니다.
7. 출판 8. ①-㉡, ②-㉠, ③-㉢ 9. ①, ③, ④

쉬어가기

남한 초등학교의 출판 활동

남한에서는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책 만들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한 학년이 끝날 때에는 **문집 만들기**라고 하여 반 학생들의 글이나 그림 등을 모아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문집을 만들 때에는 보통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집을 합니다.

학급 문집 만드는 법			
일정과 역할 정하기	원고 모집, 기획, 편집, 발간 날짜 등을 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눈다.		
원고 모집과 원고 분류하기		평상시에 제작된 일그림과 삽화를 모으고 글과 그림 등의 원고를 수집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구분한다. 글과 그림은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둔다.	
중간 편집하기		어떤 글과 그림이 먼저 들어갈지 차례를 정하여 편집하고, 틀린 글자와 잘못 들어간 사진이 없는지 돌려가며 읽어본다.	
최종 편집하기		문집 제목, 표지, 펴낸이, 펴낸 날짜, 차례, 글쓴, 이메일 주소, 편집 후기 등 빠진 사항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발간하기			최종적으로 검토한 원고를 인쇄하고 친구들과 함께 읽어본다.

〈그림 4〉 탈북학생용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재 개발

2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자 읽기

낱말 열기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물건

매트리스 [북]마다라스, 침대깔개	에어컨	오디오 [북]록음기
컴퓨터 [북]콤퓨터	텔레비전 [북]텔레비죤	냉장고 [북]랭동기
소파	테이블 [북]탁자, 탁상	전자레인지
싱크대★ [북]가시대	비디오	전기밥솥 [북]전기밥가마

★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가구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의 이름을 바르게 읽고 써 봅시다.

※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색칠해 봅시다.

(1) 침대 칩대
(2) 식탁 심탁
(3) 냉장고 냉잠고
(4) 소파 솝파
(5) 에어컴 에어컨
(6) 휴대전화 휴데전화
(7) 컨퓨터 컴퓨터

학교 가는 길에서 볼 수 있는 곳을 알아봅시다.

그림	이름	의미
	문구점	학용품이나 학교 준비물, 선물 등을 파는 가게 문방구라고도 함.
	경찰서	[북]보안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들이 업무를 보는 곳
	분식집	떡볶이, 라면, 어묵 등 쌀가루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파는 가게
	세탁소	[북]빨래집 돈을 받고 빨래나 다림질을 해 주는 곳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학원	예체능의 실력이나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다니는 교육기관

그림	이름	의미
	노래방	음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
	은행	저금하거나 저금했던 돈을 찾을 수 있는 곳
	마트	[북]상점 먹을거리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을 파는 곳
	피시방(PC방)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갖추어 놓은 곳
	헬스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갖추어 놓은 곳
	아이스크림 가게	[북]얼음과자 상점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
	베이커리	[북]빵집 빵을 파는 가게

높고 세게 소리 내는 글자를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1. 두 글자일 때는 첫 글자를 높게 발음하고 둘째 글자를 낮게 발음합니다.

구	안	반
름	개	장★

거	내	학
미	일	원★

★ 반장: 교실을 대표하여 봉사하는 사람. '도우미, 도움꾼'이라고도 함.
★ 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처럼 예체능을 익히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곳

2. 낱말이 세 개나 네 개의 글자로 되어 있을 때, 첫 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둘째 글자를 가장 높게 발음합니다.

구	양	깨
개 리	고 이	도 비★

주	드	등
아 머 니★	두 러 기★	고 학 교★

★ 도깨비 :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둥장인물로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귀신
★ 아주머니 : 어지 어른을 정답게 높여 부르는 말
★ 두드러기 : 피부에 생기는 병
★ 고등학교 : 중학교를 마친 사람이 가는 학교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을 알아봅시다.

※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는 오른쪽과 같이 공손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왼쪽		오른쪽
문 좀 열어라.	➡	문 좀 열어 주겠니?
나 이것 좀 도와줘.	➡	나 이것 좀 도와줄래?
책상 밑에 떨어진 연필 좀 주워줘.	➡	미안한데, 책상 밑에 떨어진 연필 좀 주워줄 수 있니? 책상 밑에 떨어진 연필 좀 주워주면 고맙겠어.
빌려간 책 돌려줘.	➡	네가 빌려간 책을 급하게 볼 일이 생겼어. 빌려간 책을 돌려줄 수 있니?

더 나아가기

※ 글자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글자를 쓸 때와 읽을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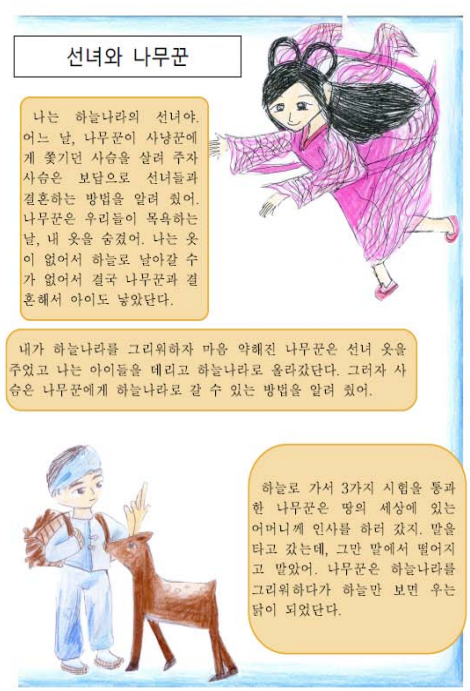
단어	표준 발음
솜이불	[솜니불]
늦여름	[는녀름]
색연필	[생년필]
앞일	[암닐]
잠실역	[잠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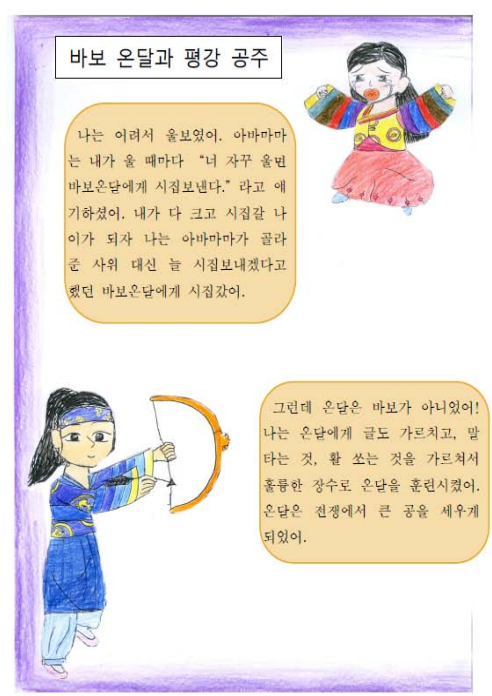
단어	남한 표준 발음	북한이탈주민의 발음
만약에	[마냐게]	[만냐게]
권유	[궈뉴]	[권뉴]
활용	[화용]	[활용]
일요일	[이료일]	[일료일]

단어	남한 표준 발음	북한이탈주민의 발음
많이	[마니]	[마이]
안, 아니	[안], [아니]	[안], [아이]
못 알아듣고	[몯 아라듣꼬] [모다라드꼬]	[모 아라드꼬]
못 입고	[몬닙꼬][모딥고]	[모 입꼬]
불을 켜고	[부를 켜고]	[부르 켜고]
들어간다	[드러간다]	[드 간다]

효녀 심청
난 태어났을 때부터 눈 먼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 먹어야만 했지.
어느 날, 뱃사람들에게서 공양미★3백 석으로 아버지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 아버지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제물★이 되어 바다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 너무 무서웠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단다.
바다에 빠지자 용왕★이 나의 효심에 감동하여 나를 후하게 대접하고 연꽃에 띄워 보내 왕비로 만들어 줬어.
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잔치를 열어 결국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지. 그때 아버지는 나를 보려고 눈을 뜨게 되셨단다. 번쩍!
★ 공양미: 부처님께 바치는 쌀
★ 제물: 신이나 그 밖의 섬기는 물건을 바치는 것
★ 효심: 효성스러운 마음
★ 용왕: 바다에 사는 용 가운데의 임금
★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견우와 직녀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야. 어느 날 인간 세상에 갔다가 견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 우리 둘은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지. 그런데 내가 옷감 짜는 일은 게을리 하고 견우와 놀러만 다니자 아버지는 화가 나셨어.
그래서 우리 둘을 떨어뜨려 놓으셨는데 내가 울기만 하니까 인간 세상에 비가 와 큰 홍수가 났어. 당황한 아버지는 7월 7일 딱 하루만 우리 둘을 만나게 해 주셨어.
그날, 까치와 까마귀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내가 만나게 해 주었단다. 매년 7월 7일엔 우리 둘의 기쁨의 눈물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단다.


선녀와 나무꾼
나는 하늘나라의 선녀야. 어느 날, 나무꾼이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살려 주자 사슴은 보답으로 선녀들과 결혼하는 방법을 알려 줬어. 나무꾼은 우리들이 목욕하는 날, 내 옷을 숨겼어. 나는 옷이 없어서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 나무꾼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단다.
내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자 마음 약해진 나무꾼은 선녀 옷을 주었고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단다. 그러자 사슴은 나무꾼에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줬어.
하늘로 가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한 나무꾼은 땅의 세상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러 갔지. 말을 타고 갔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 나무꾼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다가 하늘만 보면 우는 닭이 되었단다.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나는 이려서 울보였어. 아바마마는 내가 울 때마다 "너 자꾸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보낸다." 라고 얘기하셨어. 내가 다 크고 시집갈 나이가 되자 나는 아바마마가 골라 준 사위 대신 늘 시집보내겠다고 했던 바보온달에게 시집갔어.
그런데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어! 나는 온달에게 글도 가르치고, 말 타는 것, 활 쏘는 것을 가르쳐서 훌륭한 장수로 온달을 훈련시켰어. 온달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어.

〈그림 5〉 탈북학생용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재 개발

단어의 첫소리와 사잇소리에 주의하며 낱말을 읽고 받아써 봅시다.

1. 낱말의 첫소리에 주의하며 읽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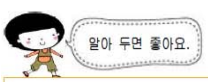
여행

노인

예절
여자

용궁
역사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
여행	려행
노인	로인
예절	례절
여자	녀자
용궁	룡궁
역사	력사



• 남한에서는 'ㄹ'이 첫소리로 오지 않아요.
단, 외래어인 '라디오', 새로 만들어진 '라면'은 예외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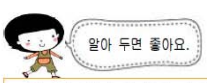
2. 낱말의 사잇소리에 주의하며 읽어 봅시다.

햇빛
고갯길

맷돌
바닷물

나뭇가지
촛불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
햇빛	해빛
고갯길	고개길
맷돌	매돌
바닷물	바다물
나뭇가지	나무가지
촛불	초불



• 낱말 2개 이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낱말 중에 '우리말+우리말', '우리말+한자어' 또는 '한자어+우리말'로 이루어진 말은 'ㅅ(사이시옷)'을 넣어 씁니다.

3. 다음 그림을 보고 사물의 이름을 □안에 정확하게 쓰고 읽어 봅시다.

□□터*

□□*

□□목*

□빛*

□□□*

★ 표시 순서대로 북한말: 레모타프르, 레뽀스, 레전능림, 레해빛, 레도마도

더 나아가기

1. 뜻이 반대인 낱말을 사용하여 보기 처럼 바꾸어 써 봅시다.

보기
개미가 작은 먹이를 물고 갑니다.
↔ 개미가 (큰) 먹이를 물고 갑니다.

우리 집 인터넷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 하지만 내 컴퓨터 타자 속도는 (　　)

제과점*에는 맛있는 빵이 많습니다.
↔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은 (　　)

2.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아서 보기 처럼 ○를 해 봅시다.

보기
고마운 동무야, 보고 싶다.
⇒ 고마운 (친구, 원수)야, 보고 싶다.

(1) 학교에 함께 가다. ⇒ 학교에 (같이, 따로) 가다.
(2)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소망을, 용서를) 빌었다.

★제과점: 빵집. '빵이어리'라고도 함.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존경*을 받는 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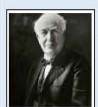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위인들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만들어 우리 친구들이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개토대왕)

고구려 영토를 크게 넓힌 광개토대왕

거북선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에디슨)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만든 발명가 에디슨

인도의 독립을 위해 비폭력으로 대항한 간디

(간디)

★ 존경 :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동 등을 높이 사는 것

2. 윗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써 봅시다.
(1) 글의 제목은 (　　)입니다.
(2) 글의 중심 내용은 위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를 크게 넓힌 (　)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 에디슨은 미국의 유명한 (　　)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발명하였습니다.
(4) 인도에는 독립을 위해 애쓴 (　　)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3. 윗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제목을 살펴본다.

어떤 내용에 대한 글인지 알아본다.

위인들을 설명한 글을 읽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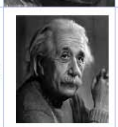
생각하는 사람

알아 두면 좋아요.

• '생각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만든 청동 조각이에요.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 위에 만들어진 이 조각상은 꿀똘히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놓아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작품이랍니다.

쉬어 가기

※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외국 위인을 알아봅시다.

이름	관련 사진	소개
파브르		'파브르 곤충기'를 쓴 프랑스의 생물학자
퀴리 부인		라듐을 발견한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과학자
뉴턴		만유인력의 원리를 주장한 영국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주장한 독일의 과학자

이름	관련 사진	소개
갈릴레이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이탈리아 과학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공자		중국의 대표적인 유교 사상가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1992), 북한의 언어 정책.

권순희 외(2012),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1,2,3》, 도서출판 하우.

김건희 외(2008),《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김석향(2006), 새터민의 언어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 《새국어교육》 16(1), 국립국어원.

김은경·허석재(2010), 특집: 한국의 다문화의식: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 – 문화적응의 상호주의를 향하여(1),《민족연구》 41, 한국민족연구원.

김화순·김준수(2004), 북한 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 3년간의 직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 대한공업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공업교육학회.

문금현(2006),《새터민 언어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문금현(2007),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문금현·이홍식·김경령(2005),《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박성열(2007),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박영목, 이인제(1998),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15호, 이중언어학회.

박종갑(2007), 남북한 주민의 의사소통 장애 요인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하여,《한민족어문학》 51.

신명선 외(2010),《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신명선 외(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박이정.

양수경(2010),《새터민 언어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교사 연수 7월 자료집》, 국립국어원.

양수경·권순희(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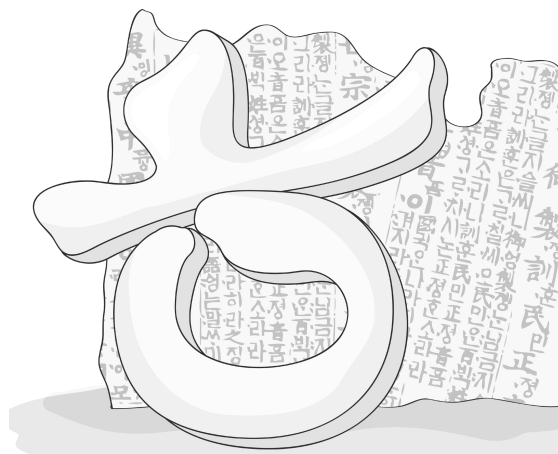
이기춘 외(2001),《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대출판부.

이수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청소년학연구》 15(1), 한국청소년학회.

이원경(2010), 독일통일기의 독어교육,《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이향규(2006), 논단: 새터민 청소년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교육비평21》, 교육비평사.
장문강(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19,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전수태 외(2000),《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국립국어원.
전수태 외(2008),《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1》, 국립국어원.
정경일(2001),《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정종남(2000),《북한 주민이 알아야 할 남한 어휘 3300》, 종로서적.
정주리(1997), 북한의 국어와 국어 교육, 《한국어학》6권, 한국어학회
조선경(2006),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한국어 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5-279쪽.
조용관(2004),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조정아·정진경(2006),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14(1), 한국심리학회.
최경은(2003), 통일 이후 동서독 독일어의 통합 과정,《독일언어문학》21.
한만길(2012), 국내 탈북 학생부터 제대로 보듬어야, 동아일보, 2012년 3월 10일자.
허용(2009),《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국립국어원.
허준영(2011), 서독의 동독 이탈주민 통합 정책, *FES information Series* 2011-06, Friedrich Ebert Stiftung.
홍순혜·이숙영(2008), 청소년 새터민의 문화변용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청소년학연구》 15(6), 한국청소년학회.
Bidet(2009), Social capital and work integration of migrants: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 33(2).

한국어 어문 규정Ⅱ
-외래어 표기법과 남한 외래어휘 교육

강보선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 어문 규정 II - 외래어 표기법과 남한 외래어휘 교육

강보선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I 외래어 표기법의 개념 및 필요성[1)]

1. 외래어 표기법의 개념

-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
- 완전히 우리말로 정착한 소수의 '외래어'에만 한정되지 않음.
- 최근에 우리말에 들어와서 어떻게 표기해야 좋을지 모르는 낯선 외국어들과 외국의 인명, 지명이 주요 표기 대상임.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모두 21개의 외국어를 적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

<u>외래어의 특징</u>

1) 발음의 변화
- file : [f]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놓으면서 내는 소리인데, 우리말에는 이런 소리가 없으므로 그에 가장 가까운 소리인 'ㅍ' 소리로 바뀌어 '파일'로 발음됨.

2) 형태의 변화
- 외래어 형용사나 동사가 우리 말 속에서는 항상 접미사 '-하다'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남. 예) 스마트하다, 스마트하여, 스마트하게

3) 의미의 변화
- 미팅(meeting) : 모임/회의(영어) → 남녀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국어)
- 부츠(boots) : 온갖 종류의 '장화'를 두루 가리키는 말(영어) → 주로 여성들이 신는 목이 긴 구두(국어). 비 오는 날 신거나 작업용으로 신는 고무장화는 '부츠'라고 하지 않음.

1) 국립국어원(2010) 참조

2.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 국어 생활 속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 (internet: 인터넷, 인터네트, 인터넽 등)

II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2)]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예) [ɔ] → [오] 콘서트, 콘택트 렌즈, 콘텐츠 **예외)** [p] → ㅍ, 프, ㅂ : 퍼센트, 수프, 쇼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예) 커피숍/*커피숖, 디스켓/*디스켙, 코너킥/*코너킼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카페/*까페, 파리/*빠리, 가스/*까스, 버스/*뻐스, 서비스/*써비스, 세븐/*쎄븐, 재즈/*째즈, 모차르트/*모짜르트 **예외)** 중국어 표기에는 'ㅆ'과 'ㅉ'을 사용함. (쑨원, 마오쩌둥 등) **예외)** 타이어와 베트남어에는 파열음과 파찰음에 된소리 표기를 한다. (빠따니, 푸껫, 호찌민 등) **[북한]** 파열음 표기에 예사소리나 거센소리, 된소리를 사용한다. (bar 빠, bag 빽, ball 뽈, bus 뻐스, block 뽈럭, dollar 딸라, goal 꼴, game 께임, gum 껌)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예) 라디오/*레이디오, 카메라/*캐머러, 시스템/*시스텀 등

2) 구본관(2010), 국립국어원(2010), 김희진(1996), 정동환(2002) 참조

III 외래어 표기법의 실제

1. 무성 파열음 ([p], [t], [k])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예) gap[gæp] 갭, cat[kæt] 캣, book[buk] 북 **예)**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네트 **예외)** 1음절어이면서 어말 무성 파열음 [t]로 끝나는 말은 그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ㅡ'를 받쳐 한 음절을 늘려 적는 경우가 많다. (네트/*넷, 세트/*셋, 매트/*맷) **[북한]** 개프, 캐트, 쿠크

1-2. 짧은 모음과 유음 · 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예) apt[æpt] 앱트, act[ækt] 액트

1-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예) stamp[stæmp] 스탬프, part[pɑ:t] 파트, desk[desk] 데스크, make[meik] 메이크,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예)** 테이프/*테입/*테잎, 케이크/*케잌/*케익, 플루트/*플룻 **참고)**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말 파열음을 무조건 파열시켜 'ㅡ'를 받쳐 적는 것이 원칙이다.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등)

2. 유성 파열음([b], [d], [g])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2-1.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예) land[lænd] 랜드, zigzag[zigzæg] 지그재그, lobster[lɔbstə] 로브스터 kidnap[kidnæp] 키드냅, signal[signəl] 시그널 **예외)** '백', '웹' 등 이미 굳어진 말들은 예외를 인정하여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다. (핸드백/*핸드배그, 웹/*웨브)

3. 마찰음([s], [z], [f], [v], [θ], [ð], [ʃ], [ʒ])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3-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예) mask[mɑːsk] 마스크,	jazz[dʒæz] 재즈,	graph[græf] 그래프
olive[ɔliv] 올리브,	thrill[θril] 스릴	

참고) [f] 소리는 항상 'ㅍ'으로 적는다.
(파이팅/*화이팅, 패밀리/*훼미리, 프라이/*후라이, 피트니스/*휘트니스)

3-2.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섀',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예) flash[flæʃ] 플래시,	shrub[ʃrʌb] 슈러브,	shark[ʃɑːk] 샤크,
shank[ʃæŋk] 섕크,	fashion[fæʃən] 패션,	sheriff[ʃerif] 셰리프,
shopping[ʃɔpiŋ] 쇼핑,	shoe[ʃuː] 슈,	shim[ʃim] 심

예) 잉글리시/*잉글리쉬, 플래시/*플래쉬, 리더십/*리더쉽

참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ʃ]를 언제나 '슈'로 적는다.
(아인슈타인/*아인쉬타인, 타슈켄트/*타쉬켄트)

〈남북이 같은 점〉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쇼', '슈'로 적는다.

[남한] shark[ʃɑːk]샤크, shopping[ʃɔpiŋ]쇼핑, shoe[ʃuː] 슈

[북한] sharp[ʃɑːp]샤프, short[ʃɔːt]쇼트, shoot[ʃuːt] 슈트

〈남북이 다른 점〉

[북한] 어말과 자음 앞의 [ʃ]는 '쉬'로 적고,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솨', '쇄', '쉐', '쉬', '셔'로 적는다.
(shadow[ʃædou]쇄도우, shepherd[ʃepəd]쉐퍼드,
English[iŋgliʃ]잉글리쉬, shilling[ʃiliŋ]쉴링)

3-3.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ㅈ'으로 적는다.

예) mirage[mirɑːʒ] 미라지, vision[viʒən] 비전

4. 파찰음([ts], [dz], [tʃ], [dʒ])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4-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ㅊ', 'ㅈ'로 적고, [tʃ], [dʒ]는 '치', '지'로 적는다.

예) Keats[kiːts] 키츠, odds[ɔdz] 오즈, switch[switʃ] 스위치, bridge[bridʒ] 브리지, Pittsburgh[pitsbəːg] 피츠버그

4-2. 모음 앞의 [tʃ], [dʒ]는 'ㅊ', 'ㅈ'으로 적는다.

예) chart[tʃɑːt] 차트, virgin[vəːdʒin] 버진 **예)**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

5. 비음([m], [n], [ŋ])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5-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예) steam[stiːm] 스팀, corn[kɔːn] 콘, ring[riŋ] 링, lamp[læmp] 램프, hint[hint] 힌트, ink[iŋk] 잉크

5-2.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ㅇ'으로 적는다.

예) hanging[hæŋiŋ] 행잉, longing[lɔŋiŋ] 롱잉 **[북한]** [nn]으로 적은 것을 [n]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ㄴㄴ]으로 적되 첫 번째 [ㄴ]는 앞소리 마디의 받침으로 적는다. (Dinner[dinə]딘너)

6. 유음([l])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6-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l]은 받침으로 적는다.

예) hotel[houtel] 호텔, pulp[pʌlp] 펄프

6-2.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다만,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예) slide[slaid] 슬라이드, film[film] 필름, helm[helm] 헬름, swoln[swouln] 스월른, Hamlet[hæmlit] 햄릿, Henley[henli] 헨리 **예)** 플라자/*플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7.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team[ti：m] 팀, route[ru：t] 루트 **예)** 오사카/*오오사카, 요크셔/*요우크셔 **예외)** 알코올/*알콜 cf) 메칸올, 에탄올

8. 중모음([ai], [au], [ei], [ɔi], [ou], [auə])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8-1.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예) time[taim] 타임, house[haus] 하우스, skate[skeit] 스케이트, oil[ɔil] 오일, boat[bout] 보트, tower[tauə] 타워 **예)**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볼링/*보울링, 윈도/*윈도우,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9. 반모음([w], [j])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9-1. [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 [wou]는 '워', [wɑ]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예) word[wə：d] 워드, want[wɔnt] 원트, woe[wou] 워, wander[wɑndə] 완더, wag[wæg] 왜그, west[west] 웨스트, witch[witʃ] 위치, wool[wul] 울

9-2. 자음 뒤에 [w]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

예) swing[swiŋ] 스윙, twist[twist] 트위스트, penguin[peŋgwin] 펭귄, whistle[hwisl] 휘슬, quarter[kwɔːtə] 쿼터

9-3. 반모음 [j]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야', '얘',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d], [l], [n] 다음에 [jə]가 올 때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 적는다.

예) yard[jɑːd] 야드, yank[jæŋk] 얭크, yearn[jəːn] 연, yellow[jelou] 옐로, yawn[jɔːn] 욘, you[juː] 유, year[jiə] 이어, Indian[indjən] 인디언, battalion[bətæljən] 버탤리언, union[juːnjən] 유니언

9-4. 모음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한다.

참고) 모음 [ə]는 '어'로 적는다. (센터/*센타, 디지털/*디지탈, 터미널/*터미날,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참고) [ɔ]와 [o]는 '오'로 적는다.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 톱/*탑, 숍/*샵, 보디/*바디) 참고) 모음 o가 강세 음절인 경우에는 [ɔ]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으나, 강세가 없는 음절에 위치할 때에는 약화되어 [ə]로 소리 나게 되고, 한글로는 '어'로 적는다. (irony[airəni]는 '아이러니'로, ironical[airɔnikəl]은 '아이로니컬'로 표기) 참고) [ʌ]는 '어'로 적는다. (컬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10.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예) cuplike[kʌplaik] 컵라이크, bookend[bukend] 북엔드, headlight[hedlait] 헤드라이트, touchwood[tʌtʃwud] 터치우드, bookmaker[bukmeikə] 북메이커 예) 아웃렛/*아울렛, 로그인/*로긴, 메이크업/*메이컵

11.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예) top class[tɔpklæs] 톱 클래스/톱클래스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원어	맞음	틀림	원어	맞음	틀림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사리	Hollywood	할리우드	할리웃
ad lib	애드리브	애드립	juice	주스	쥬스
barbecue	바비큐	바베큐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
battery	배터리	빠떼리, 빳데리, 밧데리	makeup	메이크업	메이컵
biscuit	비스킷	비스켓	massage	마사지	맛사지
blind	블라인드	브라인드	motor	모터	모타
body	보디	바디	network	네트워크	네트웍
buffet(프)	뷔페	부페	nonsense	난센스	넌센스
business	비즈니스	비지니스	nylon	나일론	나이론
cake	케이크	케익, 케잌	pamphlet	팸플릿	팜플렛
cardigan	카디건	가디건	panda	판다	팬더
catalog	카탈로그	카다로그, 가다록	panel	패널	판넬
centimeter	센티미터	센치미터	placard	플래카드	플랭카드
chocolate	초콜릿	초코렛, 초콜렛, 초콜릿, 쵸코렛	plaza	플라자	프라자
collection	컬렉션	콜렉션	radar	레이더	레이다
color	컬러	칼라	royal	로열	로얄
cover	커버	카바	sash	새시	샤시
cunning	커닝	컨닝	sausage	소시지	소세지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set	세트	셋, 셋트
curtain	커튼	커텐	shutter	셔터	샷다
data	데이터	데이타	sofa	소파	쇼파
digital	디지털	디지털, 디지틀	soup	수프	스프, 슢
encore(프)	앙코르	앵콜	special	스페셜	스페샬
enquete(프)	앙케트	앙케이트	staff	스태프	스탭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sunglass	선글라스	썬그라스
flash	플래시	후레시, 후레쉬	supermarket	슈파마켓	수퍼마켓
flute	플루트	풀룻	symbol	심벌	심볼
fresh	프레시	후레쉬	talent	탤런트	탈렌트
frypan	프라이팬	후라이팬	tape	테이프	테잎
gas range	가스레인지	가스렌지	total	토털	토탈
giant	자이언트	쟈이언트	workshop	워크숍	워크샵

IV 남한 외래어 교육

1. 외래어 적응의 실태

-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생소한 단어'와 '단어 의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정경일, 2001 참조).

〈표 1〉 북한이탈주민이 말하기와 듣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

설문 항목	응답	추가 응답
말하기 적응도	내 말을 남한 주민이 이해 못함: 41.6% 이해함: 16.9%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발음과 억양 34.3%, 생소한 단어 29.4%, 단어 의미 차이 25.9%
듣기 적응도	나는 남한 주민의 말을 초기에 전혀, 거의 이해 못함: 44.8% 충분히 제법 이해함: 24.1%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생소한 단어 33.9%, 발음과 억양 27.4%, 단어 의미 차이 19.6%

- 외래어의 경우 정확도가 가장 낮고, 반응 시간도 가장 길(문금현 외, 2006).

〈표 2〉 어종별 어휘 테스트 결과

어종	평균 정확도	평균 반응 시간
고유어	92.82%	3.87초
한자어	92.85%	4.08초
외래어	87.57%	4.66초

-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김석향, 2006).[3)]

진 행 자: 남한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언어 문제라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남쪽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

3) 김석향(2006)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외래어'는 '외국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A4', '뱅킹' 등의 말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어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외래어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자주 사용되고 남용되는 외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이기춘 외, 2001 참조).

북한이탈주민 1: 북한에서 듣지 못한 말, 그런 것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적응해서 알지만 처음에 테레비에서 '스킨십'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 있더라구요.

북한이탈주민 2: 외래어가 많으니까…….

북한이탈주민 1: 처음에 왔을 때에는 'A4 용지'도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규격지, 16절지라고 하는데……. '신토불이'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인터뷰'도 그렇고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갔더니 직원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신청하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봤어요.

북한이탈주민 3: 평상시에 쓰는 말에 외래어가 많아요. '애니메이션'……. '셀프'란 말도 몰랐어요.

2. 외래어 교육 방안[4)]

(1) 외래어 및 외국어 순화 노력 알려주기

2005년 12월 중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북측 단장인 권호응 내각참사는 한라산의 "CJ 나인브릿지"라는 골프장을 방문하면서 "식당 이름이 온통 영어여서 제 나라 식당에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언급을 했다. 남측 인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고 변론하자 그는 "자기 나라 인민이 먼저이지 어떻게 외국인이 먼저인가"하며 반문했다고 한다(2006년 12월 15일자 연합뉴스 기사).

- 남한말은 외래어와 외국어가 너무 많아 문제가 있는 언어라는 인식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있음.
-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는 외래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남한에서도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외래어 및 외국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 줌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북한어와 비교하기

- 남한의 외래어를 제시할 때 대응되는 북한어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하면 학습에 도움이 됨.
- 남한의 외래어가 북한에서도 외래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북한에서는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4) 강보선(2013), 권순희 외(2013), 오미정 외(2007)를 참조함.

1) 북한에서도 동일한 외래어인 경우
- 형태가 완전히 다른 외래어: 헝가리(마쟈르), 폴란드(뽈스카) 등
- 형태가 조금 다른 외래어: 토마토(도마도), 러시아(로씨야), 마라톤(마라손), 스케이트(스케트), 달러(딸라), 라디오(라지오), 피자(삐자) 등
- 형태가 같은 외래어: 피아노, 아이스크림 등

2) 북한에서는 고유어 또는 한자어인 경우
- 슈퍼 ㉥상점 / 메이커 ㉥고급상표 / 아이브로 펜슬 ㉥눈썹 연필 / 파우더 ㉥가루분

(3) 학습 외래어와 관련된 예문 및 관련어를 제시하기

- 외래어를 단독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예문, 관련어, 유의어, 반의어 등을 함께 제시하면 어휘 확장이 가능함.

•**가이드(guide)[가이드]**
(1) 여행 따위를 안내하는 사람
(2) 무엇을 '안내하는'의 뜻
예) 첫 해외여행에서는 통역을 겸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guide-line)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든 규제의 범위
•가이드북(guidebook) (1) 여행이나 관광 안내를 위한 책 (2) 학습이나 상품의 정보 따위를 다룬 소개서

•**개그맨(gagman)[개그맨]** 일반 대중을 즐겁게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사는 사람, 우스운 행동을 잘하거나 남을 잘 웃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관)코미디언 (반)개그우먼
예) 그 남자는 **개그맨**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다.

(4) 시각 자료 활용하기

- 구체어인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학습에 효과적임.

밴		지붕이 고정되어 있고 뒤에 화물칸이 있어 짐을 싣기에 편한 자동차.

(5) 바른 표기와 함께 일상적 표기를 동시에 알려주기

- 남한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중에는 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외래어가 종종 있음.
- 이들 외래어를 가르칠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외래어를 알려 주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형태도 알려 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 줄 필요가 있음.

선크림	햇볕에 타거나 잡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바르는 크림. [일상]썬크림, [비슷]자외선 차단 크림
리포트	대학에서 교수가 조사나 연구, 실험 등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주는 과제 또는 보고서. [일상]레포트
아르바이트	대부분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며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 [일상]알바

〈참고 문헌〉

강보선(2011),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강보선(2013),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 연구-학습 어휘의 유형 및 어휘 선정 방법을 중심으로-, 제275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어교육학회.

구본관 외(2010),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0),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권순희 외(201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위한 생활어휘 1~3, 하우

권순희 외(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 개발, 국립국어원.

김석향(2006), 새터민의 언어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김희진(1996),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제6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문금현 외(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신명선 외(2010),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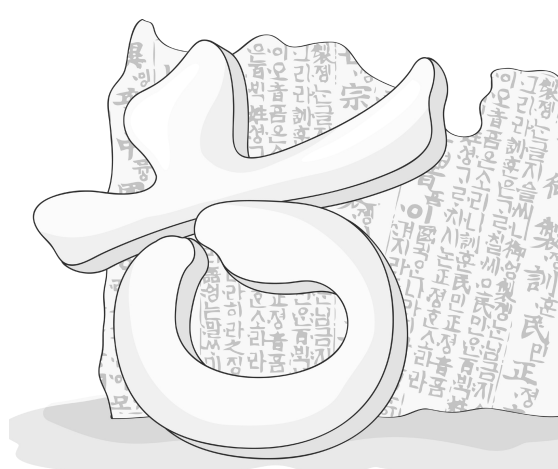
정경일(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정동환(2002), 통일 시대의 외래어 표기법, 한말연구 11, 한말연구학.

한정미 외(2011), 새로운 언어생활, 통일부 하나원.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이유원 |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이유원 |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된 정보를 소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오면 정면에 국어사전 검색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9년에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문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 적용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었다. 이 사전은 총 3권의 종이 사전으로 출간되었으며 2001년에는 컴퓨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사전(CD 형태)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사전의 오류를 수정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2008년에 사전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되고 있는 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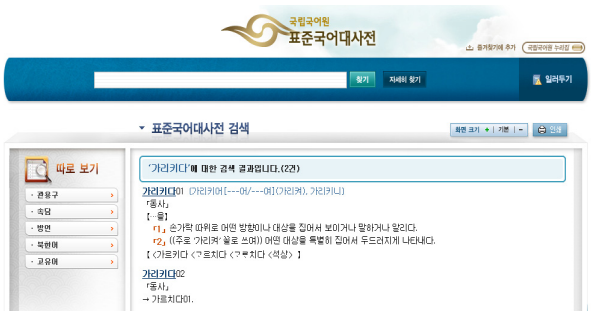
1.1 사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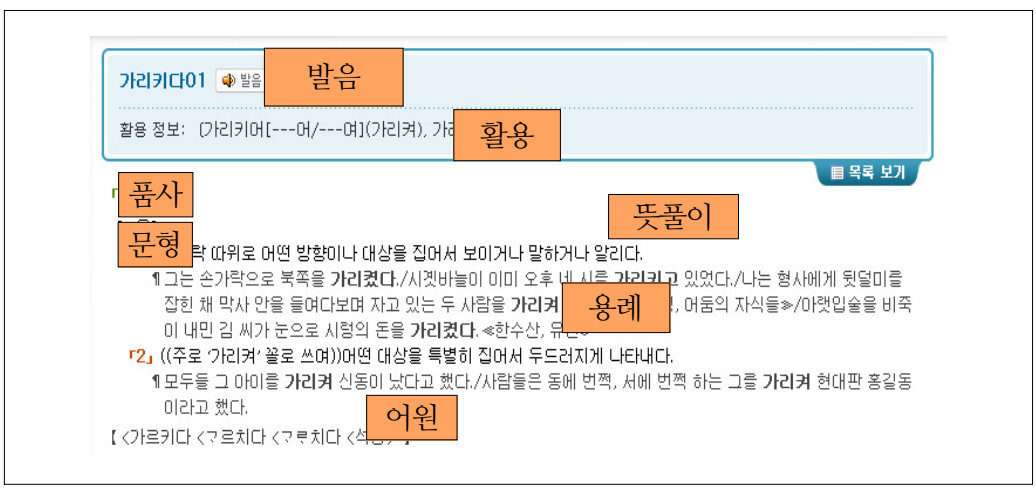
사전에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단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실려 있다. '가리키다'를 예로 들어 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검색 칸에 '가리키다'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가리키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다'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다'와 관련이 있다. 이 둘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 01과 02로 나뉜 것이다.

'가리키다02'는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르치다01."로 되어 있다. 이는 '가리키다02'는 '가르치다01'로 가라는 뜻으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과 같이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다음으로 '가르키다01'을 통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자.





1) **발음**: 단어의 발음을 알려 준다. '가리키다' 옆에 '발음 듣기'를 누르면 그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발음 듣기'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표기와 발음이 다를 경우 단어 옆에 발음을 제시해 두었다.
   안다01 [안ː따] / 찾다[찯따]
2) **활용 정보**: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가 연결되면 모습이나 발음이 바뀌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사전에서는 '가리키다'의 어간에 '-어'가 연결되면 '가리키어'가 되고 이것이 '가리켜'로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가리키어'가 [가리키어]나 [가리키여]로 소리가 난다는 것도 알려 준다. 이와 달리 명사 뒤에 조사가 연결될 때도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 정보에서 알려 준다.
   꽃01 〔꽃이[꼬치], 꽃만[꼰-]〕
3) **품사**: 단어의 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품사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4) **문형**: 단어가 동사나 형용사일 때 어떤 문장 성분과 함께 쓰이는지 알려 준

다. ‘가리키다’의 경우 ‘북쪽을 가리키다, 네 시를 가리키다, 사람을 가리키다’ 등과 같이 반드시 ‘~을’과 함께 쓰이므로, 문형 정보에서 【…을】을 제시하고 있다.

5) **뜻풀이와 용례**: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단어의 뜻과 그 용례를 알려 준다. 실례 뒤에는 그 출전을 밝혔다.

6) **어원**: 단어가 15~17세기 문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 준다. 최초로 나타난 형태를 제시하며 그 형태가 바뀌면 함께 제시한다. ‘가리키다’는 “석보상절”에서 ‘ᄀᆞᄅᆞ치다’로 처음 나타났으며, ‘ᄀᆞᄅᆞ치다’가 ‘ᄀᆞ르치다’를 거쳐 ‘가르키다’로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2. 사전 검색 방법

누리집에서는 ‘?(물음표)’와 ‘*(별표)’를 이용하면 단어를 찾을 때 좀 더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다. ‘?(물음표)’는 해당 글자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다. 글자 한 개를 모르면 ‘?’, 글자 두 개를 모르면 ‘??’, 글자 세 개를 모르면 ‘???’처럼 글자 수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와 달리 ‘*(별표)’는 글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단어들을 찾아준다. 만약 ‘인사말’인지 ‘인삿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말’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만약 ‘인*말’로 검색하면 ‘인’으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모든 단어를 검색한다. 참고로 ‘?’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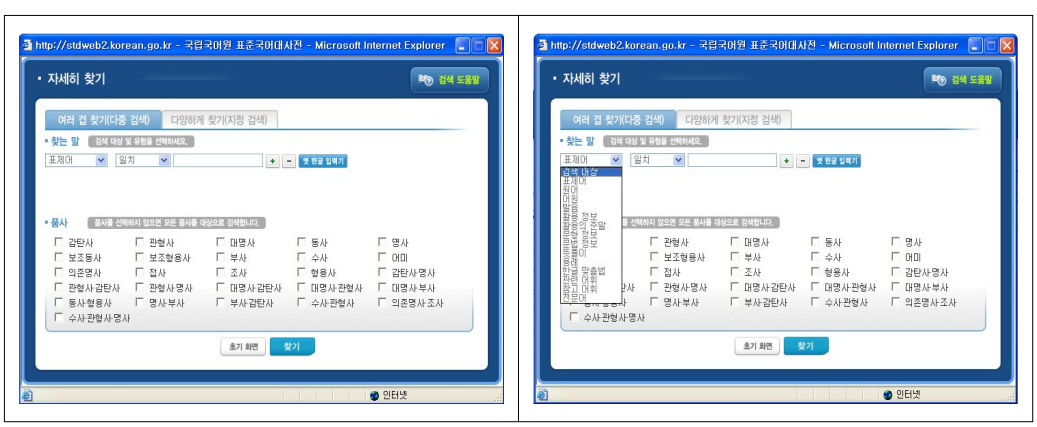
‘인?말’ 검색 결과	‘인*말’ 검색 결과
‘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건) 인사-말(人事-)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 인삿-말(人事-) 「명사」 → 인사말.	‘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6건) 인말이(姻末) 「대명사」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姻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늑인하02(姻下). 인말02(寅末) 「명사」 ㉠인속. 인시(寅時)의 끝 무렵. 인사-말(人事-)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 인삿-말(人事-) 「명사」 → 인사말. 인종지말(人種之末) 「명사」 사람의 씨 가운데 가장 못된 것이라는 뜻으로, 태도나 행실이 사람답지 않고 막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인중지말(人中之末) 「명사」 사람 가운데 행실이나 인품이 제일 못난 사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구와 속담, 방언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속담은 일반적으로 그 속담의 첫 단어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의 일부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도록 속담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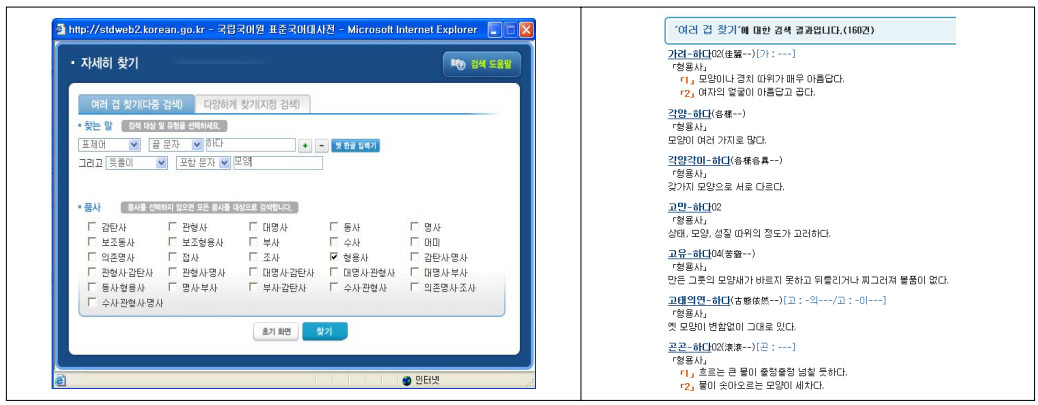
사전 화면 왼쪽에 ‘따로 보기’ 아래에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담’을 누르면 속담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표

제어'에 '포함 문자'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속담을 찾아 준다. 다음은 '말'이 들어간 속담을 검색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용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화면으로 들어오면 검색 칸 옆에 '찾기' 단추 외에 '자세히 찾기' 단추가 있다. '자세히 찾기'란 검색 대상을 달리하거나 검색 조건을 세분하여 검색하는 기능으로, 이것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찾기'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원어, 발음, 뜻풀이, 용례 등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조건도 하나 이상 줄 수 있다. 가령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서 뜻풀이에 '모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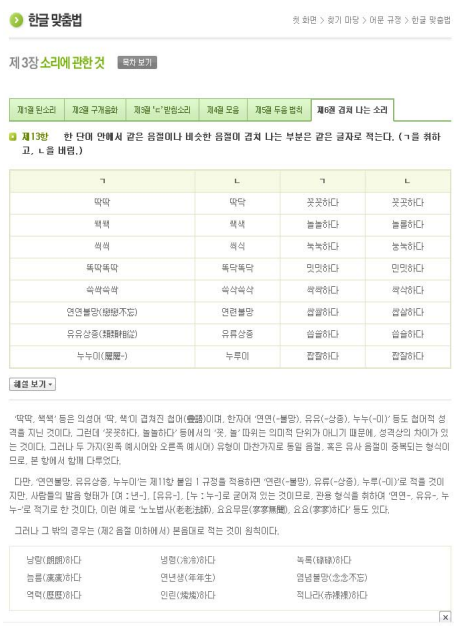


검색 대상을 우선 '표제어'로 설정하고 다음 조건은 '끝 문자'를 선택한 후 검색 칸에 '하다'를 입력한다. 이것은 '하다'로 끝나는 표제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를 누르면 검색 조건식이 하나 더 나온다. 두 번째 조건식의 검색 대상을 '뜻풀이'로 두고 다음 조건을 '포함 문자'로 둔 후 검색 칸에 '모양'을 넣는다. 이것은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품사 중 '형용사'를 선택한 후 '찾기'를 누르면,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들이 모두 검색된다.

2 어문 규정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이 네 가지 어문 규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찾기 마당'의 '어문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어문 규정'에는 각 어문 규정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가령 '한글 맞춤법'의 '제6절 겹쳐 나는 소리'를 누르면 '겹쳐 나는 소리'와 관련된 조항인 제13항이 나온다. 그런데 조항을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있으나, 왜 그렇게 쓰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조항마다 '해설'을 함께 제공한다. 조항 아래에 있는 '해설 보기'를 누르면 왜 그렇게 쓰는지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는 어떻게 쓰는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규정을 찾아 직접 표기해 볼 수도 있지만 ‘용례 찾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원어나 한글 표기를 넣고 ‘찾기’를 누르면 원어의 바른 한글 표기를 알려 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시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로마자로 표기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그 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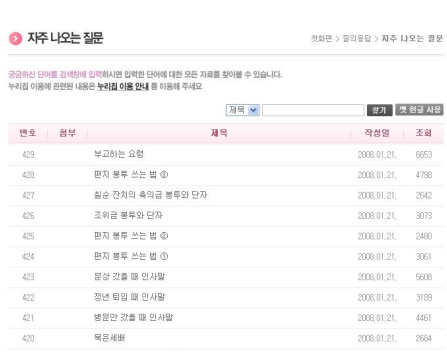
3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이란 어문 규범이나 어법,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곳이다. 가령 ‘가십시오’가 맞는지 ‘가십시요’가 맞는지 궁금할 때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날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다. 화면 윗부분에 있는 검색 칸에서 ‘질문 제목’이나 ‘질문 내용’을 설정한 후에 ‘가십시오’나 ‘가십시요’를 넣고 검색하면 ‘가십시오/가십시요’와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 검색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안 남기고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 국립국어원은 '가나다 전화(1599-9979)'라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가나다 전화로 전화해서 국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보면 상담원이 바로 답을 알려 준다.

그리고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에 들어오는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 300여 개를 모아 '자주 나오는 질문'에 정리해 놓았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는 '로서'와 '로써'의 차이, '들려서/들러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있음/있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부터 부고하는 요령이나 단자 쓰는 법, 세배 인사법 등 국어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4 공공 언어 지원

4.1. 순화어와 ‘우리말 다듬기’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바꾸어 쓰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를 ‘순화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순화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첫 화면의 ‘찾기마당’을 누른 후에 ‘어휘·용어 정보’에서 ‘순화어’로 들어오면 된다.

순화어 자료 역시 검색이 가능하다. 가령 순화 대상어로 ‘나시’를 찾으면 ‘나시, 소데나시, 에리나시’ 등이 검색된다. ‘나시’에 들어가면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순화한 용어만 쓸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즉 ‘나시’, ‘소데나시’를 쓰지 말고 ‘민소매’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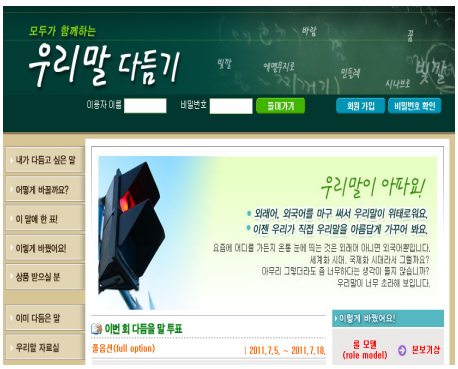
나시	
순 화 어:	민소매
원 어:	← そでなし일
순 화 정 도:	×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의 미/용 례:	패션 디자인
비 고:	국연1999(고시)

순화어에는 ‘나시’처럼 순화한 용어만 쓰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과 둘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가드	
순 화 어:	수비수
원 어:	guard
순 화 정 도:	→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의 미/용 례:	운동경기(핸드볼)
비 고:	국연2001

가세	
순 화 어:	집안 형편
원 어:	家勢
순 화 정 도:	○ :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한 용어를 모두 쓸 수 있음
의 미/용 례:	행정
비 고:	국연1992

최근 인터넷에 오르는 글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외래어가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럴 해저드, 풀 옵션, 시스루, 플래시몹’ 등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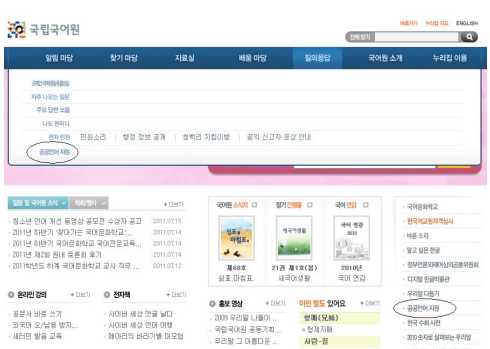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16	'롤 모델(role model)'을 '본보기상'으로	우리말	2011.07.05.	140	5
315	'포커페이스(poker face)'는 '무표정'으로 (17)	우리말	2011.06.21.	346	6
314	'바리스타(barista)'는 '커피전문가'로 (29)	우리말	2011.06.07.	557	12
313	'오버페이스(over pace)(하다)'는 '무리(하다)'로 (28)	우리말	2011.05.24.	695	26
312	'올킬(all kill)'을 '싹쓸이'로 (116)	우리말	2011.05.10.	1828	93
311	'러브샷(love shot)'은 '사랑건배'로 (42)	우리말	2011.04.26.	1418	15
310	'치킨게임(chicken game)'은 '끝장승부'로 (3)	우리말	2011.04.12.	1407	10
309	'에코드라이브(eco-drive)'는 '친환경운전'으로 (1)	우리말	2011.03.29.	996	50
308	'로하스(LOHAS)'는 '친환경삶이'로 (4)	우리말	2011.03.15.	938	4
307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는 '정보무늬'로 (3)	우리말	2011.03.01.	1238	5
306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관광취업'으로 (10)	우리말	2011.02.15.	844	2
305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는 '악덕소비자'로 (1)	우리말	2011.02.01.	942	3
304	'론칭쇼(launching show)'는 '신제품 발표회'로	우리말	2011.01.18.	899	5
303	'스키니진(skinny jeans)'은 '맵시청바지'로 (10)	우리말	2011.01.04.	1700	7
302	'PL(Private Label)상품'은 '자체기획상품'으로	우리말	2010.12.21.	924	4
301	'와이파이(Wi-Fi)'는 '근거리무선망'으로 (9)	우리말	2010.12.08.	1819	10
300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는 '공동할인구매'로	우리말	2010.11.23.	1337	10
299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공동전원주택'으로 (3)	우리말	2010.11.09.	1181	9
298	'멀티탭(multi-tap)'은 '모둠꽂이'로 (7)	우리말	2010.10.27.	1719	18
297	'슬로시티(slow city)'는 '참살이지역'으로 (4)	우리말	2010.10.12.	1336	12
296	'선루프(sunroof)'는 '지붕창'으로 (9)	우리말	2010.09.28.	16241	12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에서는 어려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과 바꾼 단어를 알리는 일을 한다. 이곳에서는 다듬고 싶은 말을 건의할 수도 있고, 바꿀 단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듬을 말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4.2. 공공언어 지원 요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 기관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책 용어와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공공언어 지원'이라는 누리집을 만들었다. 이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지원'을 요청하면 각 기관에서 다듬고 싶은 말이나 문장을 다듬어 준다.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www.korean.go.kr/publang)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질의응답' 아래에 있으며, 첫 화면 오른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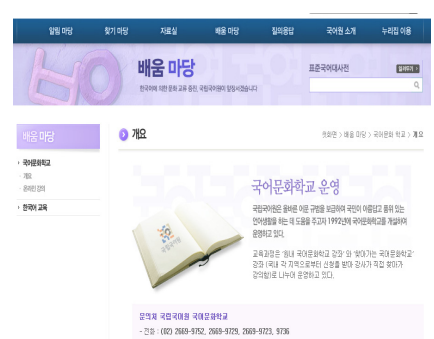
공공언어 지원을 받고 싶으면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에 들어와 요청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 공공 언어 지원 사업은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원 요청 시 신청인이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실명 확인을 한다.

실명 확인을 한 후에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가 '낱말'인지 '문장'인지 선택하면 된다.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 순화를 원하면 화면의 요청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대로 작성하면 되고, 문장의 교열이나 교정을 받고자 하면 작성한 문장을 파일로 올리면 된다.

5 강의 지원

5.1.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어문화학교(www.korean.go.kr/ kcultur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성인 30명 이상이 모여 2시간가량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중앙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군 부대 등 어떤 기관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강의료, 강사 여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국립국어원이 모두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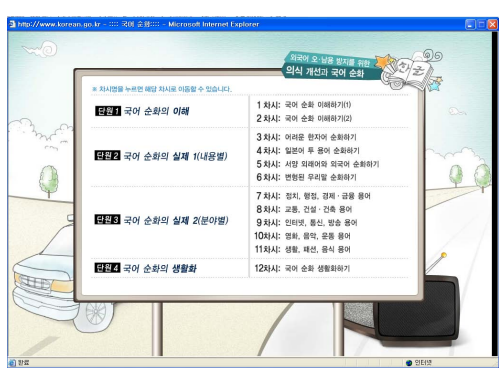
5.2. 온라인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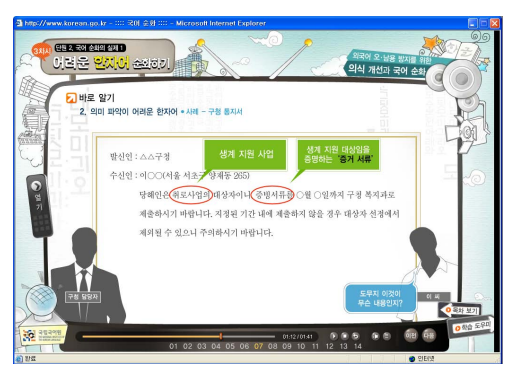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는 어문 규정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배움 마당'의 '온라인 강의'로 들어오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과목은 말 그대로 어문 규정 중 '한글 맞춤법' 규정을 알려 주는 강의이다. 어문 규정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궁금했던 예들로 수업을 진행해 한글 맞춤법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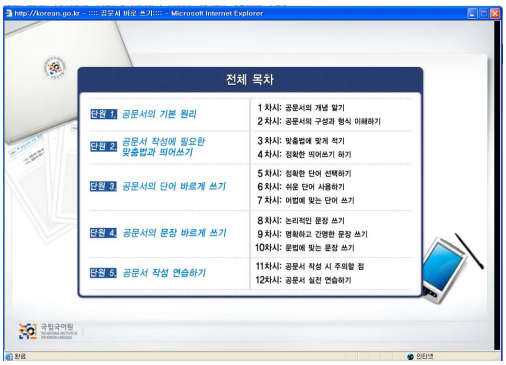
‘새터민 발음 교육’은 새터민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다. 새터민의 발음과 억양은 남한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을 고치고 싶어하는 새터민을 위해 다른 발음이나 억양을 중심으로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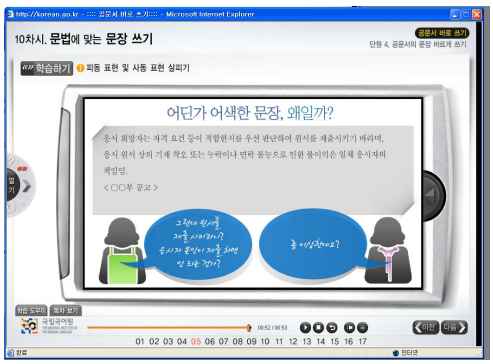
세 번째는 ‘외국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강의는 국어 순화와 관련된 강의이다. 국어 순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 주고,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행정 용어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는 공문서를 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이다. 공문서를 쓸 때 필요한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어휘나 문장을 바르게 쓰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실제 공문서의 예를 들어 잘못된 곳을 찾고 고쳐 보기도 한다.





6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있다. 한글문화의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한글의 탄생과 역사, 아름다운 한글, 생활 속 한글, 한글과 교육, 한글의 진화와 미래)을 운영하고 있다.

'한글의 탄생과 역사'에서는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보여 준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 주며, 세계 여러 문자의 역사도 소개한다.

'아름다운 한글'에서는 글자의 모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글의 자형의 변천 과정과 한글 글꼴 개발의 역사를 설명하고, 다양한 글꼴을 보여 준다. 그리고 글꼴 개발 산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생활 속 한글'에서는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을 주제로 한 한글 관련 문헌을 전시한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한글 문헌과 사회상을 반영한 한글 문헌을 소개한다.

'한글과 교육'에서는 한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어문 규범과 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 국어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된다.

'한글의 진화와 미래'에서는 한글의 모습과 사용 양상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여 준다. 한글의 세계화와 기계화, 국어 정보화 사업을 소개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어문 규정을 소개하고 남북한 언어도 비교해 놓았다.

이 외에 '학술 정보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한글 관련 문헌들을 정리한 곳이다. 한글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문헌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한글 문헌 통합 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7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자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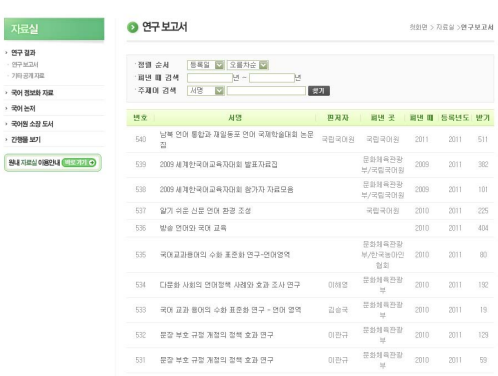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누리집 '배움 마당'의 '한국어 교육'에 들어오면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기본 교재', '이주민을 위한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로 나뉜다. 한국어 교사이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건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모두 교재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면 '한국어세계화재단(www.glokorean.org)'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는 일과 한국어 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일 외에 온라인으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8 국립국어원 자료실

국립국어원 자료실에서는 국립국어원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된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나 우리말 순화 내용 등을 모두 제공한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계간지인 '새국어생활'과 온라인 소식지인 '쉼표, 마침표'는 누리집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신청하면 전자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어문 규정Ⅲ-표준어 규정 해설

권미영 |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한국어 어문 규정Ⅲ - 표준어 규정 해설

권미영 |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1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 언어 안에서 특정 지역의 말이 다른 지역의 말과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한다. 방언과 방언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언 상호 간에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영토는 좁지만 많은 방언들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감수가(가고 있습니까?)'도 타 지역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바릇(해산물), 돗굉이(회오리바람), 황고지(무지개), 아지방(서방님)' 등도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국가가 표준어를 제정하는 까닭은 대립되는 말을 하나로 정하여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어가 국가 공통어이므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 시대 한 나라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발음, 어형, 의미 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방언, 위상어, 특수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내버려 둔다면 한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방언은 방언대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위상어나 특수어도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떤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동료 간에 우정을 싹트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떠나서 국민이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만 한다. 즉 한 나라 한 민족의 말은 일정한 원칙 밑에서 일관성 있게 발음하고 적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을 '표준어 규정'이라 하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이 표준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며, 국민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용어(公用語)이다.

2 표준어 규정의 제정 과정

현행 표준어 규정은 지난 1988년 1월 19일 정부가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인정한 것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에서부터이다. 여기에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온다. 이어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가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을 제정한 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발표한 것이 실질적인 표준어가 되었다. 사정한 표준말 단어는 모두 9,547개[표준어 6,231개, 약어(준말) 134개, 비표준어 3,082개, 한자어 100개]이다.

그런데 이 '표준말 모음'에는 사정한 단어만 수록되어 있을 뿐 사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표준말 사정의 조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항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래도 당시 상황이 일제 암흑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표준말 모음'이 마련되었지만, 그 목적과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비록 이 '표준말 모음'은 그 자체로도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조선어학회의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이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조선어학회의 '큰 사전'은 광복 뒤에 6권으로 간행되어 오늘날까지 표준어의 준거(準據)가 되어 왔다.

이 '표준말 모음'이 광복 이후 50년 동안 국민 언어생활의 표준이 되어 계속 사용되는 동안 당시 문교부는 1970년 2월에 국어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학술원 산하의 어문 연구 위원회, 국어 연구소를 차례로 만들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무려

18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는 달리 개정이라기보다는 제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새로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크게 나누어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제3장 제26항)'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제7장 제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항에는 대표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여기에 나타난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나타나지 않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표준어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말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1990년 9월 14일 문화부는 '표준어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 약 1,400여 개를 골라 사정한 후, 이를 '표준어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였다(문화부 공고 제36호).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언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듯이 언제나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은 사멸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어는 계속해서 사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어문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까닭으로 최근(2011. 8. 22.)에도 국립국어원에서는 총 39개 항목의 새 표준어를 추가로 확정한 바 있다.[1)]

3 표준어 사정의 대원칙

표준어 사정의 대원칙은 '표준어 규정'의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중 '제1장 총칙'의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1항은 아래와 같다.

>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시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1)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2010년 2월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에 상정하였고,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 표준어로 선정된 39항목이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 대비하여 ‘표준말-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현재’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 즉 영원한 현재로서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표준말을 규정짓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말’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은 넓은 의미의 ‘서울말’을 가리키므로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4 표준어 익히기

4.1. 발음 변화에 따라 선정된 표준어

4.1.1.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표준어 표시)

나팔꽃/*나발꽃, 칸/*간, 털어먹다/*떨어먹다

발음의 변화가 워낙 커서 도저히 옛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나발꽃’에서 바뀐 형태인 ‘나팔꽃’이 널리 쓰이므로 ‘나발꽃’을 버리고 ‘나팔꽃’을 표준어로 정하였다.[2] ‘칸’은 한자어 ‘間’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칸’이라고 발음하므로 ‘간’을 버리고 ‘칸’을 표준어로 정하였다.[3] ‘재물을 다 없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털어먹다’는 ‘떨어먹다’에서 바뀐 형태이지만, 이것이 일반화되어 쓰이므로, ‘떨어먹다’를 버리고 ‘털어먹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4] ♣끄나풀, 녘(동~, 들~, 새벽~, 동틀 ~), 부엌, 살쾡이

2) 다만, 고유의 악기인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3) 그러나 ‘초가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을 인정한다.
4) 그러나 ‘먼지떨이, 재떨이’에는 ‘떨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바꾸지 않았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을갈이/*가을카리, 분침/*푼침

제3항과 같은 취지로 개정한 것들이나 발음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것들이다. 옛 형태인 '가을카리'보다 새로운 형태인 '가을갈이'가 널리 쓰이므로, '가을카리'를 버리고 '가을갈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또한 '分針'에서 비롯된 형태인 '푼침'이 '분침'의 의미로 쓰이고는 있으나, '분침'이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어원도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푼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침'만을 표준어로 정하였다.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낭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

어원(語源)이 뚜렷한 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서 어원으로부터 멀어진 형태가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러한 형태를 가진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은 '江南'에서 온 것이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인정하여 현실음대로 '강낭콩'을 표준어로 정하였고, '삭월세'는 '朔月貰'의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으로 현실음인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5] 그렇지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갈비(갈비구이, 갈비찜)'와 '가리(가리구이, 가리찜)', '적이'와 '저으기'의 경우, '갈비'와 '적이'가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깝고 여전히 쓰이고 있으므로 '가리', '저으기'를 버리고 이들만을 표준어로 삼은 경우이다. ♣굴젓, 밀뜨리다, 휴지

제6항 다음 단어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돐, 둘째/*두째, 셋째/*세째, 빌리다/*빌다

의미를 구별하여 쓸 경우에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과거에는 '돌'은 생일, '돐'은 주기의 의미로 구분해 썼던 것을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두째, 세째'는 '첫째'

5) 다만, '월세'는 여전히 표준어이다.

와 함께 차례를 가리킬 때,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몇 개째'의 뜻으로 수량을 나타낼 때 쓰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빌다'는 '빌어 오다(借)'로, '빌리다'는 '빌려 주다(貸)'로 구분하여 쓰이던 것을 '빌리다'로 통합한 것이다.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열두째, 스물두째 등)으로 한다(단,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임.). 그리고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다,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호소하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다'의 경우나 '구걸하다'의 뜻으로는 그대로 '빌다'를 인정한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꿩/*숫꿩, 수놈/*숫놈, 수소/*숫소
다만 1. 다음 단어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수캉아지/*숫강아지, 수평아리/*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숫양/*수양, 숫염소/*수염소, 숫쥐/*수쥐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였다. 역사적으로 '암수'의 '수'는 명사 '수ㅎ'이었다. 오늘날 '수캐, 수탉' 등에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ㅎ'이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서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 것이다. 따라서 '수꿩, 수놈, 수소'가 표준어로 된 것이다. 그렇지만 '수캉아지, 수평아리' 등은 접두사 '수-'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였다. 이는 다음 음절 첫소리와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를 이룬 형태가 이미 굳어진 채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숫양, 숫염소, 숫쥐' 등의 단어에 한해서는 접두사를 '숫-'으로 하였다. 그 까닭은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수-: 수나사, 수은행나무, 수고양이, 수기린, 수다람쥐, 수벌, 수범, 수여우
♣거센소리 인정: 수캐, 수컷,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4.1.2. 모음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깡총깡총, -둥이/*-동이, 오뚝이/*오똑이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부주, 사돈(査頓)/*사둔, 삼촌(三寸)/*삼춘

국어는 모음조화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모음조화 규칙은 후세에 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더 약해지고 있는 편이다. 종래의 '깡총깡총'이 언어 현실에 따라 '깡충깡충'으로 바뀌었고, 큰말은 '껑충껑충'이다.[6] '-동이'도 음성 모음화를 인정하여 '-둥이'로 하였다. '오똑이'도 명사나 부사에서나 모두 '오뚝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는데, 이는 '오뚝하다'라는 현실 발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의 경우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부조, 사돈, 삼촌' 등은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여서, 음성 모음 형태인 '부주, 사둔, 삼춘'을 버리고 양성 모음 형태인 이들을 그대로 표준어로 삼았다.

♣막둥이, 쌍둥이, 검둥이, 바람둥이, 흰둥이

♣발가숭이, 보퉁이, 뻗정다리, 주추

제9항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내기/*-나기, 냄비/*남비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아지랑이/*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 장이', 기타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미쟁이, 멋쟁이/*멋장이

'ㅣ' 역행 동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동화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손잡이, 먹이다'까지 '손잽이, 멕이다'로 바꾼다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ㅣ' 역행 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의 개정은 극소화하였다.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

6) 그렇지만 형용사 '깡충하다'는 비표준어이고, '깡총하다'(1. 키가 작은 데 비하여 다리가 좀 길다. 2. 치마나 바지 따위의 옷이 좀 짧다.)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나기'가 그대로 쓰임직하지만, '시골나기, 신출나기, 풋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적으로 '-내기'로 통일하였다. '남비'는 일본어의 '나베(鍋, なべ)'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하여 처리했던 것이나, 제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냄비'로 한 것이다. [붙임 1]의 '아지랑이'는 그동안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행세해 왔으나, 현실 언어가 '아지랑이'이므로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붙임 2]의 '-장이'는 논란이 많았던 항목으로서 각각 상황에 따라 가려 쓰게 되었는데, 곧 기술자에게는 'ㅣ' 역행 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인 '-장이'가 붙은 것을, 그 외에는 'ㅣ' 역행 동화가 적용된 형태인 '-쟁이'가 붙은 것을 표준어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는 '미장이'가 표준어이다.

♣아기, 아비, 지팡이

♣유기장이

♣무식쟁이, 개구쟁이, 욕심쟁이, 소금쟁이, 담쟁이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으레/*으례, 괴팍하다/*괴퍅하다

현실적으로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로 굳어져서 쓰이는 것은,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미류-(美柳-)'인데, 이제는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다. '괴퍅하다'도 그 발음이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다. 따라서 '미류나무, 의례, 괴퍅하다'를 버리고 '미루나무, 으레, 괴팍하다'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구먼, 미륵, 여느, 허우적허우적, 허우대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구료, 깍쟁이/*깍정이, 나무라다/*나무래다
바라다/*바래다, 상추/*상치, 튀기/*트기, 주책/*주착

표준어 규정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한다. 그래서 모음의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구려'와 '- 구료'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 구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깍정이'는 'ㅣ' 역행 동화의 일종이나 '깍젱이'가 아니라 '깍쟁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나무래다, 바래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근래에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램'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가 '바라다'이므로 파생된 명사가 '바램'이 될 수 없다. '상치'는 치찰음 다음에서의 'ㅣ' 모음화로 보고 '상추'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며, '튀기→트기'는 모음의 단순화 현상인데 아직 원형이 쓰이고 있다고 보아 '튀기'를 표준어로 삼았다. '주착(主着)'은 현실음을 인정하여 한자어 어원을 버리고 변한 형태인 '주책'을 표준어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 미수(미숫가루), 시러베아들, 지루하다, 허드레, 호루라기

제12항 '웃 -' 및 '윗 -'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 -'으로 통일한다.
윗눈썹/*웃눈썹, 윗니/*웃니, 윗도리/*웃도리, 윗목/*웃목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짝/*윗짝, 위쪽/*윗쪽, 위층/*윗층, 위턱/*윗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 -'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웃돈/*윗돈, 웃어른/*윗어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극심하게 혼란을 일으켜 온 '웃'과 '윗'을 한쪽으로 통일하여,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였다. '다만 1'의 경우,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만 2'에서처럼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윗배, 윗입술, 윗자리/위채, 위치마, 위팔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구절/*귀절, 대구/*대귀, 시구/*시귀
다만, 다음의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구글, 글귀/*글구

그동안 '句'는 사람에 따라 '구'로도 읽히고 '귀'로도 읽혀 혼동이 심하였다. 그래서 한자 '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구절, 대구, 시구' 등이 표준어이다. 다만 '句'의 훈과 음은 '글귀 구'이므로, '귀글, 글귀'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가 표준어이다. ♣구점(句點), 결구(結句), 경구(警句), 문구(文句), 성구(成句), 어구(語句), 인용구(引用句), 절구(絶句)

4.1.3. 준말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똬리/*또아리, 무/*무우, 생쥐/*새앙쥐

제15항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이개/*귀개, 부스럼/*부럼, 낌새/*낌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고(제14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으며(제15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제16항). '똬리, 무, 생쥐'의 본말은 '또아리, 무우, 새앙쥐'인데 본말이 잘 쓰이지 않고 준말이 널리 쓰여서 준말인 '똬리, 무, 생쥐'가 표준어가 된 것이다. '귀이개, 부스럼, 낌새'의 준말은 '귀개, 부럼, 낌'인데 준말이 쓰이고 있기는 하나 본말이 더 널리 쓰여서 본말인 '귀이개, 부스럼, 낌새'가 표준어가 된 것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쓰임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니어서 본말을 표준어로 한 것이다. '거짓부리, 노을, 머무르다'의 준말은 '거짓불, 놀, 머물다'이다. 이들은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어 준말과 본말 다 표준어가 된 것이다. ♣막대기/막대, 망태기/망태,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 시누이/시뉘/시누, 오누이/오뉘/오누,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찌꺼기/찌끼

4.1.4.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너[四]/*네, -(으)려고/*(으)ㄹ려고, 천장/*천정, -습니다/*-읍니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너/넉(四)'은 예로부터 많이 쓰던 말이어서 표준어로 인정하였고, '-으려고'는 요즘 '먹을려고'처럼 '-을려고'를 많이 쓰지만 옳지 않다. '천정'과 '천장(天障)' 중 더 널리 쓰이는 '천장'을 표준어로 하였다.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가 더 깍듯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의미 차이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귀고리(*귀엣고리)[7], 귀띔(*귀틤), 꼭두각시(*꼭둑각시), 다다르다(*다닫다), 댑싸리(*대싸리), 멀치(*며루지/*메리치), 봉숭아(*봉숭화), 아궁이(*아궁지), 어중간(*어지중간), 잠투정(*잠투세/*잠주정)

4.1.5. 복수 표준어

제18항 다음 단어는 앞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뒷부분도 허용한다.
쇠-/소-, 괴다/고이다, 네/예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꺼림하다/께름하다, 나부랭이/너부렁이

의미의 차이가 없이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는 경우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이처럼 복수 표준어를 허용한 것은 국어의 폭을 넓히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소+ㅣ(의)'인 '쇠-'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소'도 허용하여 둘 다 표준어이다. '괴다'와 '고이다'는 축약된 형태와 그 이전의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예이다. '네'와 '예'는 두 형태가 널리 쓰여 둘 다 표준어가 된 것이다. 또한,

7) '귀엣고리'는 비표준어이지만, '귀걸이'는 표준어이다. 따라서 '귀고리'와 '귀걸이'는 사실상 복수 표준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으나, 워낙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꺼림하다'와 '께름하다', '나무랭이'와 '너부렁이' 모두 표준어이다. '나부랭이/너부렁이'에서 '너부렁이'를 '나부랭이'에 견주어 '너부렝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꾀다/꼬이다, 쐬다/쏘이다, 죄다/조이다, 쬐다/쪼이다, 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까/꼬까, 고린내/코린내, 구린내/쿠린내

4.2.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라 선정된 표준어

4.2.1.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하다/*설겆다, 애달프다/*애닯다, 오동나무/*머귀나무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가 표준어이다. '설겆다'를 버린 것은 이미 고어가 되어 쓰이지 않아 '설겆어라, 설겆으니, 설겆더니'와 같은 활용형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애닯다'는 노래 등에서 일부 '애닯다 어이하리'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의 잔재일 뿐 이 용어 역시 '애닯으니, 애닯아서, 애닯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쓸 수 없고, '운향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낭떠러지(*낭), 자두(*오얏)

4.2.2.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

제22항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총각무/*알타리무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고(제21항), 반대로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제22항).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의 경우, 한자어 계열의 단어인 '맹눈, 박달나무'는 용도를 잃게 된 반면,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계열의 단어인 '까막눈, 박달나무'는 널리 쓰이고 있어, '까막눈, 박달나무'를 표준어가 되었다.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총각무/*알타리무'의 경우, 고유어 계열의 단어인 '개다리밥상, 알타리무'가 생명력을 잃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인 '개다리소반, 총각무'가 널리 쓰여, '개다리소반, 총각무'가 표준어가 되었다. ♣밥소라(*식소라), 외지다(*벽지다), 잔돈(*잔전), 흰말(*백말/*부루말), 겸상(*맞상), 방고래(*구들고래), 양파(*둥근파), 칫솔(*잇솔)

4.2.3.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남겨 두는 원칙으로 한다.
멍게/우렁쉥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빈대떡/*빈자떡, 코주부/*코보

표준어 규정에서는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3항) 반면,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제24항) '멍게/우렁쉥이'의 경우, 원래 '우렁쉥이'가 표준어였으나, 지금은 방언인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이를 표준어에 포함한 것이다. 이때 애초의 표준어인 '우렁쉥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물방개/선두리, 애순/

어린순'도 이러한 까닭으로 복수 표준어가 된 것이다. 표준어였던 '빈자떡'은 방언인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방언이던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가 되었다. ♣귀밑머리(*귓머리), 까뭉개다(*까무느다), 막상(*마기), 생인손(*생안손), 역겹다(*역스럽다)

4.2.4.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고치다/*낫우다,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아 '고치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나 '오락가락'이나 '들낙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이 있는 까닭에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안절부절하다, 주책이다'는 부정사를 빼고 써도 부정사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특이한 말이다. 그렇지만 부정사를 붙인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광주리(*광우리), 까다롭다(*까탈스럽다), 담배꽁초(*담배꽁치, *담배꽁추), 등때기(*등떠리), 반나절(*나절가웃), 부끄러워하다(*부끄리다), 부스러기(*부스럭지), 샛별(*새벽별), 손목시계(*팔목시계, *팔뚝시계), 쌍동밤(*쪽밤), 쏜살같이(*쏜살로), 아주(*영판),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4.2.5.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뭄/가물, 가엾다/가엽다, -이에요/-이어요, 우레/천둥

'가뭄/가물' 중에서는 '가뭄'이 더 큰 세력을 얻고 있으나, '가물'도 아직 그 명맥

을 유지하고 있다. '가엾다/가엽다'는 활용형에서 '가엾어라'와 '가여워'가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요/-이어요'의 경우도 '책이에요/책이어요'처럼 보편화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ㅣ' 모음 동화를 반영한 표기 '책이예요, 책이여요'는 옳지 않고,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에'와 '이어'가 축약된 '저예요, 저여요'가 맞다. '우레/천둥'의 '우레'는 본래가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한자의 영향으로 '우뢰(雨雷)'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어에도 '우레'가 나타나므로 다시 '우레/천둥'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거리다/-대다,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고깃간/푸줏간, 곰곰/곰곰이, 관계없다/상관없다, 깃저고리/배내옷/배냇저고리, 꼬까/때때/고까, 나귀/당나귀, 넝쿨/덩굴, 녘/쪽,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느리광이/느림보/늘보, 다달이/매달, 닭의장/닭장, 돼지감자/뚱딴지, 뒷말/뒷소리,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들락날락/들랑날랑, 딴전/딴청, -뜨리다/-트리다, 만큼/만치,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모쪼록/아무쪼록, 물봉숭아/물봉선화, 발모가지/발목쟁이, 버들강아지/버들개지, 벌레/버러지,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 뾰두라지/뾰루지, 살쾡이/삵, 삽살개/삽사리, 서럽다/섧다, 수수깡/수숫대, 시늉말/흉내말,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앉음새/앉음앉음, 알은척/알은체,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어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여쭈다/여쭙다, 여태/입때/여태껏/이제껏/입때껏, 옥수수/강냉이, 욕심꾸러기/욕심쟁이, 의심스럽다/의심쩍다, 자물쇠/자물통, 중신/중매, 척/체,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혼자되다/홀로되다

<부록>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

개 항목이다.[8)]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1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	목물
맨날	만날
못자리	묏자리
복숭아뼈	복사뼈
세간살이	세간
쌉싸름하다	쌉싸래하다
토란대	고운대
허접쓰레기	허섭스레기
흙담	토담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ㅇ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25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길래	-기에	• **-길래**: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 ‘-었’ 뒤에 붙어)) ‘-기에’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 **-기에**: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 ‘-었’ 뒤에 붙어))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개발새발	괴발개발	•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 **괴발개발**: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8)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 오던 것(‘간질이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간지럽히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는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나래	날개	· **나래**: 흔히 문학 작품 따위에서, '날개'를 이르는 말. '날개'보다 부드러운 어감을 준다. · **날개**: 「1」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 「2」 공중에 잘 뜨게 하기 위하여 비행기의 양쪽 옆에 단 부분. 「3」 선풍기 따위와 같이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의 몸통에 달려 바람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
내음	냄새	· **내음**: ((흔히 다른 명사 뒤에 쓰여))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 **냄새**: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낌새.
눈꼬리	눈초리	· **눈꼬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 **눈초리**: 「1」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2」=눈꼬리.
떨구다	떨어뜨리다	· **떨구다**: 「1」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 「2」 고개를 아래로 숙이다. · **떨어뜨리다**: 「1」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다. 「2」 가지고 있던 물건을 빠뜨려 흘리다. 「3」 뒤에 처지게 하거나 남게 하다.
뜨락	뜰	· **뜨락**: 「1」=뜰 「2」((주로 '-의 뜨락'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거나 깃들어 있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한다.
먹거리	먹을거리	·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 · **먹을거리**: 먹을 수 있거나 먹을 만한 음식 또는 식품.
메꾸다	메우다	· **메꾸다**: 「1」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보내다. 「2」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채우다. **※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 **메우다**: '메다'의 사동사
손주	손자(孫子)	·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 **어리숙하다**: 「1」 겉모습이나 언행이 치밀하지 못하여 순진하고 어리석은 데가 있다. 「2」 제도나 규율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느슨하다. · **어수룩하다**: 「1」 겉모습이나 언행이 치밀하지 못하여 순진하고 어설픈 데가 있다. 「2」 제도나 규율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느슨하다.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	연방	· **연신**: 잇따라 자꾸 · **연방**: 연속해서 자꾸 **※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휭하니	휭허케	· **휭하니**: 중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빠르게 가는 모양. · **휭허케**: '휭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끄적거리다	끼적거리다	〃
두리뭉실하다	두루뭉술하다	〃
맨숭맨숭/맹숭맹숭	맨송맨송	〃
바둥바둥	바동바동	〃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
아옹다옹	아옹다옹	〃
야멸차다	야멸치다	〃
오손도손	오순도순	〃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하였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 그 정신은 첫째의 경우와 같다.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껸
품새	품세
짜장면	자장면

5 연습 문제

※ 다음에서 표준어를 고르시오.

[01] 나팔꽃/나발꽃, 털어먹다/떨어먹다
[02] 가을갈이/가을카리, 분침/푼침
[03] 강낭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
[04] 돌/돐, 둘째/두째
[05] 수꿩/숫꿩, 수놈/숫놈, 수소/숫소
[06] 수캉아지/숫강아지, 수평아리/수병아리
[07] 숫양/수양, 숫염소/수염소, 숫쥐/수쥐
[08] 깡충깡충/깡총깡총, -둥이/-동이, 오뚝이/오똑이
[09] 부조/부주, 사돈/사둔, 삼촌/삼춘
[10] -내기/-나기, 냄비/남비, 아지랑이/아지랭이
[11] 미장이/미쟁이, 멋쟁이/멋장이
[12] 미루나무/미류나무, 으레/으례, 괴팍하다/괴퍅하다
[13] 나무라다/나무래다
[14] 상추/상치, 튀기/트기, 주책/주착
[15] 윗눈썹/웃눈썹, 윗니/웃니, 윗도리/웃도리, 윗목/웃목
[16] 위짝/웃짝, 위쪽/웃쪽, 위층/웃층, 위턱/웃턱
[17] 웃돈/윗돈, 웃어른/윗어른, 웃옷/윗옷
[18] 구절/귀절, 대구/대귀, 시구/시귀
[19] 귀글/구글, 글귀/글구
[20] 무/무우, 생쥐/새앙쥐
[21] 귀이개/귀개, 부스럼/부럼, 낌새/낌
[22]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23] -(으)려고/(으)ㄹ려고, 천장/천정
[24] 설거지하다/설겆다, 애달프다/애닯다, 오동나무/머귀나무
[25]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
[26]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총각무/알타리무
[27] 빈대떡/빈자떡, 코주부/코보
[28] 고치다/낫우다,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29] 가뭄/가물, 가엾다/가엽다, -이에요/-이어요, 우레/천둥
[30] 넝쿨/덩굴, 벌레/버러지, 옥수수/강냉이, 자물쇠/자물통

♤ 정 답 ♤

[01] 나팔꽃, 털어먹다
[02] 가을갈이, 분침
[03] 강낭콩, 사글세
[04] 돌, 둘째
[05] 수꿩, 수놈, 수소
[06] 수캉아지, 수평아리
[07] 숫양, 숫염소, 숫쥐
[08] 깡충깡충, -둥이, 오뚝이
[09] 부조, 사돈, 삼촌
[10] -내기, 냄비, 아지랑이
[11] 미장이, 멋쟁이
[12] 미루나무, 으레, 괴팍하다
[13] 나무라다
[14] 바라다, 상추, 튀기, 주책
[15]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목
[16] 위짝, 위쪽, 위층, 위턱
[17] 웃돈, 웃어른, 웃옷
[18] 구절, 대구, 시구
[19] 귀글, 글귀
[20] 무, 생쥐
[21] 귀이개, 부스럼, 낌새
[22]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23] -(으)려고, 천장
[24]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
[25] 까막눈, 박달나무
[26] 개다리소반, 총각무
[27] 빈대떡, 코주부
[28] 고치다,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
[29] 가뭄/가물, 가엾다/가엽다, -이에요/-이어요, 우레/천둥
[30] 넝쿨/덩굴, 벌레/버러지, 옥수수/강냉이, 자물쇠/자물통

한국어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유하라 |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한국어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유하라 |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왜 하는 것일까?

(1) ㄱ. 한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ㄴ.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1ㄱ)과 띄어쓰기를 한 (1ㄴ)을 비교해 보자. 띄어쓰기를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에 비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이처럼 띄어쓰기는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간혹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2) ㄱ. 어제 산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ㄴ. 어제 산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2ㄱ)과 (2ㄴ)은 비슷해 보이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시장에 내다 판 토끼의 종류가 달라진다. (2ㄱ)은 산에 사는 토끼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고, (2ㄴ)은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토끼나 살아 있는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3) ㄱ. 큰집으로 이사를 갔다.
ㄴ.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3)의 예 역시 비슷하다. 띄어쓰기를 안 한 '큰집'은 큰아버지 댁을 의미하지만, 띄어쓰기를 한 '큰 집'은 크기가 큰 집을 의미한다. 가령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큰어머니께서 우리를 반겨 주셨다."와 같은 문장을 읽을 때 '(크기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큰어머니가 왜 반겨 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큰집'을 '큰 집'으로 쓴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띄어쓰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띄어쓰기의 원리

2.1. 자립성과 의존성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있고 항상 다른 말의 앞이나 뒤에 붙어 쓰이는 말이 있다.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4) 하늘, 자동차, 를, -는구나, 바다, 구름,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5)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6) ㄱ. 무얼 보니?
- 하늘.
ㄴ. 어딜 가니?
- 바다.

(6)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지는 않는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붙어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7) ㄱ. 학교를
ㄴ. 먹-습니다
ㄷ. 가-겠-다

(7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붙어 쓰이고 (7ㄴ)의 '-습니다'는 '먹-'에, (7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붙어 쓰인다.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의존적인 말들은 다음과 같다.

(8) ㄱ. 조사: 이/가(친구가), 을/를(친구를), 에게(친구에게), 도(친구도) 등
ㄴ. 접사: 덧-(덧버선), 최-(최첨단), -질(도둑질), -님(선생님) 등
ㄷ. 어간: 먹-(먹다), 하-(하다), 예쁘-(예쁘다), 좋-(좋다) 등
ㄹ. 어미: -는다(먹는다), -습니다(먹습니다), -겠-(먹겠다), -었-(먹었다) 등

2.2. 단어의 판별 기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단어란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가리키지만 '밤낮, 국밥, 돌아가다' 등과 같이 두 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것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의미이다. 즉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 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9) ㄱ. 노루∨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단어의 긴밀성이다. 즉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가져가다'는 '가져'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10) ㄱ.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가져서 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가져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3 띄어쓰기의 실제

3.1. 조사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다, 부터, 까지, 는커녕, 조차, 보다' 등을 앞말과 띄어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조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1) ㄱ. 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국립국어원∨입니다}.
ㄴ. {5시부터/*5시∨부터} {7시까지/*7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ㄷ. {노래는커녕/*노래는 커녕/*노래 는커녕} {말하기조차/*말하기∨조차} 어렵다.
ㄹ. 다른 {회사보다/*회사∨보다} 늦게 끝나는 편입니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12) ㄱ. {학교에서처럼만/*학교에서∨처럼만/*학교에서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ㄴ.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었다.
ㄷ. {언제인지부터는/*언제인지∨부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다. '같이, 밖에, 하고' 등은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에 따라 조사로 다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1) 같이

'당신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때의 '같이'는 '처럼'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단 '친구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 '같이'는 '함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참고로 '당신 같은'의 '같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13) ㄱ. 당신<u>같이</u> 친절한 사람은 없을 거야.
ㄴ. 친구와∨<u>같이</u> 오세요.
ㄷ. 당신∨<u>같은</u> 사람은 없을 거야.

2) 밖에

'밖에'는 '밖'이라는 명사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의 '밖'은 '안'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14) ㄱ. 학교∨<u>밖에</u>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
ㄴ. 이∨<u>밖에</u>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밖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밖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로 다룬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쓴다.

(15)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3) 하고

'하고'는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와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로 나뉜다.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는 '와/과'와 마찬가지로 조사로 다루며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는 조사가 아닌 동사 '하다'의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라고'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16) ㄱ.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 의존 명사

명사 중에는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가 있는데, 이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인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단어로 다루어진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17) ㄱ. 할∨수∨없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ㄴ. 일을 제시간에 끝내야 할∨텐데.
ㄷ. 부재∨시 관리실에 맡겨 주세요.
ㄹ. 회의∨중이오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
ㅁ. 기간∨내에 제출할 것

'수, 터, 시, 중, 내' 등은 모두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 외에도 '것,

나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뻔, 뿐, 적, 줄, 즈음, 지, 터, 겸,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등도 의존 명사이다.

[참고]
북한에서는 의존 명사에 대해 앞 단어에 붙여 쓰고 뒤에 오는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 대, 겸'은 앞 단어와 띄어 쓴다.

ㄱ. 아는것이 힘이다.
ㄴ. 모르면서 아는체 하는것은 나쁜 버릇이다.
ㄷ. 힘들줄 모르고 일한다.
ㄹ. 알곡 대 알곡/부수상 겸 농업상/사과, 배, 복숭아 등

의존 명사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과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 있다. 의존 명사는 앞서 살펴본 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어미의 일부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접미사와 비슷한 경우도 있다.

1) 대로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며, '좋으실 대로, 아는 대로'처럼 용언의 관형형[1]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대로'는 명사 뒤에 올 때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띄어 쓴다.

(18) ㄱ.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마음대로 해라. (조사)
ㄴ. 당신 좋으실∨대로 하세요./아는∨대로 말해라./지칠∨대로 지친 몸 (의존 명사)

2) 뿐

'뿐' 역시 '당신뿐, 공부뿐'처럼 명사 뒤에 붙을 때는 조사이고 '말할 뿐, 먹을 뿐'처럼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의존 명사이다. 간혹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 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뿐만∨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있으나,

---

1) 용언의 관형형이란 용언(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 '-ㄴ, -는, -ㄹ' 등이 결합한 것으로, 이들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예를 들어 '먹은 음식, 먹는 음식, 먹을 음식'의 '먹은, 먹는, 먹을'을 용언의 관형형이라고 한다.

‘뿐’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아니라’로 쓰는 것이 옳다.[2)]

(19) ㄱ.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조용히 들을∨뿐 뭐라고 하지 않는다./열심히 노력할∨뿐이다. (의존 명사)

3) 만

‘만’은 명사 뒤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가 있다.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에서 ‘혼자만’의 ‘만’은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돌아왔다.”에서 쓰인 ‘만’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다. ‘만’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주로 ‘만에’, ‘만의’, ‘만이다’의 꼴로 쓰이며, 앞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20) ㄱ.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밥만 먹는다. (조사)
ㄴ.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십 년 만의 귀향/이게 얼마 만이야. (의존 명사)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데, 이것은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오는 ‘만’이 있다.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21) 지낼∨만하다./먹을∨만은 한데 좀 비싸다. (의존 명사)

참고로 ‘만’과 ‘하다’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성이 있는데, 이때의 ‘만’도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다르다.

(22) ㄱ. 강아지가 송아지만∨하다.
ㄴ. 음악이 {들을∨만하다/들을만하다}.

---

2) 요즈음 ‘뿐만아니라’를 접속어로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과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빵도 먹었다.”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22ㄱ)의 '송아지만∨하다'의 '만'과 '하다'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3] 이때의 '만'은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22ㄴ)의 '들을∨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은 의존 명사이며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만'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4]

4) 데

'데'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ㄴ데'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ㄴ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5] (23ㄱ)의 '하는 데' 뒤에는 '하는 데에'처럼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있으나 (23ㄴ)의 '가는데' 뒤에는 조사가 결합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렇지 못한 '-는데'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23) ㄱ. 이 일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ㄴ.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24) ㄱ. 이 일을 하는∨데에…… (결합 가능)
ㄴ. *학교에 가는데에 …… (결합 불가능)

다음도 조사 '에'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데'를 앞말과 띄어 쓴다.

(25) 얼굴이 예쁜∨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5) 바

'바'도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ㄴ바'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이

---

3) '만하다'를 접미사로 보기도 하지만 '송아지만 하다'의 '만 하다'가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송아지만은 하다'처럼 보조사가 끼어들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4) 의존 명사 '만, 양, 법' 등 뒤에 '하다'나 '싶다'가 붙은 보조 용언 구성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 '3.5. 보조 용언' 참조.
5)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사류의 특징 중 하나다.

역시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6)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바(가) 없다.

(26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6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6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

6) 지

'지' 역시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 '-는지, -ㄹ지'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지'가 어미의 일부로 쓰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다른 어미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ㄹ지'가 '-ㄹ까'와 띄어쓰기가 같고 '-는지'가 '-는가'와 띄어쓰기가 같다.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도착할까'를 '도착할 까'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할까'와 '도착할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할지'로 붙여 쓴다고 이해하는 것이 '-ㄹ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했는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했는가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8) ㄱ.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이와는 달리 다음의 예들은 다른 어미와 바꾸기 어렵다.

(29) ㄱ. 고향을 떠난∨지 십 년 만에 돌아왔다.
ㄴ. 친구를 만난∨지 한참 되었다.

(29ㄱ)의 '떠난∨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 없으며 (29ㄴ)의 '만난∨지' 역시 '만

난가'로 바꿀 수 없다. 이때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용언의 관형형과 띄어 쓴다. '지'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7) 것(거)

'ㄹ걸'의 띄어쓰기는 'ㄹ 것을'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0) ㄱ. 나중에 후회할걸.
ㄴ. 후회할∨걸 왜 그랬어?

(30ㄱ)의 '후회할걸'은 '-ㄹ걸'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을'로 풀 수가 없다. 그렇지만 (30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후회할 것을'로 풀 수 있으므로 '후회할∨걸'로 띄어 쓴다.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ㄹ게'도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ㄹ∨게(것이)'로 바꿀 수 있으면 띄어 쓴다.

(31) ㄱ. 나 먼저 할게.(←갈 것이야)
ㄴ. 집에 가서 할∨게(할∨것이) 아주 많아.

8) 간

'간'은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이때의 '간'은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거리'나 '사이,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32) ㄱ. 삼 분간 기다려 주십시오.
ㄴ. 서울 부산∨간 급행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ㄷ.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간에 좀 움직여라.

나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한미간, *한일간'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때의 '간' 역시 '사이, 관계'를 나타내므로 '한미∨간, 한일∨간'으로 써야 한다. 다만 (33ㄴ)과 같이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은 붙여 쓴다.

(33) ㄱ. 국가∨간, 가족∨간, 친구∨간, 동료∨간
ㄴ. 부자간, 모자간, 부녀간, 모녀간, 형제간, 자매간……
다자간

[기타] 열거하는 말과 이어 주는 말[6]

열거할 때에 쓰이는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귤, 사과 등'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두 말을 이어 줄 때 쓰이는 '겸' 역시 '시인 겸 소설가'와 같이 띄어 쓴다.

(34) ㄱ. 귤, 사과∨등이 있다.
ㄴ. 시인∨겸∨소설가

열거할 때 쓰이는 말에는 '등' 이외에 '등등, 등속, 등지'가 있으며,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에는 '겸' 이외에 '내지, 대, 및' 등이 있다.

(35) ㄱ. 교실에는 책상, 걸상∨등이 있다.
ㄴ. 사진, 그림, 영화∨등등 볼 것이 많다.
ㄷ. 사과, 배, 복숭아, 감∨등속을 샀다.
ㄹ. 충주, 청주, 대전∨등지로 돌아다녔다.

(36) ㄱ. 국장∨겸∨과장
ㄴ. 열∨내지∨스물
ㄷ. 청군∨대∨백군, 삼∨대∨일
ㄹ. 기간∨및∨경비

3.3. 수 표현

1) 숫자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

6) 북한에서도 '등, 대, 겸'은 앞말과 띄어 쓴다.
(예) 알곡 대 알곡/부수상 겸 농업상/사과, 배, 복숭아 등

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 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 억, 조, 경' 등을 단위로 띄어 쓴다는 뜻이지만,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도 포함한다.

(37) ㄱ. 스물여섯
ㄴ.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

2) 숫자와 단위 명사

숫자 뒤에 쓰인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그 수를 조금 넘음'을 나타내는 '-여'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8) ㄱ. 금 서∨돈, 바둑 한∨판, 버선 한∨죽, 신 두∨켤레, 북어 한∨쾌
ㄴ. 십여만∨명, 십만여∨명, 십∨년여, 십여∨년, 삼십여∨년간, 두∨시간여, 삼백오십여∨명

[참고]
북한에서는 수에 대해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숫자 뒤에 오는 단위 명사와 일부 단어는 붙여 쓴다.

ㄱ. 3조 2억 3천만, 칠백 칠십이, 서른다섯
ㄴ. 닭알 3알, 학습장 5권
ㄷ. 70평생, 3년세월
ㄹ. 서른살가량, 20명정도

3.4. 관형사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이를 관형사라 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띄어 쓴다. 문제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관형사와 접두사는 뒤에 오는 명사가 한정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나뉜다. 예를 들어 관형사인 '전'은 '전∨국민, 전∨가족, 전∨식당' 등과 같이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접두사인 '범-'은 '범국민(적), 범세계(적)'는 가능하나 '*범학생(적), *범단체(적)' 등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관형사는 '전'과 같이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으나 접두사는 '범-'과 같이 뒤에 오는 말이 일부 명사로 한정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쓰고 접두사는 뒤에 오는 말과 붙여 쓴다.

(39) ㄱ. 전∨국민, 전∨세계, 전∨학교, 전∨학년, 전∨가족, 전∨식당
ㄴ. 범국민적, 범세계적

그런데 관형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말이 한 단어로 굳어지면 붙여 쓴다. (39ㄱ)에서 '전'은 관형사이지만 '전국, 전군, 전일' 등은 한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붙여 쓴다.

아래의 관형사들은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0) ㄱ. 각(各)∨가정, 각∨개인, 각∨학교, 각∨부처, 각∨지방 [비교] 각처, 각계각층
ㄴ. 고(故)∨홍길동 [비교] 고인(故人)
ㄷ. 귀(貴)∨회사, 귀∨학교, 귀∨연구원 [비교] 귀사(貴社)
ㄹ. 동(同)∨회사, 동∨학급, 동∨부서 [비교] 동년
ㅁ. 매(每)∨경기, 매∨회계 연도 [비교] 매년, 매회
ㅂ. 별(別)∨사이, 별∨부담 없이 [비교] 별일

3.5. 보조 용언

다른 용언 뒤에서 앞에 오는 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고 싶다'의 '싶다', '-지 않다'의 '않다', '-지 말다'의 '말다' 등은 보조 용언이다.

(41) ㄱ.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
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않았다.
ㄷ.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마세요.
ㄹ. 물건이 좋기는∨한데 좀 비싸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은 아니다. 보조 용언 중에서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 붙여 쓸 수 있다.

(42) ㄱ. 말도 없이 {서∨있었다/서있었다}.
ㄴ.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싶다/올듯싶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일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존 명사와 '-하다'나 '-싶다' 사이에 조사가 붙을 때도 붙여 쓰지 않는다.

(43) ㄱ. {울어도∨보고/*울어도보고} 매달려도 보았으나 모두 헛일이었다.
ㄴ. 너무 바쁘다 보니 약속을 {잊어먹어∨버렸다/*잊어먹어버렸다}.
ㄷ. 비가 {올∨듯도 하다/*올듯도하다}.

참고로 '-어 지다'와 '-어 하다'는 보조 용언이기는 하지만, 용언의 종류를 바꾼다는 점에서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44) ㄱ.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만들어∨졌다}.
ㄴ. 그는 아이를 {예뻐한다/*예뻐∨한다}.

간혹 어떤 말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의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45) 서류를 {찢어∨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46)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쓴다. 다만 '-지'로 연결된 보조 용언 구성은 붙여 쓰지 않는다.

ㄱ. '-아/어'로 연결된 보조 용언 구성
돌아치다, 몰아내다, 볶아대다, 젊어지다, 쓸어버리다
ㄴ. '-아/어' 이외의 어미로 연결된 보조 용언 구성
읽고있다, 읽고싶다, 하고나서, 쓰고말다, 읽는가보다
ㄷ. 의존 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보조 용언 구성
올듯하다, 들을만하다, 갈법하다, 가는척하다
ㄹ. '-지'로 연결된 보조 용언 구성
마지 못해, 머지 않아, 믿어마지 않다, 바라마지 않다

북한에서도 '아/어'로 연결된 보조 용언 구성이 잇달아 쓰일 때는 자립적인 행동의 단위마다 띄어 쓰고, 의존 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보조 용언 구성에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결합하면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ㄱ. 들어가 집어올리다, 만나보아 알고있다
ㄴ. 갈듯도 하다, 그럴만은 하다

3.6. 전문 용어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항).

(47) ㄱ.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47ㄱ)과 (47ㄴ)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8) 염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3.7. 고유 명사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항).

(50) ㄱ.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단어별 띄어쓰기)
ㄴ.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단위별 띄어쓰기)

(50ㄱ)보다 (50ㄴ)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서울대학교'가 한 단위이고, '의과대학'이 한 단위이고, '부속병원'이 한 단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7)]

다만 기관명에 '직속, 산하, 부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속, 산하, 부설'은 앞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 한 단위로 묶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

7) 이때의 '단위'는 직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수 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가능성은 낮다.

(49) ㄱ.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ㄴ.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참고]
북한에서는 고유 명사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디를 이루면서 잇달리는 것은 마디마다 띄어 쓴다. 즉 단위별로 띄어 쓴다.

ㄱ.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ㄴ. 조선로동당 평양시 강남군위원회

3.8. 성과 이름, 호칭어

성과 이름, 성과 호, 성과 자는 붙여 쓴다. 다만 호나 자가 성명 앞에 놓일 때는 띄어 쓴다.

(51) ㄱ. 김철수, 정송강, 이충무공
ㄴ. 송강 정철,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쓴다.

(52) ㄱ. 홍 씨, 홍길동 씨, 길동 씨(군, 옹, 양, 님)
ㄴ. 홍 과장, 홍길동 과장(차장, 부장, 이사, 회장)

호칭어로 쓰이는 '씨'는 앞에 오는 성이나 이름과 띄어 쓴다. 그러나 (53ㄴ)처럼 성씨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53) ㄱ. 그 일은 <u>김 씨</u>가 맡기로 했네.
ㄴ. 우리나라에서 <u>김씨</u>가 제일 큰 성이다.

[참고]
북한에서도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다만 성명 뒤에 오는 관직명은 붙여 쓴다.

ㄱ. 리남순, 장철남
ㄴ. 리남순과학지도국장, 장철남1비서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2011), 새터민 교사 연수 교재.
국립국어원(2011),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교재.
연규동(1998), 통일시대의 한글 맞춤법, 박이정.
유하라(2012), 띄어쓰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기획・편집: 황두연(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과장)
이유원(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사)

차례: 한국어 어문 규정Ⅰ: 한글 맞춤법의 이해(권미영,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남북한 규정 비교(권미영,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을 위한 연구 현황과 실제 현장 활용(권순희,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어 어문 규정Ⅱ : 외래어 표기법과 남한 외래어휘 교육(강보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이유원,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사)
한국어 어문 규정Ⅲ : 표준어 규정 해설(권미영,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한국어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유하라,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국립국어원 2013-03-05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사 연수 교재

2013년 6월 21일 인쇄
2013년 6월 25일 발행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5